

月刊

미사일

4294

7호



特輯 民主主義와 生活管理

- | | | |
|-----------|-----------|-----------|
| ◇ 營 衛 管 理 | ◇ 文 字 管 理 | ◇ 家 計 管 理 |
| ◇ 儀 式 管 理 | ◇ 禮 節 管 理 | ◇ 住 宅 管 理 |
| ◇ 健 康 管 理 | ◇ 衣 裝 管 理 | ◇ 娛 樂 管 理 |

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의 自己管理

軍人이 자녀야 할 일공가지 生活型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박정희 장군의 케네디 미국 대통령과의 초청으로 지난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였다. <사진> 1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전 국민에게 축말의사를 하던 장군 박 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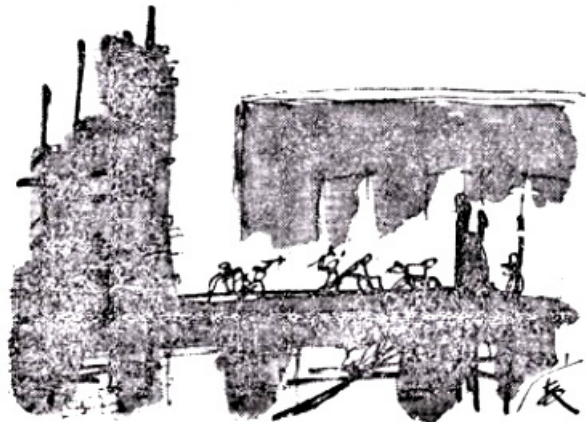


장군의 축말을 받으며 위풍凛々한 행진에 동참한 박 의장이 미국민의 뜨거운 환영을 감사하는 모습을 하였다.

박 의장과 케네디 대통령은 15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백악관에서 역사적인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의 협조를 다짐하였다.



미 사 일 제 7 호



표지 민철홍
문비 이희세

<목차(目次)>

★화보(畫報)	(표지(表紙) 2, 3면(面))
특집(特輯) · 민주주의(民主主義)와 생활관리(生活管理)	
민주주의사회(民主主義社會)에 있어서의 자기관리(自己管理)	이중우(李鍾雨)(2(二))
생활(生活)의 개혁(改革)과 창조(創造)	한태수(韓太壽)(5(五))
★언어관리(言語管理)	정충량(鄭忠良)(9(九))
★문자관리(文字管理)	이희복(10)
★가계관리(家計管理)	이은복(李恩馥)(11(一一))
★식전관리(式典管理)	김윤성(金潤成)(12(一二))
★예절관리(禮節管理)	최태호(崔台鎬)(13(一三))
★주택관리(住宅管理)	공병우(14(一四))
★건강관리(健康管理)	윤갑수(尹甲壽)(49(四九))
★의상관리(衣裳管理)	최경자(崔敬子)(15(一五))
★오락관리(娛樂管理)	윤길구(尹吉九)(16(一六))
군인(軍人)이 지녀야 할 일곱가지 생활형(生活型)	김종문(金宗文)(27(二七))
만화(漫畫)로 본 혁명(革命) 반년(半年)	신동헌(申東憲) · 김경언(金庚彦)
.	김일소(金一笑) · 백인수(白寅洙)(32(三二))
지조부인(智照夫人)	이명온(李明溫)(17(一七))
강태사(姜太師)	정한숙(鄭漢淑)(18(一八))
▲미사일의 역사(歷史) ⑤	(21(二一))
방공구국(防空救國) 3개월(三個月) ②	(42(四二))
▲세계(世界)의 경이(驚異)를 찾아서 ④	하리마톤(38(三八))
세계(世界) 신문(新聞)의 이야기 ②(이태리(伊太利) 편(篇))	김기점(金基漸)(36(三六))
제3회(第三回) 웅변대회(雄辯大會) 웅변원고(雄辯原稿) 1, 2, 3 등(等)	(52(五二))
△ 오늘의 우리 정부(政府)	류근국(柳根國)(45(四五))
미국(美國)의 지하(地下) 핵실험(核實驗)이 뜻하는 것	편집계(編輯係)(28(二八))
△ 61년 노벨 문학상(文學賞) 수상자(受賞者)	편집계(編輯係)(47(四七))
<수필>	
자수성가(自手成家)	전숙희(田淑禧)(55(五五))
십대(十代)의 직업(職業)	최이순(57(五七))
시 (詩)	
모두들 인간(人間)은 태양(太陽)을 안고 불타 오른다	박거영(朴巨英)(56(五六))
새	박남수(朴南秀)(57(五七))
<소설(小說)> 가을하늘보다도	추식(秋湜)(59(五九))
<희곡(戲曲)> 인간재생(人間再生)	류기영(柳起英)(62(六二))

특집(特輯) · 민주주의(民主主義)와 생활관리(生活管理)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자기관리

이종우(李鍾雨)



1.

서구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우리 사회에 실험된 지 어느덧 17년이 되었다. 그러나 8·15 해방 후 미군정을 거쳐 자유당 독재와 민주당 집권 1년에 이르는 기간은 한국 민주주의의 고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민주주의란 발판 없이 쉽게 체득 실천되기 힘든 원리라는 것일 것이요, 또한 이 민주주의의 실천에 있어서의 실패를 또렷이 음미 자득했다면 이것이 하나의 수확이라고나 할 것이다.

과거 우리는 민주주의니 자유이니 하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고 국회의원선거, 투표, 언론자유, 데모 등을 곧 민주주의로 착각할 정도였으니 한국의 민주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수년전 콘론 보고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현재(자유당치하를 말함-필자주) 불안정상태에 놓여 있다. 약간의 진보는 보이나 지난 수년간 민주주의의 외모만이라도 남아 있는 것이 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제도들은 최근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될까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은 우리의 기억에 새롭다. 그런데 같은 보고가 한국사회의 진단을 마치고 장래를 위한 처방을 쓴 것이 다음 글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에는 인자한 전제정치가 보다 타당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바와 같은 내우외환(內憂外患) 밑에서는 민주주의가 불합당할지도 모른다. 최소한도로 그 초기단계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에 어느 정도의 절제가 필요하고 과도기에는 어느 정도 지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견해는 어느 정도 우리의 반성을 촉구하는 경고도 되는 동시에 ‘한국인은 민주주의를 할 만한 자치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 서글픈 생각마저 품게 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치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극도로 저하하여 폴리틱얼 애퍼시(political apathy) 현상을 나타내어 결국에 가서는보다 강력한 정치를 바라는 민중의 마음에 편승하여 다시 악한 독재가

<특집> 민주주의와 생활관리

대두하게 되거나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이었다.

그러하여 뜻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인자한 전제정치나 선량한 독재만이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를 구출할 수 있다는 의견마저도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자하다든가 선량하다는 수식어를 머리에 부쳤다고 해서 전제정치나 독재를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A A 블록에 속하는 후진국들이 일 인정치 혹은 선량한 독재를 택해 경제부흥을 이룩하는 실례에 외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상 후진국에서는 민주주의니 자유니 하는 이념이 특권층의 부정과 간악을 묵인케 해주는 부패에의 자유로 변질되는 수가 왕왕히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의 자유가 마치 방일무절제를 허용하는 것처럼 착각하여 합리적이고 안정된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후진국 현실에 의회와 매스컴의 부패 횡포는 무질서와 파멸을 초래한 실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보아온 것이다.

그러므로 후진국들은 서구민주주의를 직수입하는데 실패한 경험을 통하여 민족적 주 체성을 회복하는 한편 그네들이 받아들인 민주주의가 겉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이념의 내실은 건드리지조차 못했음을 통감한 것이다. 특히 전통과 생활양식을 달리하는 동 양문화권에 속하는 제 민족이 이질적인 그리스도교 문화전통 위에 꽃핀 서구 민주주의를 자기나라 현실에 접목했다고 해서 꼭 성공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곤란한 것이다.

2.

민주주의는 그 문화전통 속에서 우러난 생활양식이다. 민주주의란 것은 단지 정치제도에 시종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이기 이전에 생활양식이며 그러한 생활양식을 성립시키는 데는 오랫동안에 걸쳐 형성된 윤리가 밑받침 되어 있는 것이다. 후진국들이 민주주의의 이상이 훌륭한 것이라고 해서 그 대의제 투표제를 채택한다고 하여 그 이식에 성공할 수 없으니 그것은 마치 감자 줄기만을 꺾어다가 심고 뿌리를 옮기지 못한 잘못과 같은 것이다. 교양을 지니지 못한 여인의 성장을 상상해 보라.

그러면 민주주의의 뿌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구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교전통에 긴밀하게 밑받침된 윤리인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 자유, 평등 의회민주제 투표제라고 규정 되지만 그것은 분지(分枝)들이지 민주주의의 뿌리는 아니다. 민주주의는 democracy라는 술어의 어원이 말해주듯이 대중 즉 국민의 지배이다. 국민의 지배란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지배하는 정치의 뜻이니 자치가 곧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의 근저에는 자치의 정신이 있는 것이다. 국민이 스스로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제퍼슨은 민중의 상식이 민주주의에의 의회의 기초가 된다고 했다. 민주주의가 우민정치일 수 없는 것도 역시 그 때문인 것이다. 개나 돼지와 같은 동물이나 미개인들에게 자치를 요구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자.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동물이지만 이성적 동물이라고 했던 것이다. 이성이란 분별심이나 산수를 셈할 수 있는 능력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칸트의 실천이성이 말해 주듯이 인간의 의지규정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자치가 가능하려면 그 개인은 각자가 도덕적 이성애 눈뜬 공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자유는 방종과 혼동될 수 없으며 쉽게 말하면 책임성 있는 자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개 자유를 천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자유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정치적 자유는 지배자의 압제나 폭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진정한 자유 즉 적극적 자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선 칸트가 말하는 자율의 자유인 것이다. 칸트의 도덕률의 근본이 되는 것은 이성애 따라서 행한다는 것이다. 이성이 스스로 자기입법을 하여 그 법칙에 따라서 행위하는 것을 칸트는 자율이라고 했다. 얼핏 생각하면 칸트의 자율은 법칙에 복종하는 것이므로 구속이요 법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율은 타율과는 반대로 제가 세운 법칙에 스스로 자신이 복종하는 것이므로 자기 원인적이며 자기 입법적이므로 법칙에 따름은 외적 인과필연의 계열에서 벗어나 새로운 계열을 제 의지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므로 자유라고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율적 행위의 주체는 인격임 으로 칸트의 자유는 인격적 자유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율성을 가진 자유는 자기가 세운 법칙에 자기가 복종한다는 점에서 엄숙한 책임감을 뒷받침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민주주의의 자유는 책임성과 인격적 자각의 윤리를 지닌 자유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율적 도덕을 갖지 못한 무책임한 개인이나 민중에게 타율적인 강제명령을 내리는 지배자가 있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민주주의가 사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사회에 있어서는 각 개인이 자기관리를 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관리란 것은 쉽게 말해서 자제력을 가진 개인, 리즈너블한 행위를 하는 개인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먼저 개인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개인의 자유와 인간성의 존엄이 옹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은 적어도 자기관리를 할 수 있는 개인이요 앞서 말한 책임성은 자각한 인격을 뜻하는 것이다.

3.

개인의 자기관리란 곧 자치라는 말로 대치시켜서 생각해도 무방하다. 인도민족 해방의 은인인 마하트마 간디는 정치적 독립에 앞서 스와라지(자치(自治))를 역설했으며 폭력을 통한 반영운동보다 민중 개개인이 진리를 파악하고(싸치아크다하) 자치(스와라지)할 수 있는 민주사회의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야 한다고 외쳤던 것이다.

민중의 자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치할 수 있는 민중의 성장이 민주주의 재건의 선행조건이다. 오늘날 후진국들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치의 정신을 기르고 각 개인이 자기관리를 할 수 있게 교육하여 민주주의의 초석을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5·16 혁명 후 재건국민운동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건국민운동은 온갖 봉건적 구습과 구악에 물든 국민들의 정신과 습성을 혁신하는 운동이며 다시 말해서 자기관리와 책임성을 지닌 국민을 만드는 운동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과거 두 정권이 저지른 욕된 과거를 일소하고 청신하고 사회정의가 다시 선 새 나라를 건설하는 도상(途上)에 있다. 우리의 긴급한 혁명과업은 군사혁명을 민간혁명으로 발전시킴으로서만 완수될 수 있다.

어느 혁명을 막론하고 국민의 동조와 지원 없이 성공한 예가 없으며 우리에게 있어 서도 국민 각자가 정신혁명을 거쳐 새 사람으로 재탄생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재건은 불가능할 것이다.

서구가 우리에게 준 문화적 가치는 자유, 평등, 관용 등의 정신이다. 우리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정신적 근거는 바로 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수호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후진국 중에서는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해 있는 예가 없지 않다. 더욱이 공산주의와 그 밖의 전체주의의 공세를 만나 민주주의적 자유를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유혹에 빠지는 수도 있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는 고되게 무거운 책임성을 동반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실존철학자 JP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에 의해 처형되어 있다'고 했던 것이다. 우리 인간은 민주주의나 자유와 같은 고귀한 문화가치의 무거운 짐을 벗어 버리려고 하는 경향까지 있으며 책임의 고역을 면하고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피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와 와이탈 헌법을 버린 독일이 택한 히틀러 독재는 무엇을 가져왔던가? 그리하여 카알 야스퍼스도 현대는 자유 거부예의 유혹에 빠져 있다고 다음과 같이 경고했던 것이다.

“자유를 포기케 하려는 유혹은 연민의 정과 인내의 결핍에서 생긴다.

먼저 연민의 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자유에 기본해서 사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런 사람더러 자유에 기본해서 행동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느낀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대해 자유를 기대하는 것은 잔혹하다 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동정하는 생각에서 그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를 포기케 만드는 결과가 된다.

다음으로 인내의 결핍은 우둔, 태타, 악의 등과 대면할 때 생긴다. 예를 들면 어떤 일에 밝은 사람이 그 일에 무지한 사람과 이야기 하고 있을 때 그 이야기가 무의미하게 되었을 경우 권위 있는 선언으로 말을 중단시킬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자 신이 대화를 거부함으로써 복종을 강요케 되는 것이다.”고 했다.

야스퍼스는 이러한 태도는 결국 자유를 남용하게 되고 마침내는 만인의 노예화를 초래케 된다고 경고했던 것이다.

우리는 결코 자유거부의 유혹에 빠져 민주주의의 재건에 무관심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때일수록 국민이나 지도자에게는 자기관리가 필요한 것이며 권력의 감미에 유혹되거나

<특집> 민주주의와 생활관리

복종과 책임면제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꾸준히 민주주의를 키우고 자유를 신장시키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향하여 그 기초를 닦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지난 17년의 쓰라린 경험 이 참다운 민주주의의 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며 서구 민주주의의 기성복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전철을 반성하여 민주주의의 한국화를 위한 모색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필자(筆者) 고대(高大) 부총장(副總長))

생활(生活)의 개혁(改革)과 창조(倉曹)

한태수(韓太壽)



1. 서론

우리 민족의 생활개혁은 오래 전부터 그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춘원(春園) 이광수(李光洙) 씨가 상해에서 돌아오면서 민족성 개조론을 부르짖은 것을 교시로 하여 해방후 자유당 시대에도 생활개선운동이 미미하나마 전개되었고 4·19 혁명 후에는 서울문리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새 생활운동이 봉화와 같이 일어났었다. 그것이 5·16 혁명 후에는 재건국민운동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누구나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며 여기에 성공하고 못하는 것이 국가운명을 좌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며 가장 핵심적인 과제인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가 여하한 의미에서 그렇게도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몇 가지 방향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역사적 전통으로 본 생활개혁의 필요성

우리 민족은 생활상 여러 가지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 전통 중에는 자랑할 만한 것도 많고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더욱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전통 중에서 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만을 지적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첫째 우리는 유교적인 생활전통에 젖어 있는데 물론 여기에도 좋은 점이 많이 있지 만 개혁해야 할 점이 더욱 많은 것 같다.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은 허례허식이다. 관혼상제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보자. 지금도 혼인을 하는데 있어서 여자 측에서 많은 예폐(禮幣)를 시가에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남자 측에서는 이 예물을 많이 받기 위하여 그에 대응하는 준비를 한다. 이와 같이 해서 피차가 무리를 감행하고 그 때문에 부채를 저서 결국 패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러한 전통이 형성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여자가 시가에 갈 때 예폐를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은 시가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 고 그렇게 해야만 시부모 시하에서 무사히 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남자 측에서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거의 전부 신부 일신에 관한 것으로서 의복과 패물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모두 신부가 어떻게 시가 살이를 잘하고 헐벗지 않게 하겠느냐 하는 것에 집중된 처사인데 그 근본은 남존여비의 대가족제도를 토대로 한 혼인이란 점에 있는 것이다. 이 전통이 유교적 사고방식에서 온 것이고 지금도 이 전통을 지키는 것은 허례허식이며 패가망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 상제(喪祭)에 관하여도 유교식 사고방식은 부모가 사망한 것은 자식이 효를 다하지 못한 죄라고 하여 상주를 죄인 취급하는 것인데 효에 대한 이러한 관념도 상하 계급을 토대로 한 봉건사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오늘날도 허례허식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가증할 일이 아니겠는가?

제사에 관한 것은 일종의 종교적 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종교의 발달사적으로 보면 아직도 미개종교에 불과한 것이다. 종교는 3단계로 발달하였는데 첫 단계는 자연 숭배였고 둘째 단계는 조선(祖先) 숭배였으며

셋째 단계는 신 숭배다. 즉 처음에는 인간 아닌 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하였고 그 다음에는 인간을 숭배 대상으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인간 아니면서 인간과 유사한 하나님을 숭배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제사는 제2 단계의 조선숭배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한 조선의 영혼은 살아 있어서 후손을 보호한다고 생각하고 성대히 제사를 차려야만 자식 된 도리가 되는 동시에 그 가호를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현대적 관념으로 볼 때 어리석기 짝이 없건만 그래도 그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 과학적 교육이 널리 또 깊이 보급되지 못한 탓이기도 할 것이다.

그밖에 또 한 가지 유교적인 전통으로서 우리 민족의 골수에 깊이 박힌 것은 주역(周易) 사상이다. 음양을 전제로 한 연역적 추리가 미래를 점칠 수 있다는 것으로 확신하여 갖은 예언서가 속출하고, 이것이 끝없는 신비감을 조성하여서 과학적 사고를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정감록(鄭鑑錄) 사상은 그 현저한 것이며 이러한 신비사상이 기독교와 결부하여 갖은 사교를 조출(造出)하고 있는 형편이다.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자연의 이치를 파악하고 이미 인간이 우주를 여행하게 된 때에 아직도 지극히 불확실한 연역적 추리에 만족하여서 될 것인가?

이상 유교적인 전통 외에 둘째 전통으로서 불교의 영향을 들 수가 있다. 불교는 그 근본원리가 생사를 통일시키는 데서 안심 입명하고자 하는 철리(哲理)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술한바 유교적인 신비감과 결부하여 갖은 미신을 낳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불타(佛陀)는 각(覺)한 존재가 아니고 서민들의 복을 비는 우상으로 화하였으며 사찰이란 사찰은 모두 유흥장으로 변하고 민가 복판에 깊숙이 분점을 내어 민중을 사기하는 도박장이 되고 만 것이다. 이 어찌 석가여래가 뜻하지 않던 비애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좀 더 건전한 종교가 필요하고 요행을 기다리지 않는 착실한 생활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요컨대 유교적인 봉건적 사고방식과 신비감이 기독교, 불교 할 것 없이 일절의 종교를 미신화 시켜 버린 것이니 하루 빨리 이 유교적인 폐습에서 탈급하는 것이 생활개혁의 요체가 될 것이다.

3. 민족성으로 본 생활개혁의 필요성

우리 민족성이 현재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이 결함이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속단할 수 없으나 여하튼 현재 중대한 문제로 등장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 결함 몇 가지를 든다면 첫째 협동심이 부족한 것, 둘째 은혜를 느낄 줄 모르는 것, 셋째 근로심이 부족한 것 등이다.

첫째 협동심이 부족한 것은 누구나 하는 말이다. 개개인은 모두 똑똑하고 영리하고 또 두뇌가 명석하다고 한다. 그런데 이 개개인이 모여서 집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병인 것이다. 영국인은 둘이 모이면 힘이 배가 되고 셋이 모이면 또 3배로 증가하는데 우리는 둘이 모이면 힘이 반으로 줄고 셋이 모이면 또 3분의 1로 준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다. 무슨 까닭인가? 필자는 그 이유를 국가 관념의 결여 내지 회박이라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결함은 후천적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조 오백년간에 자라난 사대주의 사상이 그 근본이 되는 것이다. 중국을 대국이라고 하며 이것은 불가침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국으로서 만족해하는 약자심리가 사대사상을 낳았으며 이 사대사상으로 말미암아 강자를 쫓아 이리 불고 저리 불고 하는 데서 결국 독립적인 국가의식을 상실하고 만 것이다. 한일합방 전 단계에서 일(日), 로(露[러시아], 중(中)이 한국을 노리고 서로 각축할 때 친중(親中)에서 친일(親日)로 친일에서 친로(親露)로 세력 따라 내왕하던 것을 생각해 보고 한일합방 후 친일에서 해방 후 친미(親美)로 넘어가면서 대미원조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고 자주독립의 기틀을 잡을 생각을 하지 못한 과거를 회상할 때 이조 오백년간에 자라난 약자의식이 하나의 민족성으로 굳어진 것을 감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는 이 약자의식에서 자포자기하고 국가의식을 포기한 소이니 중국적으로 남은 것이 의타적으로 개인의 생존과 영달을 도모하는 것뿐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 관념의 결여가 협동심을 박탈하고 만 것이다. 이 민족성으로써 어찌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독립을 목표로 투쟁하는 항일전선에서도 협동은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춘원의 민족성 개조론이 나온 것을 단순히 춘원의 자기변명으로서만 돌려버릴 수 없는 것이다. 여하한 방법으로서든지 우리는 국민에게 깊은 국가 관념을 넣어 주어야 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 관념만 바로 서면 협동심은 저절로 형성될 것이다. 요는 공동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을 통한 신념을 넣어 주어야 할 것이다.

<특집> 민주주의와 생활관리

둘째 은혜를 느낄 줄 모르는 결함이 또한 중대한 것이다. 보라, 남의 은혜를 입고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가?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은혜를 받고도 잊어버리거늘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겠는가? 사회에서 출세하고 잘살 수 있는 것은 물론 개인의 역량에 달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회로부터 받은 은혜도 큰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 대하여 은혜를 갚을 길도 생각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여 사회가 더욱 융성할 때 개인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를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하는 면이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원래 사회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이에 보답한다는 의미에서 사회를 위하여 자기재산의 일부 또는 노력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사업이야말로 고귀한 것이며 중인(衆人)이 추앙하는 덕망이 되는 것이다. 고아원, 자혜병원, 교육사업, 기타 각 구제사업이 모두 이러한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을 보라. 거의가 양두구육(羊頭狗肉)으로서 사회사업이란 미명하에 기업을 하고 있지 않는가? 고아원이란 이름하에 이방인의 정성 어린 희사(喜捨)를 받아가지고 사재를 축적하는 일, 교육사업을 빙자하고 학생을 착취하여 개인의 출세를 도모하는 일, 기타구제사업 운운하여 모금한 금품을 횡령하는 일 등등이 이 나라의 실정이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회사업을 하었다고 하여 공로를 운운하고 명예를 독차지하려 들지 않는가? 사회로부터 받는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사회사업을 제대로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사회를 떠난 개인의 생활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 따라서 튼튼한 사회적 기반 위에서만이 개인의 번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철저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개인이 역대의 주택을 가진다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6·25 사변 때 피난 가던 일을 생각해 보면 사회적 안정이 없는 개인재산은 물 위에 뜬 거품인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의 은혜에 응분의 보답을 할 수 있는 민족성을 길러야 할 것 같다.

셋째 근로심이 부족한 것은 양반이란 특권 계급을 인정하고 이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대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초래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근로하는 사람은 상인이라고 하며 천대하고 일하지 않고 시문(詩文)을 논하는 양반을 우대하였기 때문에 근로 그 자체가 천시된 것이다. 이러한 오랜 전통이 하나의 민족성을 형성하여 현재도 그러한 사고가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될 수만 있다면 근로하지 않고 살 생각을 하니 여기에 사기, 헐잡, 횡령, 배신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만 말쑥하게 차리려고 하는, 말하자면 양반 태를 내려고 하는 허식이 만들어 내는 현상인 것이다. 오늘날 한국처럼 못사는 사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치하기로는 유명한 풍조도 이러한 하나의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빈곤한 양반이 생활의 방도가 없어서 견디다 못해 세인(世人)이 천시하는 장사를 해볼 용기를 내었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함부로 할 수는 없고 양반이 일상 만지는 백지(白紙) 장사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을 ‘사시오’하고 외칠 수가 없어서 종이 장사하는 상인이 ‘종이 사시오’하고 외치고 다니는 뒤를 따라 다니며 ‘내 것도’하고 외쳤다는 이 이야기는 실로 의미심장한 것이다. 이러한 근로 천시의 정신을 뿌리서부터 빼버리지 않고는 이 나라의 경제제건을 이룩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시대적 요청으로 본 생활개혁의 필요성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는 좋지 못한 역사적 전통과 민족성의 결함 때문에 종내 자주독립 국가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민족(異民族)의 노예가 되어 36년간을 신음하다가 세계 제2차 대전의 덕택으로 해방이 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국토가 양단되어 민족적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 국토가 양단된 것은 어느 누구의 조작이란 것보다도 세계가 2대 진영으로 대립하는데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현상이니 이 문제는 세계문제의 해결과 함께 종말이 질 성질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살길은 당분간 남한만을 거점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 좁은 국토 내에서 밀도 높은 인구를 가지고 어떻게 경제건설을 해 가느냐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는 이상 우리의 전도(前途)는 또다시 암흑인 것이다. 다행히 우리는 미국이라는 세계 제일의 부강국으로부터 적극적인 원조를 받고 있으며 기타 자유 우방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만 정신 차려 올바른 길을 걷기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과거 자유당 정부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라. 그렇게도 많은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도 조금도 이 나라 경제건설의 토대를 닦지 못하지 않았는가? 국가전체를 위 한 원조를 일부 세력층이 농단하고 또 그 정권 유지를 위하여 낭비하고 만 것이다. 여전히 이 나라 국민은 과거의 악몽을 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실증(實證)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유당이 이렇게 한데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게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의 전신(前身)은 민주국민당이고 민주국민당의 전신은 또 한국민주당이었다. 이 한민당은 미 군정과 결탁하여 여운형(呂運亨) 중심의 근로인민당을 타도하였고 그 다음에는 또 이 박사를 업고 김구(金九) 선생 중심의 한독당을 타도하였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 박사를 상대로 정권투쟁을 하였으니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박사는 자유당을 만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자유당이 만들어지자 한민당은 당세를 확대하여 민주국민당으로하고 자유당과 투쟁하였으며 그 투쟁과정에서 다시 당세를 확대하여 민주당으로 한 것이다. 자유당이 난폭하니 이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투쟁한 것은 조금도 잘못이 없다. 그러나 이 박사와 대립하여 이 박사로 하여금 자유당을 만들어 내게끔 한 것은 결코 칭송할 수 없는 일이다. 요는 당쟁을 격화시킨 동기가 여기에 잠재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당쟁으로 망한 나라가 또다시 당쟁을 조장하여서 건국이 될 것이 무엇인가? 여하튼 민주당과 투쟁하는 데서 자유당은 도를 넘었고 그 때문에 자유당은 4·19 혁명으로 국민의 재판을 받았다. 그 결과 민주당은 집권하게 되고 국회 내에서 3분의 2 선을 돌파하는 국민의 신임을 얻었는데 왜 민주당은 양당으로 분열하여 국회 내의 안정 세력을 상실하고 그 때문에 정치세공만 하다가 정적수행은 착수해 보지도 못하고 말았는가? 모두가 쓸데없는 파쟁이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5·16 혁명으로 또 다시 국민의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때는 파쟁의 시기가 아니다. 총국민이 단결하여 민족적인 운명을 타개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하나가 모두 범국민적인 단결이 아니고 는 해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일례를 들어 썩어빠진 유명무실한 대학하나를 개쇄하려 해도 당쟁이 지속하는 한은 불가능한데 금일과 같은 교육계 전반에 걸친 대폭 정리를 총국민적인 단결이 아니고 가능하겠는가? 한일문제와 같은 외교문제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 국내에 파쟁이 심하면 외세는 이것을 이용하여 침투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핵심과제로 하는 경제건설이야말로 국민의 총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극복할 길이 없는 것이다. 외국 원조도 좋지만은 결국 경제적 자립은 민족자본의 육성에 있는 것이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국민생활이 먼저 요구되는 것이다. 여기에 생활개선운동이 필요하고 또 새 생활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자유당 시대도 민주당 시대도 국민적인 호응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를 보 지 못하였다. 5·16 혁명으로 민족적 운명을 마지막 씨름하는 이때도 국민은 깨지 않아야 하겠는가? 오늘날 혁명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해서 모두가 완전할 수는 없을 것 이다. 그러나 진정과 열과 성의로써 하는 것만은 사실이고 전체적인 방향에서 틀림이 없다면 지엽적인 문제는 건설적인 비판으로써 족할 것이고 나머지는 전적으로 협력하여 최후로 민족적인 운명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재건국민운동은 국민각자의 문제인 것을 역설하지 않을 수 없다.

5. 결론

개혁은 곧 창조를 의미한다. 우리의 생활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술한바 여러 가지 각도로서 고찰하였다. 문제는 어떻게 개혁하며 새 생활을 창조해 가느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위치를 알고 스스로의 민족적인 결함을 깊이 반성한다면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자연히 명백해질 것이다.

과거의 인습에 맹목적으로 추종하지 말고 하나하나 비판을 가하여 다소라도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세심히 연구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새 생활은 창조될 것 이다. 미국사람은 걸음걸이까지 힘을 덜 들이고 걷는 방법을 연구한다고 한다. 조금만 합리적인 사고로써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아도 너무나 개혁해야 할 것이 많은 것을 발견할 것이다.

(필자(筆者) 한양대(漢陽大) 정경대학장(政經大學長))

언어관리(言語管理)

정충량(鄭忠良)



한글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말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한다. 사실 외국을 여행해 보고 그런 점을 느꼈지만, 외국 친구들이 이야기 첫머리에 모든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좀 더 관심이 있는 친구면 당신 나라 고유의 말과 글이 있느냐고 물어볼 때에는 어처구니가 없어진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부족한 어학력(語學力)을 충동원해서 우리의 말과 글이 얼마나 훌륭하다는 것을 설명했지만, 생각하면 한 민족의 문화도(文化度)는 언어와 글자가 대변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닌 상 싶다.

감정이나 사상의 전달 행동인 말은 오랜 세월을 두고 세련되고 정화되어 발전되어 왔지만 일상생활에 있어서 정서를 보다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같은 값이면 부드럽고 아름다운 어휘를 골라서 쓴다면 훨씬 민족 전반적으로 정서가 승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위부대(前衛部隊)는 창작을 하는 시인(詩人)이며 소설가인 것이다. 그러나 시인이나 소설가가 아니더라도 언어는 만인의 것이니만큼 각자가 이 정화운동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보편적인 말로써 시급히 시정해야 할 말이 ‘죽겠다’는 어휘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심지어 말을 겨우 지껄이는 어린이까지도 ‘죽겠다’라는 말을 곧잘 쓴다. ‘더위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추위 죽겠다’, ‘좋아 죽겠다’는 등등 ‘죽겠다’라는 표현은 희비애노(喜怒哀怒) 어떤 감정에나 붙인다.

좋아도 죽고 더위도 죽고 추위도 죽는 이러한 죽겠다는 뜻은 약간 애교적인 언사이기는 하지만 어째서 하필이면 인간의 종말을 고하는 살벌한 어휘를 이런데다 갖다 붙여서 정서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시키는지 모르겠다. 죽겠다는 대신에 좋은 말을 찾아 볼 수는 없을 것인가?

편집자씨께서 친구간이나 부모가 자식한테 대한 듣기 거북한 말을 지적하라고 하였지만 사실 친우들 사이에는 친하여서 다정한 표시로 이말 저말 막 쓰나 그것은 친한 사이며 동년배 사이이니까 별로 큰 해독은 없다고 보겠다. 그러나 어른들이 자녀들을 꾸짖는 말 가운데는 그야말로 그들 정서를 올바르게 키워주지 못하고 저해시키며 메마르게 하는 언사가 많은데 이러한 언사는 자녀들 교육상 즉 인품을 도야시키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그들 정서를 좀먹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깍쟁이’, ‘미쳤다’, ‘돌았다’, ‘지랄한다.’를 비롯해서 ‘배라먹을’, ‘육시랄’, ‘염병할’, ‘주리 틀’, ‘오라질’, ‘개자식’, ‘후레자식’, ‘쌍놈자식’, ‘이 자식’ 등등…….

위의 것들 중에서 ‘깍쟁이’, ‘이놈’ 같은 욕은 비교적 가볍고 때로는 애교적인 감정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개자식’, ‘후레자식’, ‘쌍놈자식’ 이러한 것은 결국은 아이들을 욕하는 것이 되지만 부모 자신들까지 소급해서 욕하는 격이 된다. 그 외의 것은 자식에게 어떤 유체적인 이변(異變)을 원하는 최악의 소원을 간직한 욕이지만, 이러한 욕들은 어려선 듣는 아이들 자신이 그 뜻을 확실히 모른다고 하여도 자신에 대한 저주를 이야기하는 것인 줄은 누구나 알 것이며, 이러한 욕이 잦을수록 아이들이 부모에게 대한 불신(不信)이 초래되는 것이 아닐까?

‘염병을 앓는다’든지 또 ‘주리 틀’, ‘오라질’, ‘육시랄’ 등의 말은 이것이 악형(惡刑)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치 자식들에게 악운을 비는 것 같은 인상을 그들에게 준다. 욕도 악한 감정을 초월해서 다정하게 타이른다든지 자녀와 좀 더 애정의 아기자기한 표시를 하는 어휘를 찾아 쓰도록 해야 하겠다.

이러한 쌍스러운 말은 그 어음, 어감 자체가 아름답지도 못하러니와 어른들이 이것을 발음할 때에 발악적으로 하기 때문에 얼굴로 친다면 가장 험상궂은 추안(醜顏)일 것이다.

아이들은 감정이 예민하고 곧 어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꾸짖는 어휘 속에서 살벌한 감정이 부모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부식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어감으로도 제로(零)이겠지만, 교양면으로 보아서도 정상적인 양식을 지녔다고는 볼 수 없다.

필자가 어학 전문가가 아니므로 상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구미(歐美)식으로 ‘허니’, ‘달랑’, ‘스왓’, ‘디어’ 등등 말과 같이 사랑할 때도 그러하지만 이 말로써 욕으로 충당시킬 수도 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을 내포한 친근한 어휘로 욕을 대신 하는 것이 어떠할지? 물론 욕을 입 밖에 안 내면 더 이상 좋은 일이 없겠지만 이렇게 사랑의 말도 억양과 표현방법에 따라 선한 말로 증오를 나타낼 수 있다. 어른들이 화가 날 때에 가진 추악한 감정을 위에 적은 어휘를 빌려서 그대로 쏟아 불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상정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정서를 보다 풍성하게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쌍스럽고 좋지 않은 말들은 되도록이면 가벼운 의미에서요 ‘깍쟁이’라든지 ‘바보’라든지 이러한 정도로 해두고 그 이상 것은 안 쓰는 게 원칙일 것이다. 그리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부모들에게서 좋지 못한 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언어는 정화되고 승화될 뿐 아니라 인간의 공동생활을 한층 명랑하게 할 것으로 믿는다.

(필자(筆者)·일일신문사(日日新聞社) 논설위원(論說委員))

문자관리(文字管理)

이회복



우리의 둘레에 있는 글자들을 살펴보면 그 번거로움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구라파(歐羅巴) 제국(諸國)도 한국(韓國) 군사혁명(軍事革命)을 찬양(讚揚) 지지(支持)하였다.
3. USOM에서는 한국 경제계획을 지지하였다.
4. 500년 치란흥망(治亂興亡)을 간직한 남대문루(南大門樓), 더욱이 임현사능(任賢使能)을 위한

양녕(讓寧)의 기명(機明)……

이렇게 볼 때에 1은 순 국문이요, 2는 토만을 빼놓고는 모두 한문이요, 3은 로마자가 섞인 국문이고, 4는 숫자와 한문 속어가 섞인 글이다. 이렇게 복잡한 네 가지 종류의 글자를 쓰는 나라는 아마 세계에도 드물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는 이러한 복잡한 문화생활을 하며 그만큼 문자를 배우기 위하여 정력을 소비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언문(言文) 일치 운동이 있었고, 한글 전용 운동도 있었으나 오랜 시일을 두고 뿌리박힌 전통을 쉽사리 쫓기도 어렵거니와, 오랜 시일을 두고 쌓아올린 문화유산도 쉽사리 버리기는 힘든 것 같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간행되는 서적 중에서도, 교과서나 소설 따위, 또는 일부 식자의 글은 순 국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한문 혼용이라야 읽기가 쉽다든지, 시각적인 효용이나 뜻을 잡기에 편하다든지 하는 이유는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글이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 아무 부자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숫자는 하나의 기호로 쓰기 때문에 실제 글자의 생활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고, 로마자 역시 교육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하면, 문제는 자연히 한자 문제로 쏠리게 된다.

한자에 대해서는 제한이나? 전폐나? 또는 방입이나? 해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었고, 문교부의 자문 기관인 국어 심의회에서도 우리의 국어 정책을 위하여 토의한 바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렇다 할 두드러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의 현실은 교육한자 1,000자를 제정하여 초등에서 눈으로 익히기, 중등에서 한자 지도, 고등학교에서 한문 지도의 단계를 밟고 있으나, 일반 사회에서는 줄이자라는 의견은 많지만 실시는 어려워져 거의 무제한이라고 하겠다. 수삼 년 전에 일반 간행물에도 적용하게 하도록 1,300자를 제정한 바 있었으나 이도 한글 전용의 방향과 배치된다는 뜻에서 공포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한자 학습의 실태로 보아서는 이를 전면적으로 폐지함이 결과적으로 따져서 유리하다. 한자를 1,000자 배워서 읽을 수 있다고 해도 사실상 쓸 수 있는 글자는 50%-60%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다가 한자 1,000자라고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음과 새김으로 배가 되는 2,000가지가 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글자를 두 가지 세 가지의 음이나 뜻으로 읽기 때문에 부담은 더욱 많아진다. 六(유) 월, 오뉴(五六) 월, 오륙(五六)도, 六(육)십 등으로 육(六)자 하나를 4가지로 읽는가 하면, 자살(殺), 상쇄(殺), 절(切)단, 일절(切) 등 두 가지는 수두룩하다. 거기다가 새로운 술어는 국내에 이런 연구 기관이 없는 것과, 중국이나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원자, 핵무기 정상회담 등이 한자어로 받아들여지고 기성세대에서도 한자에 통하는 만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니 앞으로 이런 한자 술어는 증가될 가망이 많다. 한편 국내 사정을 보더라도 성명, 지명, 호적, 옛 문헌이 모두 한자이기 때문에 이를 일조일석에 폐지하기 어려운데 우리말이 한자 술어로 된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말의 본모습을 따려고 하는 인정(人情)도 많이 작용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는 우리에게 쉽사리 한자를 폐지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나 이 상태가 그대로 방임되면 더욱 우리의 문자 생활은 복잡 일로를 밟을 것이며 따라서 문화 그 자체의 발전보다 이를 발전시키는 수단의 학습에 더욱 많은 정력과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에서는 자기네 국자를 버리고 로마자로 과감한 개혁을 하는 예도 있는 것처럼 우수한 우리글을 가진 민족으로서의 한층 더 단일화된 문자 생활의 실천이 요구되는 바 크다.

(필자(筆者) 문교부(文教部) 편찬관(編纂官))

<약(藥)이 되는 말>

★ 좋습니다.

후한의 사마휘(司馬徽)는 타인의 욕을 하지 않는다 해서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간혹 실수를 하는 바가 없지 않았다. 그 까닭은 욕을 하지 않는 것은 좋다 하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 좋습니다. 라는 것이 임버릇이었다. 가령 고향인 영천(潁川)에서 사람이 찾아 와서 ‘요즘 건강은 어떻습니까?’하고 물으면 ‘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어느 날 오래간만에 찾아 온 사람이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하였습니다. 실은 자식 놈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는 대뜸

‘그거 참 좋았군요. 라고 응대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부인이 어이가 없어서

‘당신 어찌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드님을 잃었다는데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라고 책하자 그는

‘당신의 그 말도 참 좋군…….’

<특집> 민주주의와 생활관리

가계관리(家計管理)

이은복(李恩馥)



가정경제의 계획 원칙

가정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수입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가 갖는 일이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수입이 늘지 않고 갖고 싶은 대로 재산이 생기지 않는 것이 또 한 사회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이런 현실을 지나치게 벗어난 욕망이란 한낱 공상으로 돌려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가정경제 계획의 원칙은 건실한 생활기초를 닦고 생활내용을 향상시키며 만 일을 위한 대비,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수입과 이에 부응하는 지출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실제로 구현하자면

- 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표시되어야 하고
- ② 이 수지균형은 가정의 인원수에 따르는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들은 10인 가족인 경우에 5인 가족을 토대로 하는 소규모 수지균형의 숫자를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③ 또한 이러한 수지균형이 세대주의 연령여하에 따라 달라짐으로 수입 또는 지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는 세대주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 ④ 그리고 이와 같은 수지균형은 이를테면 식사비는 식사의 양보다 질에 중점을 두어 영양을 취하도록 해야 하며 이와 같은 음식비를 전 지출의 2분의 1로 한다면 소요음식비의 2배에 해당하는 수입을 가져 오도록 가족의 경제활동을 계획 조정해야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수입에 알맞는 합리적 생활기준과 태도가 필요하며 사회 실정에 부합되는 계획이 계속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계획원칙이 개념에만 한정되는 문제라면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이자 놀이로 수입을 잡는 사람, 월급, 주급, 일당, 제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으며 상인은 상인대로 대금의 결제 시기가 달라 수입의 규모나 기일에 제각기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상위(相違)한 여건 하에서 앞서 말한 계획과 원칙을 수입과 지출 면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몇 가지 요점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런 점은 한정되어 있다시피 한 수입보다도 지출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첫째 가족의 욕망을 컨트롤해서 생활환경에 부합되도록 지출을 조정해야 하며

둘째 수입이나 지출에 합리적 생활태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는 생활을 무의식적으로 또는 산만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보고 있는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물건을 살 때에는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삼으로서 몸의 피로를 덜하고 교통비가 절약되며 어느 정도의 에누리도 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수지 면에 저축을 반영시켜야 된다. 장래를 위해 보험, 저축또는 사계(私契)같은 것은 이런 방법으로서는 적절한 것이 될 것이다.

넷째 수입 지출은 일정기간을 두고 세워져야 한다. 우리는 보통 1개월씩 수입을 보고 있음으로 월간의 수입 지출을 예산화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섯째 이상의 계획은 어느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집단생활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전가족의 이해와 협력이 있어야 한다.

수입은 어떻게 계상(計上)하는가

첫째 수입의 평균화가 성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상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상을 계속적으로 벌어들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입은 확실성 있는 것을 계상해야 한다. 기대되는 이상의 것을 계상해서는 안 되며 확실성 있는 것을 계상하되 그것을 경상적인 성격의 것인가 아닌가를 구분해서 경상 수입과 임시 수입을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근로소득 또는 상, 농가에서 생계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내직 겸직 같은 가족의 소득은 경상수입이 될 것이며 상여금, 상급 등은 임시수입이 될 것이다.

지출은 어떻게 계상하는가

지출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정된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주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첫째로 지출에 있어서는 평균화된 숫자가 표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액과 시기가 확실히 예측되는 것을 경상지출로 책정해야 하며, 불시에 다액(多額)을 지출할 성질의 것을 임시 수입의 한도 내로 억제하도록 하고 평시에 가입해 두었던 예금과 보험 등으로 충당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불의의 사고나 행사에 대한 지출은 가족의견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여하에 따라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는 등 재산증가 또는 생산 성장 준비 등을 위한 저축성을 띤 지출이 계상되면 더욱 좋을 것이다.

둘째로 지출은 그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숫자여야 한다. 가족의 인원이 고려되어야 하고 가족의 연령과 성별이 참작되어야 한다. 어린이에게는 주식비와 교통비를 줄이고 간식비를 늘리며 여자에게는 의복비를 늘리는 것 등이 다. 다음에는 가족의 건강상태와 각자의 취미,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전 가족이 같은 취미와 성격을

가질 수 없고 또한 한정된 수입으로서는 그것을 다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이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상의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직업, 거주지, 계절의 변동 물가 변동, 가족의 지식수준의 고저 또한 가계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상과 같이 가계의 수입과 지출이라고 해도 그렇게 간단히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또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규모와 내용을 달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가정생활을 함에 있어 무의식에 흐르지 않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가계를 영위한다는 정신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자(筆者) 한국생산본부(韓國生産本部) 이사장(理事長))

의식관리(儀式管理)

김윤성(金潤成)



현재 우리 국민들이 당면한 과제는 경제의 부흥과 건전한 생활태세의 확립에 있다. 경제를 부흥시키고 건전한 생활태세를 확립하려면 먼저 과거의 모든 사치와 낭비 등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 즉 국민생활의 합리성이 강조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상도(想到)하는 것은 관혼상제의 의례이다. 관혼상제의 의례라고 하면 과거 우리 생활에서는 그것이 곧 낭비의 대명사와도 같이 생각돼 오고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 그 낭비는 너무나 심한 바가 있다. 딸을 시집보내기 위해서 땅마지기를 팔아야 하고 양친의 회갑을 펴기 위해서 오직 한 마리 방에 없는 농우를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혼수에 땅마지기를 팔지 않으면 인정 없는 부모라고 동네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회갑에 농우를 아끼면 후례자식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는 것이 실정이다. 과연 이래서 옳을까?

5·16군사혁명을 국민혁명으로 이끄는 재건국민운동에 있어서 신생활 체제의 수립 특히 관혼상제의 간소화와 합리화는 그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원칙적으로 말하면 신생활이란 우리들이 잘 살기위한 좀 더 진보된 발전된 편리하고 화려한 생활을 뜻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부르짖는 신생활은 어느 의미에서 그와는 반대로 도리어 후퇴한 불편하고 간소한 생활을 이르는 말처럼 되어 있다. 관혼상제만 하더라도 되도록 화려하게 풍족하게 치루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욕망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되도록 이를 간소화하자고 외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우리들의 신생활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과연 표면적인 조건 그대로만 본다면 우리들의 신생활은 물론 퇴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에 제 자신의 처지를 몰각하고 제 정신을 잃고 남의 힘에 의존한 가장 불합리한 뜬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혁파하고 새로운 각성의 생활로 들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민족 전체가 뒷날에 고도의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이 시대의 우리는 민족생활의 새 터전을 열어 놓아야 하겠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면한 우리 현실의 요청인 것이다.

한 가지 예로서 이 관혼상제의 간소화운동의 선봉으로서 지난 9월 6일 전주에서는 합동결혼식과 합동회갑을 계획 실시하고 있다. 몇 쌍이 되던 여러 신랑신부들이 한 식당을 빌려 백년해로를 맹서하면 그 비용이 절약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회갑을 맞이하는 분들이 한 자리를 빌려 수연(壽宴)을 편다면 따로따로 잔치를 하는 것보다도 싸게 먹힐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전주에서 계획한 합동예식의 비용이 1인당 1만원이라니 종래식 낭비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것은 한 가지 예이지만 당사자들의 처지가 희망하는 바라면 합동도 좋지 않겠는가 말이다. 낭비가 절약되는 것 이 대견스러우면서도 체면치레나 허영에서 힘에 부친 의례로써 경가파산(傾家破産)의 액운을 가져와서는 안 될 일이다.

생활 질서의 도의적인 규범인 의례의 본질이 정(情)과 성(誠)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식한다면 이 정과 성만을 다해서 치루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의 처지에서 이 정과 성을 다하여 우리들의 힘에 의한 가장 합리적인 것에서부터 관혼상제의 의례는 새로 출발되어야 한다.

이번에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최고회의의 승인을 얻어 전국적으로 실천하게 될 국민표준의례를 발표하였는데 이 표준의례는 먼저 공무원을 위시한 지식층이 숭선수범하여 일반 대중의 자율적인 준행이 뒤따르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筆者) 시인(詩人))

<약(藥)이 되는 말>

★견해의 상위(相違)

춘추전국 시대 송나라의 어떤 사나이가 우연한 기회에 귀중한 옥을 손에 넣었다. 그는 이것을 중신(重臣)인 자한(子罕)에게 갖다 바쳤다. 그러나 자한은 아무래도 이것을 받지 않았다. 사나이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옥을 잘 감청하는 사람에게 보였더니 세상에서 보기 드문 보배라고 하여 이것을 진상하는 터입니다.” “그 뜻은 고맙네. 그러나 나는 물건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배로 삼고 있네. 자네는 옥을 보배로 알고 있는 터에 만약 그 옥을 나에게 준다면 나도 자네도 다 같이 보배를 잃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 각자의 보배를 잘 간직함이 좋지 않겠는가?”라 하여 끝내 거절하였다.

<특집> 민주주의와 생활관리

예절관리(禮節管理)

최태호(崔台鎬)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는 표준의례규범을 발표하여 허례와 허식을 버리고 간결 진실한 생활실천을 권장하여 실천기간을 두고 국민의 자발적인 실천을 요망하고 있다. 만약에 자율적인 준행이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제화하여 강력한 규제성을 부여하겠다는 결의도 표명하였다.

원래 예절은 사회의 습속으로서 장구한 시일에 육성되어 왔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정신적인 윤리 관념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법제와도 관련이 있어 인위적으로 하루아침에 변형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가정에는 가풍이 있고 향리에는 향속이 있고 지역에 따라 습속이 다르고 종교에 좌우되고 민족과 국가사이에는 종종 오해를 받을 만큼 엄청난 형식의 차이가 있어서 세계민주사회를 지향하는 현대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 또 국제적으로도 형식의 통일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호가 있듯이 역사적으로 예절을 존중하여 이씨조선시대는 삼강오륜을 근본으로 하는 유교사상을 실천하였고 신분질서와 근세봉건사회국가를 유지하는 도덕적 율전에까지 이르렀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 형식적 예절은 일반 서민생활의 무거운 짐이 될 뿐만 아니라 번문육례(繁文縟禮)는 도리어 국정을 문란하기에 이르러 영조 정조 연간에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원칙에 따라서 간소화운동이 일어났고 ‘예는 정(情)에서 나오는 것이다. [禮出於情]’라는 것을 부르짖게 되었다.

지금 우리는 묘한 예절의 세계에 살고 있다. 고래(古來)의 미풍이 되는 정신을 따르는 것도 아니요 시대착오적인 남은 습속을 맹목적으로 답습하는 구사상과 일상시대에 은연히 스며든 왜풍 잔재와 해방 후 도도히 흘러드는 수박 겉핥기 양풍이 범벅이 되어서 이것이 가위 예절의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관혼상제에 이르러서는 그 번거로움이 폐해를 떠나서 민생 문제에 누가 되고 정신생활에 타락을 초래할 지경이다. 실속은 없이 겉치레만 하는 것이 한국 민족의 단점이라고 지적한 외국인도 있다지만 사실 관혼상제 관용으로 파산한 사람은 비밀비재이며 이것을 시정하려 해도 체면과 타인의 안목이 두려워서 용단을 내리는 일이 어려웠던 것이다. 여기 대해서는 일찍이 왜정(倭政) 때 중추원에서 예절의 간소화를 시도한 결과 의례 준칙까지 만들었는데 일정(日政)에 대한 저항심도 있고 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낸 일이 있다. 오늘날 국가재건의 세찬 희망에서 구습을 타파하려는 이때 이번에 제정된 표준의례규범은 마땅히 있어야 했고 또 국민 서로가 준수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의례 규범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예절은 관혼상제와 같은 형식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예절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민주사회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친선을 도모하고 나와 남과의 접촉 중에서 공통된 행동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인 만큼 모든 사교활동에 있어서 정신적인 호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겠다. 사교라든가 공중도덕이 생활화된 새로운 형식, 민주생활에 필요로 하는 행동규범이 광범위하게 새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오륜(五倫)이라는 원칙으로 보더라도 국가존속 봉우 부부 장유간의 관계를 형식화하는데 있어 종전의 구시대적인 남은 습속으로 좀 더 인간적인 면에서 합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지 않으면 젊은 시대는 자칫하면 오륜조차 부인하게 될지 모를 일이다.

젊은 세대는 가끔 도의타락을 개탄하지만 구형식에 있어 어느 면에서는 주종관계를 고집하기 쉽고 공중도덕에 관한 예절을 등한시하기 쉽다. 민주사회에 있어 예절의 근본정신은 어디까지나 인간존중의 원칙에서 서로 사람대접을 하기 위한 질서위에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재건의 중요한 요소는 인간개조에 있다고 혁명정부는 명백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인간개조는 부패된 인습을 타파하고 형식적인 유습을 지양하여 자유와 평등의 사회, 근로를 애호하는 국민성에 있다고 생각할 때 예절의 새로운 방향도 역시 이러한 데 귀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자기 사술에 스스로 얽매어 속된 예식에 곤란을 통감하던 이때 새로운 의례규범제정을 보고 만강의 찬의(贊意)를 표하는 바이다.

(필자(筆者) 국립도서관장(國立圖書館長))

<약(藥)이 되는 말>

★ 이순신(李舜臣) 장군의 절조

“이순신이 장비 제목으로서 훌륭하니 한번 볼러서 써보시오.”

부제학 류성룡이 이순신 장군을 병조판서 이 율곡에게 추천하는 말이었다.

“정 그렇다면 한번 만나게 하여 주오.”

이 율곡은 말과 같다면 이순신을 한번 써 볼 생각이 있다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류성룡은 즉각 이순신 장군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율곡 선생은 자네 일가 어른이기도 하니 한번 찾아가 보는 것이 좋겠네.”

유성룡은 이순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권했다. 그러자 이순신은 유성룡의 말이 쑥 들어가도록 큰소리로 쏘아붙였다.

“일가 어른으로는 찾아갈 만 하나마 병조판서는 찾아 뵈 수 없네.”

주택관리(住宅管理)

공병우



나는 과거 3년동안 우리 주택 개선을 위하여 몇 개의 집을 짓고 겨울 여름 살면서 실지로 실험을 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개선 목표는 적은 경비로 집을 지어 가지고 적은 돈으로 잘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보자는 것입니다.

1. 주택 대지

주택은 높은 곳을 택하지 말고 평평한 곳을 택해야만 경제적으로 지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주택은 모든 것을 운반하기가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을 얻기가 곤란합니다. 지난여름 장충단에서 일어난 축대 파괴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도 높은 곳을 택한 까닭입니다.

2. 길과 물

주택은 정원까지 자동차 마차 리어카가 드나들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길과 물을 먼저 확보해야만 경제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고 지은 후 경제적으로 편한 살림을 할 수 있습니다.

3. 수평과 문턱

주택은 문턱이 없이 방 부엌 변소 마루가 다 똑 같은 높이로 평평하게 지어야만 합니다. 높고 낮으면 다니기에 불편하고 일에 능률이 나지 않습니다. 문턱이 있으면 물건을 운반 하는데 힘이 들고 다니는 데도 불편합니다. 우묵하게 들어간 부엌은 막대한 시간 손해와 위생적으로 불결을 가져옵니다.

4. 변소와 부엌

변소와 부엌은 안방 즉 살림방 가까이 두고 안방에서 직접 드나드는 출입문이 달려야만 합니다. 만일 안방에서 밖으로 나가서 다시 변소나 부엌에 들어가게 하면 겨울에 안방과 변소와 부엌 온도 즉 열 손실이 많고 출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비되어 생활에 능률이 나지 않습니다. 밖을 통하여 부엌이나 변소를 드나들면 감기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5. 수세식 변소

변소는 살림방 가까이 두어야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세식이어야만 하고 배수관을 6치 이상 되는 것을 사용하여 휴지로 신문지를 사용하여도 막히지 아니 하도록 해야만 됩니다.

6. 변소 세수 목욕

대변, 소변, 세수, 목욕을 한 방에서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서로 떨어져 있는 장소에 만들면 왔다 갔다 하기에 시간이 걸리고 불편을 느낍니다.

7. 문

창문과 출입문을 되도록 적게 내야만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덥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람이 남북으로 통할 수 있는 창문이 꼭 있어야만 여름에 방이 서늘합니다.

8. 실내 온도 확보

한국은 겨울이 길고 대단히 춥습니다. 바깥 온도가 영하 10도 이하일 때에도 구공탄 난로를 가지고 20도 이상의 실내 온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이 필요합니다.

- (1) 흙벽돌로 벽을 만든다. 미국 기술자들이 가져다 준 흙벽돌 기계로 백토 8, 생석회 2를 섞어서 짙은 것입니다. 흙벽돌은 여름에 서늘하고 겨울에 덥고 값이 싸고 견고하다.
- (2) 천반 위에 가마니와 톱밥을 깐다.
- (3) 기와와 또는 함석 밑에 흙 또는 톱밥을 깐다.
- (4) 천정과 영마루 사이에 있는 공간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통하지 않도록 천정 속 벽을 흙으로 잘 바른다.
- (5) 창문은 수와 크기를 최소로 적게 만들고 비닐로 이중창을 만든다.
- (6) 온돌을 가급적 폐지하고 구공탄 난로를 놓는다.

이상과 같은 설비로 겨울에 아무리 추운 날에도 20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작년 겨울에 실지로 증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상과 같은 시설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안방, 부엌, 변소 할 것 없이 10도 이하에서 누구나 춥게 지냈습니다.

9. 망사

창문에 망사를 쳐서 파리 모기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16평 주택에 망사 비용이 약 10,000원 듭니다. 약 5년간 쓸 수 있습니다. 1년에 2천환 소비하는 셈이 됩니다. 2천환소비로 부엌 살림방 변소 그밖에 온 방에 파리 모기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겨울에도 망사를 뗄 필요가 없습니다. 모기장을 5, 6천환 주고 사다가 찢다 걷었다 하면서 한두 사람만이 사용하고 당년에 다 해쳐 버리는 생활에 비교 하면 시간적, 경제적, 위생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 더운 물

더운 물이 24시간 계속하여 나오도록 변소에 더운 물 보일러를 놓아서 수시로 목욕 빨래 세수를 더운 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더운 물 비용은 하루 19공탄 두덩이로 충분합니다. 19공탄 두덩이로 더운 물 뿐만 아니라 변소와 목욕실 온도를 살림방보다도 높이 보존합니다.

<특집> 민주주의와 생활관리

11. 목욕

목욕은 샤워를 할 수 있게 하여서 목욕하는 데 물과 시간이 절약되며 더운 물 보일러 때문에 살림방보다도 항상 2, 3도 높아서 옷을 벗고 목욕하는 기분이 대단히 좋 습니다.

12. 온돌방 폐지

온돌방은 늙은이들을 위하여 한 개쯤 필요 하지만 그밖에 모든 방은 신발을 신고 다닐 수 있는 시멘트 바닥으로 만들어 밖에 출입하는 데 신을 벗고 신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양말과 구두가 덜 떨어지고 때로는 구두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만 일에 능률이 납니다. 침실에는 침대를 놓고 잘 때만 구두를 벗습니다. 이상과같은 주택은 9월 현재 평당 10만환으로 지을 수 있고 지은 후 모든 것이 위생적이고 문화적 이여서 가족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일의 능률이 오르고 생활비가 적게 들으므로 사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종래에 지은 주택들은 건축비가 10만환 이상 소비되며 겨울에 많은 연료비를 소비하면서도 방과 부엌과 변소가 좁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고 부엌이 불편하고 변소가 더럽고 더운 물이 계속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목욕, 세수, 빨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잘 걸리고 약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종래의 주택은 돈을 많이 들이고도 위생적으로 경제적으로 능률적으로 손해가 막대합니다.

옛날부터 ‘집 짓고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 한국식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순 한국식은 모양을 보는데 막대한 돈을 들입니다. 실용적 가치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개량 주택은 집 짓고 반드시 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짓는데 돈 적게 들고 잘 살 수 있는 설비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필자(筆者) 공안과병원장(公眼科病院長))

의상관리(衣裳管理)

최경자(崔敬子)



최근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개선과 개혁의 소리가 접고되어 가고 있다. 과거에도 생활개선이니 신생활운동이니 하여 여러 번 이러한 문제가 클로즈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결코 우리 귀에 생소하게 들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5·16혁명 후에 전개되고 있는 신생활운동은 종래의 운동이 자못 일종의 구호에 그치고 만 데 비하여 이번 것은 팔목할만한 실천적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그 류를 달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기회에 우리는 우리의 의생활 속에서 결연 제거해야 할 비합리적 요소를 축출하고 합리적인 의생활의 방향으로 일대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예로부터 복장은 그 나라의 민족성 내지 시대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여 중요시되어 왔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크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시국이 개선과 재건을 부르짖는다고 해서 의상에야 결합이 있든 없든 무조건 고쳐야 한다는 공식론은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선은 어디까지나 결점에 한하고 우리에게 있는 좋은 점은 계속 살려 나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상의 개선 내지 합리화 과정에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세계성과 민족성에의 균형 있는 배려라 할 것이다. 무조건 세계의 경향에 따른다거나 반대로 민족의 고유성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디로 보나 곤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한국인의 일원인 동시에 세계의 일원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사용목적에 따라 옷을 가려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비 오는 거리에 양단을 질질 끌며 어물전 시장에 나다니다거나 건직으로 노동복을 만든다든가 하는 난센스가 아직 우리 주위에서는 너무나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비단 옷을 입고 일하는 것은 우리뿐인 듯하다. 옷은 입을 장소를 가려 입음으로서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양장도 마찬가지다.

셋째로 옷은 자연스럽게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나친 데커레이션을 강조하던 시대는 지났다. 심플하고 간편한 것이 자연스러움은 물론 세련미도 있는 것이다. 아무테나 세치짜리 하이힐을 신고 다니다거나 모양을 낸다고 외출복으로 일을 한다면 결국 웃음꺼리밖에 될 것이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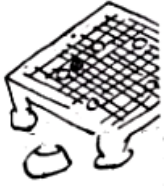
넷째 경제적 활동적이어야 한다.

이는 생활개선 전반과도 관련이 되는 것이지만 분수 이상의 성장을 해야 체면이 선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아예 금물이다. 우리 형편에 맞는 값싸고 활동적인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새로 제정된 신생활복은 새 시대 새살림에 잘 맞는 옷 즉 경제적이며 활동적이며 입기 쉽고 또 시대적 감각을 가진 훌륭한 옷이라고 하겠다.

결국 양복, 한복을 막론하고 이상의 조건을 구비한 옷이라면 곧 재건 생활에도 부합되는 옷이라라고 믿는다. Simple is beauty라는 말은 우리가 나가야 할 의생활의 방향을 잘 설명한 말이라 믿는다.

(필자(筆者) 최경자양재학원원장(崔敬子洋裁學院院長))



오락이라고 하면 자유분방한 것, 아무렇게나 웃고 즐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오락은 굴레 벗은 망아지와 같이 자유 무한한 것은 아니며 스스로 지켜야 할 규범이 있고 쌓아야 할 울타리가 있다. 취미가 개인적이고 내향적인 성질을 가진 데 비해 오락은 집단적이며 외향적인 성질을 가졌는데 이러한 성질 때문에 오락은 그 울타리를 단속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뿐만 아니라 오락은 재미있게 노는 것이니 재미는 오락의 생명이요 그 생명을 유지보존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인류 시초의 오락은 다분히 동적이고 육체적인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사냥, 각종 경기, 춤 등은 그들의 오락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경향은 어린이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숨바꼭질, 딱지치기, 말타기, 뽀빠질 등 원시인의 오락을 상상케 한다. 그러나 사람이 성장하고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오락은 차츰 보다 정적이며 두뇌적인 것으로 변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윗놀이, 바둑, 트럼프 놀이 등으로 알 수 있고 최근에는 만담, 수수께끼의 사촌뚝 되는 퀴즈, 극 등이 성향을 이루어 지적이고 추리적인 오락에로의 흐름을 여실히 보여 준다.

오락은 분명히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니 사색적이고 추리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집단의 오락에서 대중오락으로 달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달력이 강한 매스컴의 발달에 기인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오락의 합리화는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매스컴을 통한 오락에만 주목해보면 거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문자, 도형, 사진 등을 수단으로 쓰는 잡지, 신문에 의한 오락,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는 오락이다. 둘째는 말, 음악, 의음(擬音) 등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송에 의한 오락, 그것은 귀로 듣는 오락이다. 끝으로 이상 두 가지 수단을 합한 오락으로서 영화, 텔레비전 등에 의한 것이 있다. 그럼 여기서 오락의 합리화를 매스컴을 통한 오락을 중심으로 얘기 해 보겠다.

합리화라는 말이 결국 목적과 수단의 조화를 뜻할 때 합리화의 요건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건전한 오락성

오락은 보고 듣는 사람을 충분히 즐겁게 해줘야 함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을 맑고 아늑하게 해줘야 한다. 슬기로운 유머 풍부한 위트와 더불어 그 토대에는 건강하고 명량한 즐거움이 흐르는 것임을 요하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유익한 내용이 가미돼있다면 그것은 최상의 오락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흔히 웃기는 데에만 중점을 두는 나머지 웃고 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불쾌감을 수반하게 하거나, 웃기는커녕 노여움, 역겨움을 맛보게 하는 일도 없지 않다. 개인의 험담, 신체적인 결함, 또는 더럽고 음란한 내용은 오락을 파양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또한 건전한 오락은 위험의 쾌감을 내포하면서도 사행심을 자극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 거액의 금전이나 상품을 걸어 투기, 도박으로 타락해 버리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하겠다.

2. 간단한 형식과 알기 쉬운 룰

오락의 형식은 되도록 간단하고 한두 번 보고 들어서 룰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형식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 즐거움은 일어나지 않는 법이다. 따라서 새로운 오락은 되도록 간단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존형식을 모방함이 좋다.

3. 빠른 진행

빠른 진행이라 함은 보고 듣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한도 안에서의 빠른 진행을 말한다. 오락의 요소는 유머나 위트뿐만 아니라 스텔과 서스펜스를 포함한다. 너무 느리고 맥 빠진 진행은 권태로운 것이다. 흥분과 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진행은 오락의 능률을 높이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오락을 합리화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을 들어 왔다. 특히 오락을 기획하고 그 제작에 참여하는 분들은 오락의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한도를 고수해서 건전한 오락을 지향하는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하겠다.

(필자(筆者) 서울중앙방송국장(中央放送局長))

약(藥)이 되는 말

★탕(湯)·무(武) 시대는 멀었다.

어떤 장군이 천하를 평정했다. 그의 부하가 장군 앞에 나아가

“장군님의 높이신 덕망이 천하에 빛나고 만백성들이 탕·무 시대를 만난 것 같이 여기나이다.”

“음, 그럴까? 그러나 탕·무 시대에는 너같이 아첨하는 부하는 없었을 걸……”

이 말에 부하는 그만 몸을 움츠렸다. 장군은 다시 말을 이어

“이것만 해도 탕·무 시대 같기는 아직 멀었다. 아첨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있는 동안은……”

★ 정봉(鄭鵬)의 청백(淸白)

청송부사 정봉과 영의정 성희안(成希顔)은 젊었을 때부터 친한 사이였다. 성희안은 이런 우정만 믿고 청송 땅의 명산(名産)인 꿀과 잣을 좀 보내라고 편지를 냈더니 곧 답장이 왔는데 그 내용인 즉 “잣은 높은 산꼭대기에 있고 꿀은 백성들 집 벌통 안에 들어 있는데 이 고을의 원 노릇하는 내가 어찌 얻느냐?”는 사연이었다. 이 답장을 받은 성희안은 그만 무안해져서 사과하는 편지를 보냈다.

지조부인(智照夫人)

-원술(元述)의 어머니-

이명온(李明溫)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무인(武人)이라 하면 위선 누구의 머리애나 상기되는 것은 화랑(花郎)이라는 씩씩한 모습이다.

즉 백의(白衣) 민족이 대량의 병력과 수십만 대군을 모아 원정(遠征)과 토벌(討伐)과 대란(大亂)의 싸움을 한 것은 삼한(三韓)에서 신라통일애의 이르기까지가 전사에 뚜렷한 기록이요 이것이 우리 민족의 무사의 혼과 화랑도 화랑정신의 전통을 핏줄 속채 길이길이 계승하여 준 것만

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여야 한다.

동시에 이 나라 후예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충렬의 영장이며 위인(偉人) 열부의 전기도 그 시절이 가장 대표적이라는 것을 온갖 문헌과 사기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

당시의 명장으로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金庾信) 장군과 더불어 그의 내조에 빛나는 지조부인이야말로 무인의 부인으로서 민족의 사표(師表)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인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조부인은 신라 태종 왕의 셋째 따님이요 김유신 장군의 아내이다.

지조공주는 18세의 꽃다운 여성으로 당대의 영웅인 60 노장 김유신의 아내가 된 것이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의 가약이란 듣기만 하여도 놀랄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다소의 정략도 있었을 것이요 유신이 장군으로 나라에 생명을 바쳐 충혈을 다하였던 나머지 혼기를 잃은 탓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결혼 후 다섯 형제를 낳았고 그 중의 둘째 아들이 역사상에 유명한 원술이다.

그때 신라는 통일천하를 이루기 위하여 백제와 고구려에 선전포고를 하고 침략을 거듭하고 있을 때였다.

홍망이 목전에 다다른 백제와 고구려는 당나라의 원병을 청하여 신라에 대항하였기 때문에 신라는 여지없이 패전의 고배를 마셔야만 하였던 것이다.

그때의 비장(裨將)이 원술이다.

원술은 죽음을 각오하고 말을 달려 적진으로 달려가려 하였으나 그의 부하들은 형세의 불리를 역설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자고 원술을 붙들어 도리 없이 출전을 중지하고 후퇴하여 들어와 아버지 유신장군 앞에 머리를 조아려 사유를 아뢰었다.

그러나 유신은 내 아들의 생환을 기뻐하기는커녕 서릿발 같은 노기를 띄우고 왕 앞에 나와

“원술이 왕명을 어기고 가훈을 더럽혔사오니 이놈을 죽이시옵소서.”

하고 스스로 장검을 빼어 원술을 죽이려는 것을 왕은 중지시킨 것이었다.

그 때로부터 원술은 수도를 떠나 산중으로 들어가 무예와 학술에 고달픔을 바치며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원술이 그의 나이 겨우 10여세 소년 시절이다.

말하자면 그는 가장 천진하고 감수성이 빠른 소년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가 타고 나온 핏줄 속에도 화랑의 혼이 뿌리깊이 스며있었다.

원술은 아버지의 죽음도 보지 못하였다.

서기 673년에 유신은 세상을 떠나고 미망인 지조부인이 애통 속에서 세월을 보낼 때 원술은 부모애의 그리움을 참을 길 없어 불효의 대죄를 뼈아프게 느낀 나머지 홀어머니를 뵈러 고향을 향하여 돌아왔던 것이다.

천륜의 피는 서로가 그 마음을 이끌었을 것이요 홀려간 오랜 세월은 중죄라도 사할 수 있었으려면 지조부인은 꿈길에도 잊을 수 없는 귀여운 내 아들의 귀향을 냉정하게도 맞아주지 않았다.

아버지의 자식 노릇을 못한 불효한 자식에겐 어머니 노릇을 할 수 없다는 엄격한 꾸지람으로 원술을 맞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애정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뼈아픈 것이요, 값싼 용서는 인간을 그르치게 만든다는 이론을 지상의 모성은 누구나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여인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니다.

나라를 위하고 남편과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명을 대할진대 그 정신의 쓰라림과 괴로움과 고독의 인종을 당연한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신념은 실로 값비싼 주옥이나 다름이 없다. 원술은 눈물을 머금고 다시 태백산으로 들어가 수년이란 세월을 보내다가 당나라가 또 다시 이십만의 대병을 인솔하고 신라에 침입한다는 소식을 듣자 이제야 설욕의 시기가 도달한 것을 깨닫고 의용병을 일으켜 선두에 서서 대병을 막아내고 드디어 대공을 세우게 된 것이다.

마침내 나라를 위해 빛나는 공훈을 세우게 된 원술은 당대의 장군이 될 수도 있었고 그의 충혼은 화랑을 대표하고도 남음이 있었지만 그는 부모에게 득죄한 몸인 것을 인식하고 끝내 벼슬을 받으려 하지 않았다.

만형 삼광(三光)이 재상의 직위에 오르고 장손 윤중(允中)이 장군이 되고 원술도 당당한 명장의 직위를 차지하여야 할 것을 그는 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꾸지람이 영원히 뺄끝에 사무쳐 죄인의 불운을 달게 받고 만 것 이었다.

지조부인은 이렇게도 위대한 모성으로 나라를 위해 남편과 자식을 바친 현모열부였으나 그의 생애는 말 할 수 없이 쓸쓸하였을 것이요, 여성으로서 원하는 가정의 단란함이나 인생의 행복은 꿈도 꾸어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여성은 대개가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와 내 조국 나와 남편 나와 자식 나와 내 집 이렇게도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하여 없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아적인 관념 속에서 적은 위안으로 만족을 느끼게 마련이다.

무엇무엇……을 위하여 희생을 한다든가 목숨을 바치는 경우가 설혹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소극적인 감정의 쇼크와 무지한 운명론에 얽매인 희생이요 군세 신념과 냉정한 이성 아래 스스로가 이바지하려는 사상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지조부인은 그 생애가 거룩한 사상이었고 애국의 혼이었다.

그가 유신장군 사후에 삭발을 하고 중이 되어 여생을 보냈다는 것도 역시 위대한 정신의 지조가 아닐 수 없다.

빛을 남긴 무인(武人)

출입(出入) 장상(將相)

강태사(姜太師)

정한숙(鄭漢淑)

강감찬(姜邯贊)은 서기 984년 지금의 시흥 땅에서 출생했다. 고려 때는 그 중기까지 문무(文武) 두 갈래가 명확하지 않았던 관계로 조정에는 문신으로서 무신을 겸한 사람이 많았던 바 강감찬은 그 중 가장 뛰어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유달리 얼굴이 못생긴데다 키가 또한 작았던 관계로 초라하고 추하기가 이를 데 없었다. 우선 외모가 이러하니 어려서 부터 이웃사람들이 은근히 손가락질 하게 되었고 또한 친구들 간엔 놀림감의 대상이 되기 마련이기도 했다.

세상은 언제나 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공평치 못하고 또 불공평한 것 같으면서도 공평한 법이었다.

강감찬의 경우도 그러했다. 외모는 이렇듯 보잘 것 없이 초라했지만 그 기개는 굳결일학 격으로 자기를 놀려대는 친구들에 비하여 출중하게 문무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다.

비록 그 용모는 비웃어 넘긴다 해도 그의 재주는 누구나 선망의 정도가 지나쳐 시기할 정도이기도 했다. 타고난 자질에 면학을 즐기는 성품은 그로 하여금 후일에 탁월한 지략을 겸전(兼全)케 하였던 것이다.

그는 평소의 노력의 보람이 있어 처음에 제6대 성종 때에 갑과제일에 뽑혀 문관으로 출사하게 되었다. 이것이 그가 장차 공을 세워 나라의 주석이 되는 첫 걸음이었던 것이다.

고려조는 북방 오랑캐의 침략이 극심한 시대였거니와 제8대 현종 6년에 거란이 사십만 대군을 몰고 압록강 동안 지역을 침략해 왔던 것이다.

거란족은 만주 몽고일대에 살던 미개족의 무리로서 신라말기에 그 추장 야율아보기란 사람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국세가 자못 강대하여 쉽사리 발해를 없이하고 요나라를 세우고 있었다.

거란은 발해를 넘어뜨리고 의기가 자못 높은 터에 새로 이룩된 고려를 넘볼 생각이 일찍부터 있었던 것이다. 태조 25년, 거란 태종은 고려와 외교관계를 맺으려고 거란에 사자(使者) 30여명과 낙타 50필을 보내온 일이 있었다. 그런데 고려 태조는 “거란은 버릇없는 나라로서 발해를 망하게 한 나라다.”

라고 하여 사자 30여명을 잡아서 귀양을 보내고 낙타는 매어 놓은 채 방치해서 굶어죽게 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관계로 태조 때부터 거란과의 관계는 평탄치 못했던 것이다.



거란은 외교 정책에 실패하자 무력으로 고려를 굴복시키려는 데서 앞서 성종 12년에도 대군을 몰고 침입해 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간 일이 있어 이번이 두 번째의 침략이었다. 이때 고려에서는 강조(康兆)라는 사람이 30만 대군을 통솔하여 지금의 평북 선천 땅에서 막으려 하다 패하게 되었다. 일단 막히려던 길이 뚫어지자 거란군의 형세는 마치 독을 끓여놓은 물결과 같아서 송경을 향하여 일제히 진격해 왔다.

놀란 것은 송경에 자리 잡고 있던 조정이다. 지레 겁을 먹은 여러 신하 중엔 피해를 덜 입게 하자는 구실로 항복하기를 의론하였지만 강감찬은 홀로 이에 강경히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임금 앞에 자기 생각을 증언해 보았다.

“적의 진격으로 송경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휩쓸려 들었다한들 어찌 우리가 살기를 피하여 항복의 치욕을 천추에 남길 수 있겠습니까. 잠시 적의 날카로운 칼끝을 피하였다가 서서히 부흥을 도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온 줄 아옵니다.”

여러 중신들 중 강감찬만이 이런 주장을 들고 나서는 것이었다.

한때 항복을 주장하던 중신들도 다시는 그것을 말하지 못하였다.

강감찬은 우선 왕을 설득하여 남행할 것을 권했다. 현종은 그의 주장을 옳게 여겨 그 해 12월에 송도를 떠나 나주 땅으로 옮겨갔던 것이다.

고려의 서울로 부귀의 극을 이루었고 또한 방비를 자랑하던 송경도 왕가 일족과 권문의 군신들이 모두 왕의 행행(行幸)을 따라 피난하게 되자, 무방비 상태의 송경은 거란군의 침입으로 삼시간에 폐허나 다름없이 되고 말았다.

송경으로 침입한 적군은 방화와 약탈과 포학을 자행하였지만 강감찬의 수하인 양규(楊規)의 저항에 이겨내지 못하여 얼마 있지 않아 헛되이 물러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듯 난리가 자연 평정되자 남행 하였던 왕은, 강감찬의 제안으로 나라의 치욕을 면할 수 있었다 하여 그의 공을 위로하는 한편 그에게 서경유수 내사시랑의 서북 방면의 요직을 주어 거란에 대비하도록 했다.

처음에 문관으로 출사하였던 강감찬이 이렇게 해서 무신으로서의 길을 내디디게 되었다.

거란은 어디까지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압록강 동안인 우리 땅 육진(肅珍, 선천, 용천, 철산, 관산, 귀성)을 요구해 왔다. 물론 우리가 그에 호락호락하게 응할 까닭은 없었다. 이것을 트집으로 거란은 다시 10만 대군으로 재침입을 도모하여 왔던 것이다.

이때 현종은 강감찬을 상원수(上元帥)로 삼고 이를 막게 했다.

왕명을 받은 강감찬은 군사를 모아 안주를 중심으로 주둔케 하고 기병 12,000을 뽑아 산골짜기에 매복하도록 하는 한편 긴 새끼줄로 쇠가죽을 꿰어서 성동 땅에 흐르는 큰 강물을 막아 놓고 적을 기다리게 하였다.

강감찬의 군령은 극히 엄하였다. 항상 나라의 영예를 내거는 그의 충의심이 어린 영에, 이제는 그 추하고 초라한 외모를 웃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담대하고 강직함에 탄복할 뿐이었다.

이때 고려를 침입하기에 익숙해진 거란군은 이러한 강감찬의 계략을 모르는 바라 밤의 어두움을 타서 진격해 왔던 것이다.

적병이 이르자 고각(鼓角)의 소리가 군호를 울려댔다. 이쪽에서는 기다리고만 있던 터라 막아 놓았던 큰 강이 일시에 터져 흐르게 되었다.

놀란 것은 적병이었다. 불의의 물 공세를 받고 그들은 도무지 갈 바를 몰라 허둥지둥하니. 병마의 손실은 삼시간에 막대한 것이었다.

이때 물 공세를 벗어나 도망치는 적병들이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다시 군령을 내려 골짜기에 매복시켰던 군사를 불러내니, 적은 도저히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안주지방 싸움에서 대패한 적은 강감찬의 계략을 이겨내지 못할 것을 깨닫게 되자 회군을 빙자하여 병마의 길을 돌렸던 것이다.

일단 하군 하는 듯이 보이고 서해안 쪽으로 철수했던 거란군은 강감찬의 대군과 접전을 피하여 직접 송경을 향하여 침입하고자 했다.

이 급보를 접한 강감찬은 수하의 부장(副將)을 시켜 이를 추격하도록 하여 대동강 나루터에서 적을 섬멸하게 하였지만 나머지 거란군은 완강히 저항하여 다시 송경에 침입하려 피하였던 것이다.

이때 강감찬은 다시 병마판관(兵馬判官)을 시켜 배도(倍道)에 지키게 하는 한편 자신은 개천(价川) 영변(寧邊) 등에 주둔하여 적의 회군을 기다렸다.

송경을 재침할 수 없음을 깨달은 거란군은 강감찬의 계략대로 철수치 않을 수 없게 되어, 회군할 때, 강감찬은 영변 철웅성에 의지하여 이를 격파하는 한편 도망치는 대군을 귀주까지 추격하여 목을 지키고 있었다.

거란병의 대부대가 귀주를 통과할 때 강감찬은 비바람을 무릅쓰고 군사를 돌려해서 크게 적을 무찌르고 다시 추격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귀주 일대의 들과 산은 적의 시체와 병기 군마의 잔해로 뒤덮여 이를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압록강을 넘어 파죽지세로 침입해 들어왔던 거란군은 이 귀주 싸움에서 수천 명을 헤아릴 정도의 생환자를 보았을 뿐이로 10만 대군이 모조리 강감찬의 깃발 아래 목숨을 잃고 굴복했던 것이다.



해를 두고 고려의 육진을 소란케 하던 거란군의 침입은 결국 수많은 병장과 마타를 노획할 수 있는 대승을 고려에 가져오게 했을 뿐이다.

다음해 2월 강감찬이 삼군을 거느리고 개설했을 때 현종은 친히 영파역까지 나가 그를 영접했다. 상원수 강감찬을 맞는 행길엔 비단으로 단장되었고 배풀어진 연석엔 흥겨운 사죽의 소리가 그칠 줄 없었다. 이때 강감찬은 삼군을 군령으로 지휘하는 한편 어전으로 나아가 군례(軍禮)로서 왕을 대하였다. 이때 왕은 이 개설했던 군의 머리에 금화팔지(金花八枝)를 꽂아주며 그의 노고를 위로했다. “공이 시석(矢石) 속에 목숨을 던지고 적을 물리쳐 나라의 치욕을 씻게 하였으니 그대의 이름은 후세에 길이 빛나리라”

이때 강감찬은 개설했던 오기찬 빛도 나타내지 않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아뢰었다. “오랑캐의 침입을 막아 민심을 편안케 할 수 있음은 오로지 위로 받으신 성은에 보답하고자 할뿐 어찌 소신의 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추하고 못생긴 강감찬의 얼굴이었지만 이때만큼은 어느 누구도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경건한 표정이었다.

어전에 둘러서있는 만조백관은 물론, 군졸의 한 사람의 이르기까지도 오늘의 그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현종의 그에 대한 위로는 그것으로 그칠 줄 없었다. 왕은 잔 가득 술을 부어 왼손으론 그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론 잔을 들어 그에게 권하였다.

강감찬도 왕의 이러한 감격된 위로엔 끝내 고개를 숙여 감격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다. 영파역에서 배풀어진 잔치에선 위로는 국왕으로부터 군졸에 이르기 까지 술과 고기로 배불리 먹으며 맑은 음률에 해 지는 줄도 모르고 지냈다.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갈 무렵 왕은 오늘의 개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영파라고 불리던 역명을 흥의(興義)라고 이름을 고치게 했다. 그리고 그 역에 종사하는 미관(微官)인 역리(驛吏)까지에도 특전을 내리게 하여 대우를 한층 더 높이기도 했다.

이렇듯 나라와 조정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터를 뛰어다니며 수십만의 거란군을 막아내고 추격하던 강감찬도 인생의 늙음을 막을 길이 없었다.

어느 날 입시한 그는 표(表)를 올려 청을 드렸다.

몸과 마음이 이미 늙었으니 벼슬자리를 후진에게 물려주고, 하야할 것을 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왕은 이를 윤택하지 않고, 그를 아끼는 마음에서 지팡이를 내리게 하는 한편 삼일일조(三日一朝)를 명하기에 이르렀다. 삼일일조란 사흘에 한 번씩 조정에 참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일로도 왕이 얼마나 강감찬을 아끼는가를 알 수 있다.

현종의 뒤를 이어 덕종이 즉위하자 그는 나라의 중신이라 하여 특히 강감찬에게 식읍 1천 호에 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강감찬도 84세를 일기로 빛나는 일생을 마치게 되었다.

조정에선 그에게 인헌(仁憲)이란 시호를 내리게 하는 한편 현종 묘정에 배향케 하였으며 제11대 문종 때에 이르러선 다시 수태사 겸 중서령이라는 직을 내리게 하였던 것이다.

그는 비록 몸집은 작고 외모는 보잘것없을 정도로 초라하였지만 조정에서 그 일을 세울 때는 의연한 몸가짐으로 나라 주석이 되었던 것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품이 청렴하였다. 항상 산업에 마음을 쓰는 한편 또 나라에서받은 바 있는 토지를 다시 나라에 바쳐 이를 군호(軍戶)에 배급하여 승정의 방비는 물론 국방에 힘써 군위(軍威)를 빛나게 하였다.

조정을 물러난 후엔 성남(城南) 조그만 별당으로 돌아가 야학(野鶴)을 벗하는 한편 저술에도 뜻을 두었다. 「낙도교거집(樂道郊居集)」과 「구선집(求善集)」이라는 책을 저술하였지만 오늘에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애석한 일이다. 후세 사람들이 그를 가세(姜太師)라 부름은 그가 나아가서는 용맹한 장군이요 들어와서는 슬기로운 재상 즉 출장입상(出將入相)으로서 오직 봉공정신으로 평생을 보냈던 까닭이다.

(필자(筆者) 고려대학(高麗大學) 조교수(助敎授))

약(藥)이 되는 말

★대원군과 심복

대원군이 평생에 가장 좋아하고 신임했던 한 심복이 일단 대원군이 실각하자 자취를 막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대원군은 분하고 괴씸하기 짝이 없어 “이놈 어디 보자”고 버르고 있었다.

그러다가 대원군이 다시 득세를 하게 되자 그 심복이 홀연히 대원군을 찾아왔다. 대원군은 속으로 저 놈을 무슨 죄로 몰던지 해서 죽여 버리기로 작정하였다.

“이놈! 네 어째서 또 나를 찾아오는 거냐?”

“그 전 같이 모시려고 왔습니다.”

“모시다니! 이놈 너 그 동안 한 일을 생각하면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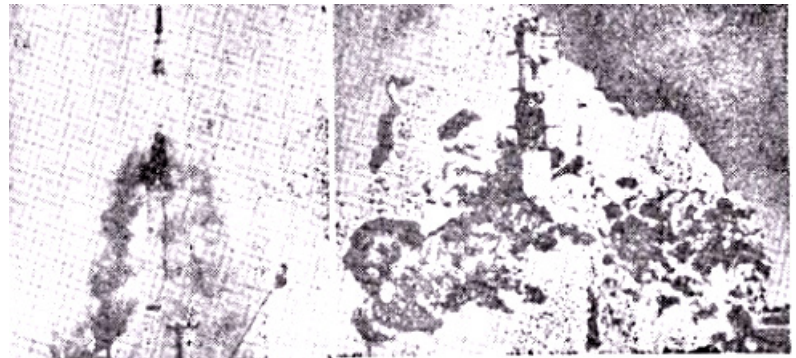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그 사람은 깜짝 놀라는 시늉을 했다.

“그래 이놈 너 그동안에 나를 한번이나 찾아 온 일이 있느냐?”

“야! 그 말씀이십니까? 그때는 대감께서 시장을 보시지 않았으니까 제가 찾아 뵈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은 대감께서 또 시장 보시기 시작하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찾아 뵈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다 장꾼이올시다. 장꾼은 어느 때나 항상 장을 보는 데만 찾아다니는 것이올시다. 만일에 지금이라도 또 대감께서 시장을 건어 치워버리신다면 저는 또 보자기를 싸 들고 시장 보는 곳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바로 대원군에게 조야(朝野)의 인심을 암시한 큰 지침이 되었다. 대원군은 크게 감탄하고 그를 다시 더 가까운 심복으로 삼았다고 한다.



미사일의 역사(歷史) ⑤

-ICBM의 위력(威力)-

ICBM이 액체 로켓에서 고체 로켓 중심으로 이행하는 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로 되어 있다. ICBM이라는 무기의 가장 큰 특징은 8,000킬로미터를 비행하는 데 불과 20-30분밖에 안 걸리는 것인데 만약 발사준비에 오랜 시간을 잡아먹는다고 하면 전술(前術)한 바와 같은 고속이라는 장점도 그다지 뜻이 없어진다.

현재 그린란드와 알래스카에 건설되고 또한 스코틀랜드에도 예정되고 있는 BMEWS (탄도미사일조기경보망)이라는 정보조직이 적국이 발사한 ICBM 비래(飛來)를 캐치한다고 하면 그때서부터 아방(我方)의 목표지점 상공까지는 약 15분의 여유밖에는 없는 것이다. 오늘날 ICBM의 정밀도는 일발로서 상대방의 ICBM 지하 발사 기지를 완전히 파괴시킬 만큼 향상되었기 때문에 BMEWS가 탐지하고서 15분 이내에 아방기지에서 ICBM이 발사되지 않는다면 발사도 해보지 못하고 ICBM기지가 무참하게 파괴되어버릴지 모를 일이다.

액체 로켓의 ICBM일 경우에는 15분 이내에 발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액체산소를 그때서부터 집어 넣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는 곤란하기 때문에 삼기일조(三基一組)의 ICBM 가운데 일기만은 언제나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삼기를 운반체로 정비해 가는 것이 계획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골치 아픈 일이며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고체 로켓 ICBM의 요구가 이런 데서 출발한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액체 로켓의 장점은 첫째로 연소의 제어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연소를 장시간 끌 수 있다는 것이며 재시동도 가능하다. 그러나 치명적 결함은 정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며 구조나 취급에 있어서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체 로켓은 그와 반대다. 취급은 간단하고 정비하는데도 그렇게 손이 가지 않으나 연소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발사가 곤란하다. 고체 로켓은 그날의 온도나 습도로 연소 속도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래도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서서히 이 같은 결점이 극복되어 정확한 초속을 얻는 방법도 고안되었고 장시간 연소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기술은 순환(循環)한다

초기의 로켓은 거의 모두가 고체 로켓이었다. 즉 중국의 화전(火箭)부터 그러하였다. 그러던 것이 고다드라던가 최근에는 폰 브라운이 액체 로켓의 실용의 길을 개척하였다. 특히 V2호는 장거리(당시의) 탄도미사일을 액체 로켓으로 실현한 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때까지는 의문시되어 왔던 액체 로켓의 실용성을 이것으로 실증한 것이다.

그 당시부터 제2차 세계대전 후 15년 경까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액체 로켓 만능시대가 찾아왔다. 장거리 미사일에는 액체 로켓만이 쓰여 진다고 오랫동안 생각되어 왔던 것인데 이것이 다시 역전하여 고체 로켓을 다시 보게 될 시대가 찾아 왔다. 이리하여 속속 고체 로켓의 전략탄도미사일이 생겨나게 되자 아무래도 고체 로켓 쪽이 병기로서는 본격적인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게 되었다. 이 지론은 과연 적중한 것으로서 고체 로켓이 덩치도 작고 값도 싸게 먹혀 예를 들면 ICBM 미니트맨은 아틀라스에 비해서 10분의 가격 밖에는 안 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 로켓은 고체 로켓으로 자꾸만 교체되게 되었다. 예컨대 근거리 탄도유도탄 코프럴은 고체 로켓인 서젯트로 교체되었다.

중거리 탄도탄 레드 스톤은 거의 같은 사정(射程)의 고체 로켓인 퍼싱으로 바뀌고 있다. IRBM에서는 액체 로켓인 쏘어나 주퍼터는 벌써 생산이 중지되었으며 고체 로켓인 돌라리스만을 생산하고 있다. ICBM에 있어서도 아틀라스나 타이탄보다도 미니트맨 쪽에 기대가 커서 케네디 대통령의 금년 국방예산특별보고서에서도 타이탄 2개 대대를 줄이고 그 대신 미니트맨의 수를 약간 증가시키고 또한 폴라리스 잠수함을 23척으로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1척의 잠수함에는 16발의 폴라리스가 불기 때문에 폴라리스만 도 464발이나 갖추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아틀라스와 타이탄은 합계 250발 정도,미니트맨은 합계 700발 가량 생산계획이 서있어 금후 고체 로켓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현재에 있어서는 고체 로켓은 액체 로켓만큼 연소시간을 길게 끌 수 없기 때문에 IRBM이나 ICBM이나 고체 로켓 쪽이 다단식으로 되어있다. 주퍼터나 쏘어는 1단인데 비해서 폴라리스는 2단이며 아틀라스가 1단 반, 타이탄이 2단로켓인데. 비해서 미니트맨은 3단 로켓이다.

원래 병기로서 ICBM을 사용할 경우에 모두가 정확한 조준으로 발사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오히려 대량 무차별하게 적국 상공에서 폭발하는 편이 효과가 클지 모른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확보한 후에는 고체 로켓 쪽이 편리하다는 것은 당연한 이론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로켓이 전부 고체 로켓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액체 로켓에는 액체 로켓으로서의 좋은 점이 있다. 예컨대 금성 로켓과 같이 정확성이 최대한으로 요구될 경우에는 액체 로켓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액체 로켓에 있어서는 저장 가능(Storeable)한 연료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로 보아서 비추력에 있어서는 액체 로켓 쪽이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도 액체 로켓의 유리한 점이다. 로켓 안에 저장 가능한 연료라면 취급도 간단해지고 정비에도 번거롭지 않을 것이니 액체 로켓의 결점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기술은 순환하면서 발전하는 것이다. 고체 로켓 위주로 이행되는 현재의 방향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경향이 장래에 있어서도 변함없는 방향이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고 보겠다.

원수폭(原水爆)의 위력(威力)

전술한 바와 같은 숫자로 장거리전략탄도미사일의 수를 합계한다면 미국은 1965년경에 약 1,400발이 갖추어질 것이니 이런 점에서 볼 때 미국이 소련보다 우세함을 입증할 수 있다.

한때의 여론이었던 미사일 갭 논쟁은 1967년 4월 4일 소련이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이래 미국 의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의 담당자들이

속담춘추(俗談春秋)

고객자(孤客子)



세상에는 터무니 없는 거짓말은 없다고 해서

13. 아니 뎌 굴뚝에 연기(煙氣) 날까

하는 속담이 있지마는 공산주의가 생겨나고부터는 이 속담도 어쩌면 생명을 잃은 것 같다. 6·25 동란은 북괴가 계획적이고 또 노골적으로 한국을 야습하다시피 침공했음에도 대한민국이 먼저 38선을 밀고 북상했다고 떠들어 댔다. 공산세계에서는 이쯤 되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은 다반사이지만 엄연한 사실도 모두 제멋대로 뜯어고치기 일수 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아니 뎌 굴뚝에 연기가 나는 것이 당연한 노릇인데,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역사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위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베를린을 위시해서 요즘 세계의 도처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세

운 굴뚝에서 솟아나는 연료 없는 연기로서 세상이 자못 소란스럽다. 방금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반공운동이란 다름 아닌 이 때지 않고 연기를 뿜는 굴뚝을 분쇄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운동은 꾸준하고 끈덕져야겠다. 그들의 적화공작은 어지간히 끈덕져서 그들은 평화공존이라는 새로운 굴뚝을 세워서 나팔을 불어대지만 실은 평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궁극의 야망인 세계적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전쟁상태라고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반공운동도 그들이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출 때까지 꾸준하게 그들 이상으로 끈덕져야겠다. 어느 편이 더 꾸준하고 끈덕지냐 하는 싸움이다. 우리속담에

14.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

는 말을 따라 우리는 그들이 넘어질 때까지 반공운동을 멈춰서는 아니 되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목적했던

미사일 갭은 이미 해소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미사일의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도(精度)의 향상과 신뢰성의 향상 그리고 어느 일정한 한도 이상의 수의 미사일 정비의 세 가지가 충족되면 되는 것인데 전호(前號)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정도의 점에 있어서는 ICBM에 필요한 정도는 이미 달성되었으며 지구적 규모에서 생각하는 한은 정도를 이 이상 향상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신뢰성이라는 점에서는 신뢰성이 100%로 되는 것이 최종의 목표인데 병기로서 생각하는 한 어느 퍼센트 이상이면 실용상 지장이 없다. 가령 아틀라스의 발사를 보거나 폴라리스의 발사를 보더라도 그 신뢰성은 수년전에 비교해 볼 때 비약적으로 향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병기로서의 실용성은 거의 만족할만한 정도가 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일정량의 수를 갖추는 것인데 1965년경까지는 1,400발이 정비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참고가 되는 것은 1959년 5월에 미국 의회에서 행해진 소위 수폭전쟁 공청회라 할 것이다. 이 공청회에서는 어느 가상일에 미국에 263발의 수폭이 투하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수폭이 큰 것은 10메가톤에서 적은 것은 1메가톤까지 있으며 그 총계는 1,400메가톤이다. 그리고 미국 내 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지구의 미국 전진기지에도 폭탄이 투하되어,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보복폭격이 감행되어서 합계 4,000메가톤의 수폭이 하루 사이에 지구상공에서 폭발하였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진행시켰다. 이때 산출된 가옥 파괴나 사상자 숫자에 관한 증언을 예거하면 다음과 같다.

주목해 줄 것은 1,180만호의 가옥이 대파되어 쓰지 못하게 되는 사실이다. 또한 810만호는 반파 정도의 손해를 입어 대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150만호는 그대로 살면서 수리할 정도의 손해를 입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폭풍(爆風) 피해를 입은 구역 외에서도 약 50만호는 1시간 후에 매시 3,000렌트겐 이상의 오염을 받아 수년간은 살 수 없게 되며 그 밖에도 작고 얇은 방사선 때문에 210만호가 1년가량, 1,040만호가 2개월, 1,170만호가 2주일동안 살 수 없게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합계 4,000만호 이상이 크거나 적거나 그 어떠한 피해를 입어서 어느 기간 동안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4,000만호라고 하면 미국 전 주택 수가 된다. 불과 263발의 수폭으로 전 주거의 반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다.

사상자수로 말하면 2,300만 명이 그날 중으로 죽고 2,580만 명이 중상을 입은 다음 죽고, 또한 2,000만 명의 부상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그렇다면 미국 총인구 1억 7,100만 가운데 약 40%가 사상하는 셈이다. 실제로는 잔존하는 오랜 수명의 방사능 영향으로, 보다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며 그밖에 상수도 같은데

바를 중도반단(中途半端)에서 그만 집어치우듯이 범부(凡夫)는 하나의 나무를 열 번까지 찍지 않고 도끼를 팽개쳐 버린다. 이것이 사람의 약점이라까. 대성한 인물들이란 다름 아닌 하나의 나무를 베는데 천신만고를 끝까지 극복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러한 인물들은 역사상 헤아릴 수 없을 만치 많지만 그 한 사람 한사람은 제마다 제가 목적인 교목을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 찍고 찍고 또 찍고 해서 그 위업과 명성을 후세에 남긴 사람들일 것이다. 어찌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낼까 보냐? 젊음의 힘과 정숙을 꾸준히 끈덕지게 어떠한 난관이나 고생이라도 이를 받아들이л 늠름한 기개를 가질 일이다. 그래서

15. 젊을 때 고생(苦生)은 사서도 한다

는 속담에의 권위가 발견된다. ‘간난(艱難)이 그대를 옥으로 만든다라는 독일의 속담은 간난을 극복하는 그들의 민족성을 표현한 것이지만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우리 속담의 뜻에는 근면정신과 인간도야 정신이 함께 들어 있다. 요리조리 잔피를 부려 일을 회피하는 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슬픈 일이요 그는 적어도 두 가지의 커다란 손실을 보는 것이라라. 일을 안했다는 손실이요 귀중한 인생도야를 모른다는 손실이다.

16. 범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는데 후세에 유명을 남기지는 못할망정 악명을 남겨서는 안 될 일이 아니겠는가? 파스칼이 말하기를 “후회 없는 생활이 성인의 자세이다.”라고 했지만 범인(凡人)으로서 그까지는 바랄 수 없다하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성의만은 다 하는 생활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후회는 앞서지 않는다.”라는 격언도 있지마는 인력을 다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성의를 다한 사람에게는 후회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이웃집에서 빌린 닭 한 마리를 갚아달라는 유언은 너무나 유명한 얘기지만 세상에는 죽어서까지 남의 신세를 입는 예가 많다. 오명이나 악명을 남기고 그렇지 않으면 빛이나 잔뜩 남기고 죽는 사람도 적지 않으니 죽어서 값비싼 가죽을 남기는 호랑이 보다 낫다할 바 없지 않겠는가. 한때 우리 사회에 무슨 산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가진 인사가 있었지만 그는 하야하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가족?만을 남기는 위인이었다. 껍이나 유감된 일이다.

17. 벼 이삭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는데 그러나 대개의 위인은 익을수록 고개를 쳐드는가하면 호가호위(狐假虎威) 격으로 폭위(暴威)를 떨치니 실은 호랑이가 아니고 여우였는지도 모른다. 옳게 익지 않고 설익은 과일은 쓰다. 옳게 익은 과일이 어딘가 단 맛을 풍기듯이 참 익은 사람은 어딘가 원만함이 풍겨지고 진짜 호랑이는 그 위세를 함부로 부리지 않는다. ‘권세는 3년을 가지 못하고 위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權不三年 勢不十年]’의

들어 있는 방사성 물질 때문에 수명이 줄어드는 사람도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나 어떻게든 치명적으로 큰 피해가 전 세계에는 4,000메가톤으로 미국은 263발인 1,400메가톤이라는 수폭공격으로 재래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술한 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의 수는 1,400발이니 이것은 263발의 5배 이상이다. 그렇다면 지구적 규모에서 생각하는 한 이미 12분의 량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유한역제 전략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쟁의 억제력으로서 어느 정도 수량의 장거리전략미사일을 준비하면 될 것이냐는 이론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주로 적국의 ICBM같은 발사 기지를 전부 파괴하자면 어느 정도 수량의 전략미사일이 소요되는가를 고려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인류가 모두 멸망한 다음에 ICBM의 지상발사기지만이 남는다는 상태는 이야말로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과 멸망을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편이 실제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미 미사일은 수량 상으로도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소련이 미사일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수량의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

노벨상을 탄 미국의 화학자 라이나스 포링은 지난 4월 15일 스텐포드 대학 공개토론회 석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국은 현재 12만 5천발의 원·수폭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에는 TNT의 통상 화약 약 6만 톤에 상당하는 적은 것에서부터 20메가톤(2,000만 톤)내지 그 이상 거대한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것은 소련 전토를 초토화하는데 필요한 양의 16배에 해당한다. 소련의 보유량은 이것의 약 반 정도라고 보는데 미국을 파괴하는 데는 충분한 양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공포의 균형을 중식시키고 전 세계를 절멸에서 구하는 유일의 길은 군비전제 이외는 달리 생각 할 수 없다.”

포링 박사는 공개 자료에 기초를 둔 추정이라고 하면서 이 같은 숫자를 열거하였다.

원폭은 1945년에 미국이 최초로 실현하였다. 소련은 그로부터 4년 늦게 실현하였다. 수폭에 있어서는 소련이 빨랐다고 하나 오늘날 포링 박사의 추정과 같이 아마도 미국의 원·수폭 보유량이 소련의 2배 이상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2배 이상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숫자이다. 왜냐하면 소련을 16회나 초토화할 수 있는 양을 미국이 보유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서 원·수폭도 이 이상은 몇 개를 더 만 들어도 무의미한 것이라는 한도가 있다. 지구의 크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지구의 전 표면을 인류가 살 수 없을 정도로 오염시키는 데는 어느 수량만의 원·수폭으로 족한 것이다. 그 한도를 상당히 초과한 양을 오늘날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원·수폭을 운반하는 수단으로서의 미사일에도 필요 양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앞에서 여러 가지로 예시한 숫자

권력과 세도의 섭리를 호가호위하는 위인들에게는 알 길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18. 반풍수(半風水) 집안 망친다

는 속담이 생겨났는지도 모른다. 모르면 아주 모르는 편이 훨씬 낫다.

옳게 모르는 자일수록 자신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르쳐 반풍수라는 뜻인데 정말 반풍수족은 처지에 곤란한 위인들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뛰어난 풍수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우리사회에는 이 같은 반풍수 위인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집안 망치기는 고사하고 5천년 이어온 나라를 망칠 뻔했던 것이다. 그러나 명풍수란 그리 흔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명산승지는 가는 곳마다 있지마는 이를 발견하는 명풍수가 드문 것이요, 대개는 반풍수들이 여기가 명산이다 저기가 맥지(脈地)다 하는 바람에 돈 있는 명문가들이 묘지를 이리 저리 이장하여 땅인을 육보이고 가재마저 탕진하는 것이다. 그러니 식자우환(識字憂患)은 반풍수의 사촌격인 것 같다. 설익은 지식이 우환이요 참지식은 약이 된다.

5·16혁명 직전의 우리 사회가 남북협상이니 중립이니 하여 매우 어지러웠던 것은 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고 반풍수들이 날뛰었기 때문이 아니었던가? 반풍수 일수록 모두가 제 잘난 양 날뛴다. 이사회에서는 통일된 의견이란 있을 수 없다. 중구난방이다.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에서 반풍수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모두가 자기의견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모두가 제 잘난 멋으로만 살고자 하는 사회에는 민주주의가 싹틀 소지가 없다. 제마다 가장 뛰어난 영도자를 자처하고 배를 이끌 여갈 사공으로 생각한다.

19.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는 우리의 속담은 민주주의의 좋은 경고인 것 같다. 민주주의는 많은 선객들이 자기들을 실어다 줄 가장 뛰어난 사공을 다수의 의견으로서 선출하는 것이라면 사공이 몇 사람이 있어서 그 사공끼리 제멋대로 놀아서 배를 산으로 끌어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소련이 유엔이라는 마차에 삼두마(三頭馬)를 달아서 길 아닌 가시밭으로 몰아넣자는 수작과 다를 바 없다. 올바른 민주주의는 올바른 사공의 발견을 가능케 하는 것이요, 발견된 사공은 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노를 저어주는 것이다. 생각하면 자유당의 뱃사공들은 우리를 험악한 파도 속으로 이끌어 갔고 민주당의 뱃사공들은 위험한 폭포 속으로 이끌어 갔다 할 수 있으니 모두가 반풍수적인 뱃사공이었다고나 할까.

민주주의에서 저만 잘난 체 하는 것은 금물이다. 이런 생각 속에서는 협동 정신이란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라는 가옥은 협동정신이라는 주춧돌 위에서만 기둥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20. 백지장도 맞들어야 한다

는 협동정신 없이는 세울 수 없는 집이 민주주의라는 살기 좋은 건물이다.

에서 볼 때 1965년까지는 그 한계의 숫자는 거의 달성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ICBM 대항무기

전술한 바와 같은 점에서 미소의 우주개발경쟁이라는 것이 미사일경쟁에 뒤이은 금일의 문제로 되어온 것인데 우주개발 경쟁에 관해서는 차호에서 논하기로 하고 ICBM 대항무기에 관해서 조금 언급하고자 한다. ICBM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비된다면 ICBM에 대항할 병기에 대한 요구가 전략가들 사이에 자연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역사를 볼 때 대항병기, 혹은 대항수단이 생겨나지 않은 병기는 없었다. 그렇다면 ICBM에도 대항병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러한 대항병기의 첫 번째 것으로 등장한 것이 A·ICBM의 나이키 즈스였다. 미국 육군이 담당해서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는 나이키 즈스는 1957년에 소련이 I CBM을 완성하였을 때쯤부터 시작되어 처음에는 육군과 공군이 경쟁적으로 A·ICBM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육군만이 미사일 본체를 시작하는 것으로서 계획이 일원화되었다.

여기서 같은 나이키라고 하더라도 나이키 애잭스나 나이키 허큐리스와는 아주 틀린다. 나이키 즈스는 1959년 12월 16일 화이트 샌스 시사장에서 최초의 시사에 성공하였다. 그 후 또다시 4발을 시사한 후 가장 실용형이 1960년 4월 28일에 발사되었다.

육군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나이키 즈스의 발사는 다음과 같이 행해진다고 한다.

접근해 오는 ICBM이 레이더에 탐지된 지 2-3초 이내에 나이키 즈스 중대는 자동적 배치에서 미사일이 발사된다. 발사지점의 레이더는 상대방의 ICBM이 시계 내에 들어오면 그것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중대의 계산기는 레이더 조작을 통해서 그 행로를 완전히 추적하고 자동적으로 나이키 즈스를 그것이 날아오는 지점으로 유도한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 방아쇠가 당겨져 침입해 오는 탄두가 파괴된다. 이 침입하는 미사일을 포착해서 파괴하기까지 20분 안에 행해진다. 이 조직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그 신뢰성에 있다. 나이키 즈스는 완전자동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기계의 결함은 제거되고 인간의 반응시간의 지연이라든가 피로 같은 약점도 제거되는 것이다.

그러나 담당자들의 이와 같은 자신있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나이키 즈스의 실용성은 아직도 의문시되고 있다. 음속의 수배나 혹은 10배의 빠른 속도로 강하하는 고속의 ICBM을 나이키 즈스가 과연 잘 포착해서 파괴할 수 있을는지 모를 일이며 ICBM과 나이키 즈스가 공중에서 정면충돌할 만큼 정확하게 유도하리라고는 우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ICBM 근처에서 나이키 즈스를 폭발시켜 상대방의 ICBM 탄두를 무력화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가능성에 관해서 1958년

민주주의란 다른의견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유아독존(唯我獨尊)은 공산주의의 주춧돌이요 기둥이다.

마르크스나 레닌은 공산주의세계에 존재하는 유아독존적인 교주이지만 민주주의세계에는 그러한 교주적인 절대권자란 없는 것이다.

이 협동정신을 아이러닉하게 표현한 우리 속담으로

21. 독불장군(獨不將軍)은 없다

라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 혼자서는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 속담은 ‘초지장(草紙張)도 마주 들어야 한다’는 속담의 뜻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상에는 혼자 힘으로 해내었다고 생각되는 일도 다시 생각해 보면 결코 혼자 힘의 힘이 아니고 몇 사람의 협조나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몇 사람의 협력자를 발견할 수 있다. 정말 아무리 뛰어난 용기와 뛰어난 지략을 가진 장군이라 할지라도 단신, 혼자서는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것이다. 보불전쟁의 저 뛰어난 군략가 몰트케 장군의 전략의 중심이 언제나 각 군단, 각 부대의 협동작전을 멋있게 짜내는데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재상이었던 비스마르크의 회고기 속에 특히 지적되어있다. 고대전이나 현대전에서나 이 원리에는 틀림없는 것이 아닐까.

민주정치도 하나의 협동정치라 할 수 있다.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라는 민주정치의 원리 속에는 국민과 정부가 일심동체가 된다는 협동정신이 기본인 하나가 되어있다고 생각된다. 국민의 협동 없이 민주적 정부는 존립할 수 없다. 민의의 소재를 무시하는 정부는 민주국가에서는 와해되고 만다. 이것은 우리가 4·19나 5·16이 입증하고 있다. 그와 같은 악정이나 무능정치가 길 수 없다는 것은

22. 꼬리가 길면 밟힌다

는 우리 속담이 가르치고 있다, 자유당의 독재꼬리도 너무 길어서 끝내는 4·19에서 밟혔고 민주당의 무능정치도 길어서 5·16에 밟혔다. 이것은 개인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쁜 꼬리는 길기가 쉽고 길다 보니 밟히기가 쉽다. 나쁜 버릇은 길기 전에 냉큼 잘라내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민족성 가운데도 길다란 꼬리들이 많다. 정치에 있어서 종파의식, 파쟁분열 따위의 꼬리는 그동안 입진왜란으로 왜놈들에게 밟히고 마침내는 왜놈들에게 나라를 먹히기까지도 했었는데 4·19 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 그놈의 꼬리가 다시 꼬리를 흔들어 하마터면 나라를 또 다시 공산주의자들에게 먹힐 뻔했다. 우리가 방금 소리 높이 외치는 국민혁명 새생활운동이란 다름 아닌 이따위 나쁜 꼬리들 잘라 팽개치자는 것이다. 이조의 당파싸움은 정말 자신들을 망쳤을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망쳤던 것이다. 우리 속담에

23. 못되면 조상 탓, 잘되면 내 탓

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러한 탓 잡는 나쁜 버릇의 꼬리도 이 차제에 냉큼 절단수술을 할 일이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남 할 것

7월 31일과 8월 11일에 태평양 상에 있는 존스톤 도에서 고도 60킬로미터와 70킬로미터에서 요격수폭탄두의 효과에 관해서 2발의 실험이 있었으며 이어서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에 걸쳐 남대서양 상공 480킬로미터에서 아가스 실험이라 불리우는 3차의 실험이 있었다.

요격원수폭 탄두에서 생기는 중성자가 상대방의 수폭탄두 안에서 어느 정도의 핵반응을 일으키게 해서 그것에 의한 온도 상승으로 기폭의 메카니즘을 파괴해 버리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경우에 가령 10킬로톤의 원폭탄두를 나이키 즈스에 달았다고 하면 5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폭발 하더라도 상대방의 ICBM 내부를 200도~2,000도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기폭의 기구를 파괴시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 된다.

아무래도 ICBM에 대항하는 오직 하나의 방법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상대방의 ICBM 탄두의 기폭기구를 파괴해서 무력화하는데 있는 것 같다. 여기서 과연 나이키 즈스가 그것에 적당한 병기인지 아닌지는 의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디펜더 계획이라는 명칭 밑에 ICBM 방어의 각종 가능성을 찾는 광범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디펜더 계획은 레이더, 저지, 식별 같은 7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 살인광선식 고안이라든가 탄두가 통과할 수 없을만한 거대한 자기적 차폐라든가, 진입하는 ICBM의 진로를 바꾸는 반 중력식 같은 꿈과도 같은 연구계획에까지 들어가고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국방예산특별교서에서 이 디펜더 계획 촉진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어병기는 공격용 ICBM 보다는 방대한 예산이 소요됨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나이키 즈스 계획에도 각지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년간에 60억불이나 비용이 든다고 한다. 디펜더 계획에 있어서도 실험실적 기초연구단계에서 20억불 이상이 이미 지출되고 있다. 이것이 실용화되었다 하더라도 비용에 있어서 국민의 부담이 클 것은 사실이다.<계속>

없이 잘 되면 그 공을 독차지하려는 반면에 못되면 그 책임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려는 나쁜 습성이 없지 않다. 그래서 걸핏하면 현실에 나타난 잘못된 원인을 조상에 탓잡기를 좋아하지마는 알고 보면 조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할아버지가 곧 우리의 조상이요 우리자신도 이미 우리자손의 조상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아비판을 모르고 조상을 탓한다면 그야말로

24. 누어서 침 뱉기

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기 좋게 꼬집는 멋있는 가십이다. 자기가 할 일을 다 못 한 사람이 조상에게 탓잡기를 잘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집안사람의 흠을 제 3자에 이리니저리니 퍼뜨린다. 정부를 참으로 아끼고 나라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돌아 앉아서 정부를 욕질하거나 민족의 나쁜 점을 꼬집기 전에 정부의 잘못을 충고하고 민족의 나쁜 습성을 시정하는 데 자발적으로 행동한다. 방금 전개되고 있는 재건운동도 결국 이러한 민주적 인격을 양성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25. 하기 좋은 남의 말, 하기 싫은 뒷바라지

리는 속담은 민주사회에서는 금물이다. 남의 일에 관여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일에 충실할 것이요 자기의 일에는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는 것 민주주의 사회생활이다.

먹을 때는 남보다 앞장서고 먹고 난 뒤의 바라지는 '내 몰라'하고 꿈무니를 빼는 사람은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에 생활할 자격은 없다.

속담이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한 민족을 단위로 그 민족의 오랜 생활 속에서 우러난 표현이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속담을 심분 음미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 속담만 하더라도 실상 우리는 이해 관계없이 공언히 남의 말, 그것도 남 흠 뜯기를 좋아 하며

26. 제 잘못은 현판(懸板)에 었는다

는 식으로 자기비판이나 자기반성에는 극히 우둔한 면이 없지 않다. 나의 잘못만을 재빨리 현판에 었을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현판에 었기 위하여 서두르기 전에 남의 잘못을 슬쩍 현판에 었어 주는 아량과 도량이 그렇다. 이 같은 아량 었이는 민주주의사회는 성장하지 않는다. 대기(大器)는 일견 우자와 같다는 맹자의 말 씀은 원만한 인격은 결코 남의 약점을 꼬집어 내지 않는다는 것이며 알고도 아는 체 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실로 두려워 할 인물인 것이다. 옹게 모르면서 아는 체하는 사이비(似而非) 측은 이와 같은 대기를 알아보는 식견과 안목을 갖춘 인재가 아니고 보니 '약빠른 고양이 밤눈 어둡다'라는 속담이 생겨난다. 우리는 제 잘못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현판에 었으려 들지 말고 다시 되씹어보자.

반성하는 속에서 인간은 익는다.

약(藥)이 되는말

★머리털과 인구(人口)

몽고는 우리 고려의 국력을 알려고 애썼다. 어느 때 우리 이장용(李藏用) 사신이 몽고에 갔을 때다.

“고려의 호수와 인구가 얼마나 되요?”

하고 몽고의 정승이 물었다.

“잘 모르겠소.”

“당신이 정승이라면서 어찌 자기 나라의 인구를 모른단 말씀이요?”

이 말을 들은 이장용 사신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고는 몽고 정승의 머리를 가르키면서

“허어! 여보 당신의 머리털이 몇 닢이나 되요?”

하고 역습을 했다.

“글세. 그것을 어떻게 다 세나요?”

몽고 정승은 약간 무안스러운 듯이 웃었다.

“당신 머리털 수도 잘 모르시는 분 이 하물며 남의 나라의 인구 수를 어떻게 묻소?”

“.....”

군인(軍人)이 지켜야 할 일곱 가지 생활형(生活型)

김종문(金宗文)

머리말

요즈음에 와서 생활개혁에 관한 여러 가지 시책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과거의 우리 생활은 뭔가 비정상적이며 비합법적인 요소와 형식을 지속해 왔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는 개인적 생활에 있어서나 집단적인 생활에 있어서 과연 정상적이었으며 합법적이었을까. 또한 우리 생활은 건설적이었으며 희망의 좌표를 향하는 생활이었을까.

요즈음에 와서 우리 생활의 요소와 형식이 재검토되어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의 생활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점에 있어서 좋은 계기라고 믿어야 할 것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생활방법이 다르기도 하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다음 일곱 가지의 생활형은 본질적으로 보아서 그런 생활방법과 공통되리라 생각된다.

일곱 가지의 생활형이라는 것은 1. 사고하는 생활형 2. 행동하는 생활형 3. 건강한 생활형 4. 검소한 생활형 5. 시간을 사용하는 생활형 6. 협동하는 생활형 7. 창의하는 생활형이다.

이와 같은 생활형은 거의 상식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흔히 상식을 잃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오히려 건전한 상식을 그대로 그 생활에 적응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느껴 왔다. 이에 일곱 가지의 생활형을 풀이함으로써 독자의 참고에 보탬이 되면 다행이다.

1. 사고(思考)하는 생활형

사람의 생활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사고와 행동 두 가지이다. 만약에 그 사람이 사고에만 치우치는 나머지 행동에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되어버리며 그 반대로 그 사람이 행동에만 치우치는 나머지 사고를 무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활은 어떻게 되어 버릴까.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사고와 행동의 균형이 잡힌 것과 잡히지 않은 것이 그 생활의 건전과 불건전중의 하나를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사고에 있어서 먼저 생각되는 것은 독서와 사색이다. 독서에 있어서는 그 분야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전문적 서적이요. 또 하나는 교양적 서적이다. 전문적 서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공에 필요한 서적으로서 군인에게 있어서는 매뉴얼이며 이를 세분하면 병과별 전문서적을 가리킨다. 교양적 서적이라는 것은 전문적 서적 이외에 취미 수양 예술 문화에 관한 서적 또는 잡지로서 자기 개인의 인격도야 또는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반적 서적을 가리킨다. 그러나 저속하고 통속적인 부류에 속하는 서적 잡지는 엄격한 의미의 교양적 서적이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독서에는 반드시 사색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독서를 하는 경우에 흔히 그 서적에 의존하는 사고방식 즉 그 서적으로 하여금 자기 대신 사고케 하는 독서법은 환영할 수 없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독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견하며 이를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독서의 의의가 있으며 사색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계획 역시 사고에 속할 것이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세운다. 한해의 계획은 설날에 세운다는 말과 같이 이런 사고는 그 행동에 앞서야 한다.

독서도 사색도 계획도 말로는 하기 쉽지만 실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즉 군센 의 지력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루어 질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우리 생활에서 사고가 제거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보다 사고하는 생활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2. 행동(行動)하는 생활형

사고 다음에는 행동이 있다. 이 말은 사고 없는 행동은 있을 수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신체 구조를 보면 그 말이 보다 확실해질 것이다. 사람에게에는 두뇌가 있고 팔다리가 있다. 두뇌는 사고하는 기관이요 팔다리는 행동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두뇌와 팔다리는 제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고에 의해서 행동된다고 할 때 행동은 사고로 환원되면서 새로운 차원을 마련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행동을 통해서 얻는 경험은 다시금 사고에 의해서 비판되며 새로운 행동으로 옮겨간다.

행동은 군인에게 있어서는 실천을 의미한다. 군대는 국가권위에 직결하는 집단으로서 국토와 민족을 수호해야 하는 대의명분 아래서 이를 위한 실천이 있을 뿐이다. 이 실천에는 방식이 요청된다. 즉 실천을 통해서

얻은 경험은 새로운 실천에 필요한 방식을 발견하게 된다. 이는 참모업무 면에 있어서나 전술 면에 있어서 그랬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군대는 실천에 있어서 예민하기 한이 없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나 전투에 있어서 한 사람의 실천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영향은 비단 군대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군대는 보다 그 감도가 예민하다고 볼 수 있다. 조국의 흥망을 건, 전투에서 한 사람의 실천의 부족이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군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특히 군인의 실천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것의 구별이 없다. 오히려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 군대 교육은 형식교육이라는 말이 있는 바와 같이 그는 형식에서 내용으로 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군인의 실천은 사고에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고와 행동 즉 사고와 실천 사이에서 유동하는 공간의 결정이라고나 할까.

3. 건강(健康)한 생활형

서양에는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에 깃든다는 격언이 있다. 이 격언은 이미 상식화 되었지만 이 세상 사람은 때로는 상식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격언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새삼스러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문학자 또는 예술가 중에는 데카당스의 사고방식을 갖고 이를 행동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문제이다. 요즈음 세상은 가짜가 많기 때문에 데카당스 역시 가짜가 많다고 본다. 필자는 한국 내에서 많은 데카당스와 사귀어 왔지만 거의 대부분이 가짜였다는 단정을 내리고 싶을 지경이다. 진짜 데카당스는 참으로 귀여운 존재이다, 그는 낡은 질서로서 포화 상태를 이루고 있는 이 세계에서 숨 쉴 곳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그 사고나 행동은 정상적이 아니며 건강치 못하다고 볼 수도 있다. 환상만이 그의 세계요 생활이다. 이는 특수한 예이며 새로운 질서와 사고와 행동을 모색하는 모습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전한 정신은 건전한 신체에 깃든다'는 격언은 특수한 예를 제외하고는 지당한 말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건강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신체적인 건강법보다는 정신적 건강법에 관해서이다.

요즈음 Recreation이라는 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어로는 무슨 말로 번역해야 할는지 모르겠다. 원어의 발언 그대로 레크리에이션이라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이 말은 신체적인 건강법보다는 정신적인 건강법에 속할 것 같다. 여가를 이용해서 좋은 그림을 보기도 하며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도 하며 기타 시청각을 통한 예술작품의 감상 또는 오락을 취하는 레크리에이션이 얼마나 정신의 건강에 플러스가 되며 나아가서는 신체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가히

=====

미국(美國)의 지하핵실험(地下核實驗)이 의미(意味)하는 것

-국지전쟁론, 탐지가능범위 및 중성자폭탄과 신형핵무기 설에 대해서-

10년간의 인내도 소련이 핵실험을 재개한 이상 미국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론일지도 모른다. 만일 지금 소련이 핵폭탄을 터뜨리다시피 미국도 마구 터뜨린다면 지구상의 대기권은 방사능에 겹겹이 둘러싸여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마침내는 사람이 못 살게 될지도 모른다니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 이상으로 무서운 일이다. 더욱이 핵보유국은 차츰 차츰 늘어날 것이요 전 핵보유국이 아무런 제지 없이 핵실험을 개시한다면 전 인류는 다른 천체(天體)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게 될 것이 아닌가? 따라서 지구를 방사능으로 뒤덮는 핵실험도 자연 한도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지도 않으면 방사능의 오염이 없는 어떤 실험 방법이 강구되지 않을까. 정치적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마는 미국이 소련의 핵 실험재개에 뒤따라 개시하게 된 지하실험이란 첫째로 방사능의 오염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하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규모는 어떠한 것인가?

★지하핵실험이란

원수폭은 폭발과 동시에 대체로 세 가지의 작용을 일으킨다. 맹렬한 폭풍열선 방사선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깊은 땅 속에서 폭발시키면 가장 큰 피해를 가져오는 폭풍을 막을 수 있고 속전, 감마선 중성자 등도 지표에는 나타나지 못 한다는 것이다.

지하 어느 정도의 깊이에서 실험되는가? 이것은 군사비밀로서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원자력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1메가톤의 원폭이 지하 15미터에서 폭발하면 깊이 60미터 직경 약 400미터의 구멍이 생긴다, 전문가들의 계산을 따르면 1메가톤 원폭으로 하여금 전연 피해 없는 지하실험을 하려면 적어도 지하 600미터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핵실험회담이 시작되자 곧 지하폭발에 관한 연구가 거듭 되어 공식적으로 알려지기에는 57년, 네바다에서 일련의 소형핵폭탄의 지하실험이 있었고 58년 9월에서 10월에 걸쳐서도 지하실험이 있었다. 이 사실은 59년 3월 미원자력위원회의 공식발표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동위원회는 그때까지 19회의 지하폭발이 있었음을 밝히면서 그중 TNT 화약으로 환산해서 57톤과 200톤급이 실험되었다고 했다.

상상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하다.

4. 검소(儉素)한 생활형

군인은 원래 검소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주로 미국에 의해서 영향되었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의 군대임으로 그 생활은 화려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한국군은 아직도 경제적인 자립을 차지하지 못한 까닭에 미국 또는 미군의 물질적 원조를 받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군인의 정신요소나 포즈에 이르기까지 본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필자는 유감스럽게도 그런 경향을 띤 군인, 특히 고급 장교 중에서 목격해 왔다,

요즈음 내뿜생활이라는 말이 많이 떠돌고 있다. 거리는 신생활복 일색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제야 우리 생활이 정상화하는 것 같다. 아직도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한국 국민이 분에 지나친 낭비와 사치를 일삼아왔다는 것을 일종의 악몽이라 여기면 그만이다. 이런 경향을 띤 사람은 군인 국민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의 몰지각한 족속이었을 것이다. 이 소수의 족속의 경향을 그 수를 따져서 그저 간과하면 그만이었지만 이들이 일반에게 끼치는 영향이나 풍조를 생각할 때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다.

군대는 일반 국민의 내뿜생활 즉 검소한 생활의 기준이라야 하며 동시에 그 정신의 원천이라야 할 것이다.

5. 시간(時間)을 사용(使用)하는 생활형

서양의 격언에 Time is money라는 말이 있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시간과는 관련 없는 생활을 해왔다고 말한들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Korean time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원인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자연인이라면 시간관념을 안 가져도 살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문명의 발달에 따라 직책이나 임무가 극도로 분화된 현대에 있어서는 시간관념을 못 가지거나 안 가지는 사람은 딴 사람에게서 상대될 수 없으며 사회에서 살아 나갈 자격을 못 가진 사람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군대에 있어서는 1초를 다투게 된다. 전투시에 1초의 차로 인해서 전국이 좌우되는 일이 있었다는 여러 가지의 사실을 독자 중에는 직접

=====

★ 시설(施設)과 규모(規模)는?

미국은 핵폭탄의 지하실험을 위하여 네바다 일대에 거대한 터널을 개미집처럼 만들어 두고 있다. 지난번 케네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실시된 지하실험도 여기서 실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또 외지의 보도에 의하면 소형 12발이 실험되었다고 한다. 물론 지하실험이 비교적 소형이며 그 규모는 알 길이 없으나 아마도 대형폭탄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하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 근거로서는 전기 미원자력위원회의 발표가 폭발력 5키로톤에서 23키로톤을 실험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이 소형폭탄을 지하실험하는 데는 이유가 없지 않다고 보는 설로서 다음과 같은 관측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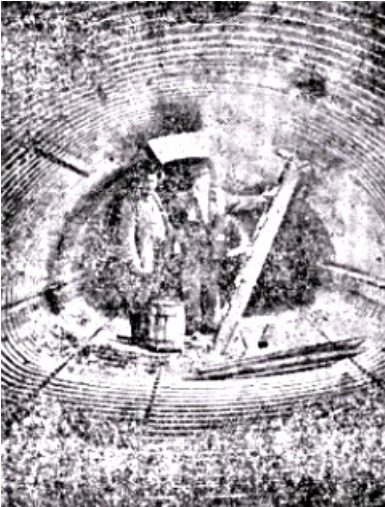
★ 국지전쟁(局地戰爭)에의 대비책

원수폭의 위력이 강대해지자 미국군부와 원자력위원회에서는 국지전쟁론이 대두했던 것이다. 즉 전 인류를 멸망시킬 대형 원수폭은 실제에 있어서 사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앞으로의 전쟁은 국지전쟁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니 원폭도 국지전쟁에 알맞은 소형이 실용적이라는 이론이 그것이다. 아마도 이 새로운 전쟁론에 입각해서 소형원폭의 연구가 추진된 것이고 지하실험에는 소형이 또 한 알맞은 것이라는 관측이 그것이다. 사실 전면전쟁이 전 인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대형 원수폭은 정치적 의미는 가질지 모르나 실용적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데 미국이 소형 원폭실험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의 또 하나로서는 이른바 실내실험이라는 중성자 폭탄설과도 관계가 없지 않다.

★ 중성자폭탄(中性子爆彈)이 무엇인가?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에서는 중성자폭탄의 개발설이 있었다, 이 폭탄은 지상전투의 원호용으로로서 건축물 등 지상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또 원수폭처럼 폭풍이나 열선은 없으면서 순전히 방사선으로서 병원을 살상하는 하나의 방사병기다. 폭풍이나 열선이 없다는 것으로 일명 '부드러운 수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이 중성자폭탄의 성능은 다량의 핵융합반응을 일으켜 중성자를 조출한다. 부피는 알 수 없으나 아마 상당히 두꺼운 콘크리트를 둘러싸도 생명을 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성자탄은 표준형으로 반경 1.6키로 내에 있는 병원(兵員)은 전멸한다고 한다.



↑ 미국 네바다에 있는 지하핵실험장으로 통하는 터널

체험한 이도 있으며 또는 전사(戰史)를 통해서 아는 이도 있을 것이다.
군대생활이나 사회생활은 시간과 시간의 조립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틀림 없을 것이다.
시간을 흔히 막연한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일반적 상식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간이 물질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 역시 물질이다.
태업에는 재료로서의 물질이 필요한 것처럼 재료로서의 시간도 역시 필요하다. 재료로서 무엇인가를 제작한다고 할 때 재료로서의 시간으로서 무엇인가를 제작한다는 관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돈을 쓰는 것처럼 시간을 써야 한다. 즉 시간에 의해서 사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은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이 필요하다. 즉 스케줄이라고나 할까.
시간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닐 수 없으며 이는 이 사회에서 살아 나갈 자질을 못 가진 사람이 아닐 수 없다고 해서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6. 협동(協同)하는 생활형

우리 민족은 비협동적이라는 경향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다. 또는 개인적으로는 우수하지만 집단적으로는 열등하다는 말도 흔히 들어 왔다. 이런 경향이 사실이라면 우리 민족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의 생활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개인적 생활이요, 또 하나는 사회적 생활이다. 우리는 자연인이 아닌 바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과 같이 모두가 사회의 성원(成員)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개인이면서도 개인이 아닌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난날에는 현실을 도피하는 시인들 또는 예술가들이 있었다. 그런 경향은 시인들 또는 예술가들이 처해있는 현실사회에 대해서 품는 불만과 아울러 개인을 존중하는 즉 개인의 창작을 절대시하는 데서 오는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런 행동은 그때에는 도피였겠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런 경향은 도피로서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아무리 개인의 창작이라 하더라도 작품으로서 세상에 내놓는 바에는 그는 사회와 유형적이건 무형적이건 간에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현대의 시인 또는 예술가치고 현실 사회에서 도피하려는 사람은 없으며 그런 생각조차 안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인간은 자연의 형태로부터 탈피되면서 문명인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대에 있어서는 일반 현실사회 보다 더 협동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Team work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그 군대의 실력여부를 결정하는 Key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전쟁에 있어서의 승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Key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협동은 메커니즘으로서 마치 인체의 조직과 같다. 인체는 수 없는 부분과 부분이 모여 조직화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중성자탄은 기폭에 보통의 화약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일설에는 ‘죽음의 재’는 없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허설이고 오히려 중성자는 공중의 질소에 작용하여 인류의 유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의 탄소14를 만들어내는 대량살상병기로 알려져 있다. 실현은 아직 약간의 시일을 요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성자폭탄이 지하실험과 결부되어 논의된 이유가 중성자탄은 소형이며 소형이기 때문에 실내, 즉 지하 터널 같은 곳에서 실험이 가능하다는데 기인이 있다.

★ 지하실험(地下實驗)은 탐지(探知)가 곤란(困難)

제네바 핵실험중지회의에서 한때 논의의 대상이 된 ‘어느 정도의 폭발력까지가 탐지가능범위냐?’였다. 미소를 비롯한 8개국의 전문가회의는 58년 8월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었던 것이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灰)의 채집, 미기압진동, 지진파, 전자파 등의 기록에 의해서 최소한 폭발력 1-5킬로톤 이하의 것은 탐지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 문제가 논의된 이유는 만약 핵실험중지협정이 체결되었을 경우 위반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밝혀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하폭발은 탐지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천연지진과 혼동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한다. 천연지진은 규모가 아주 작은 것이 아니라면 지구상에서는 어디서든지 예민한 지진계가 잡을 수 있으며 진원까지의 거리 및 방향도 쉽사리 알 수 있는 것이다. 핵 실험은 그 규모가 천연지진에 비해 작고 폭발도 지표에 가까우며 얕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파도 비교적 퍼지지 않고 거기다가 진동의 파형도 천연지진과 흡사하기 때문에 구별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59년 3월 미영 양국은 지하와 대기권 외의 실험은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이른바 부분 중지안을 내었던 것이다. 지하실험과 대기권 외의 폭발은 방사능의 피해가 없다는 것과 지하실험은 탐지가 곤란하니 제외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었다. 이 부분 중지안은 그 해 11월에 지하실험에 관한 전문가회의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 까닭에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 신형원폭(新型原爆) 연구중(研究中)인가?

제네바 핵실험중지회담이 진행 중이던 사이에도 미국에서는 실험을 아주 중지하는 것은 생각할 문제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 그 이유는 핵실험중지회담 중 소련이 과연 실험을 중지하고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며 그보다도 종래의 원·수폭을 신형폭탄으로 개량연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핵실험 중지협정이 성립된다고 해도 하등의 의의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성자탄에 착상하게 된 동기도 이런 점이었을지도 모른다.
미국의 중성자탄연구는 수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진 테라 박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리버모어 방사선연구소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지난 번 미국이 소련의 핵실험제개에 뒤따르는 핵폭발실험 재개성명 가운데에 ‘실내의 실험도 실시한다’는 말이 있다. 실내실험이 과연 무엇을

7. 창의(創意)하는 생활형

인간의 역사는 창의를 역사일 것이다. 창위의 역사는 개인의 창의의 집적(集積)일 것이다. 오히려 개인의 창의가 역사라는 대하(大河)의 창의를 이루어 놓았을 것이다. 창위가 없는 개인, 창위가 없는 집단은 발전할 수 없으며 그 존재의 가치가 없음은 물론이다.
우리 한국인의 생활에는 창의되어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20년 전 것이나 지금 것이나 거의 별다를 것이 없다. 이는 발전도 퇴보도 아닌 말하자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형편이다. 현대의 특징은 모든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할 때 맴도는 자체는 결국 퇴보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변하라는 말은 아니다. 본질이나 특성은 변치 않되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 빛나는 생활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 맺는 말

필자는 지금까지 1. 사고하는 생활형 2. 행동하는 생활형 3. 건강한 생활형 4. 검소한 생활형 5. 시간을 사용하는 생활형 6. 협동하는 생활형 7. 창의하는 생활형에 관해서 언급해 보았지만 독자로 하여금 막연하다는 인상을 주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필자의 의도는 이상과 같은 생활형에 대한 실마리를 푸는데 착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증을 잃은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일곱 가지의 생활형을 요약해본다.
1. 사고하는 생활형은 즉 독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사색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2. 행동하는 생활형은 즉 사고에 의해서 취해지는 행동으로서 이를 통해서 얻는 경험은 다시금 사고에 의해서 비판되며 새로운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3. 건강한 생활형은 즉 신체의 건강법도 필요하지만 레크리에이션이 얼마나 정신의 건강에 플러스가 되며 나아가서는 신체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4. 검소한 생활형은 즉 군대는 시민이나 국민의 내핍생활의 기준을 벌써부터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5. 시간을 사용하는 생활형은 즉 재료로서의 시간으로서 무엇인가를 작업하며 제작한다는 관념이 필요하다. 6. 협동하는 생활형은 즉 인체는 수 없는 부분과 부분이 한데 모여 조직화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다.
7. 창의하는 생활형은 즉 한국인의 생활에는 20년 전의 것이나 지금의 것이나 거의 별다른 것이 없다. 이는 발전도 퇴보도 아닌 것이다. <필자(筆者)·최고회의(最高會議) 기획위문사분과위원(企劃委文社分科委員)>

의미하는가는 밝혀지지 않았고 전기한 바 지하실험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편도 있었지만은 한편으로는 금속 리치움이나 베리치움을 사용하여 중성자를 증식하는 것이라는 데에서 실내실험은 다름 아닌 중성자폭탄일지도 모른다는 설이 있다, 이 중성자탄은 핵 폭탄류로서는 신형이며 수폭이 완성된 지 8년이나 되었으니 원·수폭 이외의 다른 새로운 핵무기가 연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도 무리는 아닌 것 같다. 지난 10월 23일 소련은 전 인류의 호소를 무시하고 기어코 50메가톤 핵폭탄을 북극에서 터뜨리고 말았다. 소련국방상 마리노 프스키는 공산당대회의 연설에서 소련 과학자들은 50메가톤 초핵폭탄을 실험 폭발하므로써 그 위력을 세계에 입증했다고 자랑하였지만은 핵무기는 소련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제 핵무기보유국이 실험할 줄을 몰라서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진대 전 세계 인류의 여론을 도외시키는 공산주의자들의 폭거는 마침내 스스로 과시하는 핵무기에 의해서 스스로 자멸하는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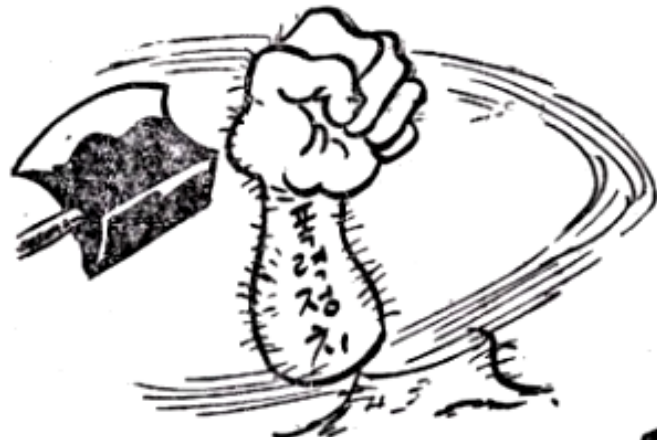
약(藥)이 되는 말

◆청백이대(淸白二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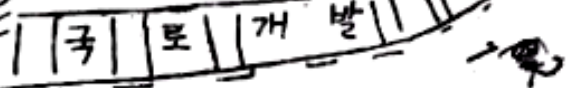
위나라 때(220-265) 호위(胡威)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질(質)과 더불어 부자 2대에 걸쳐 청렴결백한 인물로서 평판이 높았다.
호위가 벼슬에 올라 형주 지사가 되었다. 지사라고 하면 상당한 지위였는데 언제나 가난에 쪼달려 살았다. 어느 때 오래간만에 양친에게 문안차 귀성을 하였는데 그때도 마차도 없을 뿐 아니라 시종도 가느리지도 않고 단신(單身) 노새를 타고 돌아왔다.
며칠이 지나 호위가 귀임하려 할 때 아버지 질이 그에게 한 필의 비단을 내주었다. 그 당시만 해도 비단은 통화와 같은 값어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자 아들 위는 웃으면서 “아버지께서는 옛날부터 청렴결백으로 이름난 어른인데 이 비단은 대체 어디서 마련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이것은 내 봉록의 여분으로 마련한 것이니” “그러십니까? 그러면 잘 받아 쓰겠습니다.” 라고 그는 기꺼이 받아들고 돌아갔다. 그러나 그는 그 비단은 아버지 부하에게 돌려주고 “언제나 아버지가 신세를 많이 지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끝내 자기 것으로는 만들지 않았다.
위의 왕인 무제(武帝)를 만났을 때 무제가 그를 향해 물기를 “너의 부자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청렴하다고 생각하나?” 이와 같은 물음에 위는 한참 생각 한 끝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아버지는 자기의 청렴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하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럼으로 보더라도 아버지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하겠습니다.”



정치 장사꾼들은
모조리 쓸어버리다



빵크를 때워야지





☆하숙(下宿)☆
-이 근처에 하숙이 많다더니 김 서방 녀석
거짓말 했군

☆데모병(病)☆
-화장품 사내라고 데모 안 허우?-



☆일벌백계(一罰百戒)☆
-백이 저 꼴이니 보따리 싸세-



백인수(白寅洙)

☆외래품(外來品)판금(販禁)☆
이젠 백화점 앞에 와도 겁날 게 없다



문화(文化)

김경언(金庚言)



무실적출판사의 정리

반공문화의 강화



임화수 일행 구학문화에 철추

대학 대학의 정비



사이비 기자의 추방

세계신문(世界新聞) 이야기 ②

김기점(金基漸)



이탈리아 편

이탈리아는 반도 본토와 시실리 사르디니아 엘바 등 700이나 되는 섬을 가진 유럽 남부의 공화국으로 31만 189평방간의 면적과 4,5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가까이는 제2차 세계대전 시 일본·독일·이탈리아 동맹국으로서 반연합국 진영에 서서 팻쇼 정치체제를 이루었던 나라이다. 유럽자체가 그러하거나와 이탈리아에 있어서의 실정을 보건대 매스커뮤니케이션이 그리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이렇다 할 독립지로서의 신문을 찾아 보기가 힘들다.

중전 직후 강화조약 체결 이전까지는 팻쇼 이전의 신문이 각각 부활하여 제호를 ‘신○○신문’이라고 하여 이 이전의 신문과 그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무척 표현하려고 애쓴 사실을 볼 수 있다.

팻쇼 시대의 일부 신문도 그러한 것이 있다.

이 후자인 경우는 법률적으로 그 부활이 허용되지 않았음으로 이것과는 달리 ‘신(新)’ 자를 앞에 써서 신문명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하튼 간에 ‘신’ 자는 자의 그대로 ‘신’을 말할 뿐이지 지난날의 독립적 성격을 상실한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다고 하겠으며 어느 것을 보더라도 이탈리아신문을 본다면 정당이나 어느 파벌의 기관지이며 혹은 특정한 산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이탈리아 신간 가운데서 그나마 가장 독립지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밀라노에서 발간되는 코루리에레 데라 세라지이며 이것 역시 종합화학의 몬테카다니의 대변지로서 30만부 전후의 발행부수를 가지고 있는 신문으로서 지방적으로는 일대 유력지로 되어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 두어야 할 것은 전국적인 신문이라는 것이 없으며 대표적인 신문이라고 든다면 항상 이 나라에서는 이러한 지방의 유력지를 들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마의 유력한 신문은 멧사제로 지로써 30만부의 발행부수를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 민주당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그 당의 가장 강력한 대변지로서는 템포지가 있으며 이것은 불과 10만부 전후의 발행수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정당 또는 특정한 기관과의 관련을 맺고 있는 몇몇 신문이 있으나 정당의 기관지로서 뚜렷이 공연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공산당 기관지인 우니타 지와 사회당의 아반티 지 사회민주당의 쥬스티지 이어 지 그리고 파시스트의 MSI(이탈리아의 사회운동)의 세코로 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정당의 기관지라고 하여도 사회 경제 문화 오락 운동면 등 전반에 걸친 지면전체를 보건대 타지와 대부분이 그 정당특유의 편집 내용으로 되어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정당기관지라고 해서 다른 신문과 다른 면은 아마 정치면 만이 상이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판로의 현상을 본다면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두판매에 있어서는 그날그날의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하겠으며 다소의 증감이 있는 것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보겠다.

그리고 일요일의 휴간에 뒤이어 월요일에 비교적 많이 판매되는 것도 잘 알 수 있다.

앞에 이탈리아의 신문은 대부분이 정당의 기관지로서, 독립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신문은 별로 없다고 말하였거나와 지면작성에서 본다면 독립성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은 제1면에 지나지 않는 것 같기도 보인다.

말하자면 정치면에서 자당 또는 자지의 이로운 내용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와 반면에 사회면이나 타면을 본다면 대동소이한 점을 엿볼 수 있다.

문화란 같은 것도 우니타 지가 에첸프루구나 히크메르를 게재한다면 멧사체로 지는 고전작가를 선택한다든가 하는 정도로서 별로 커다란 차질적인 취급을 하는 것은 없는 상 싶다.

그리고 이밖에 스포츠나 영화 오락란에 있어서는 별로 상이한 특징의 내용으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니타 지 같은 신문이 독자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흥미 있는 기사거리와 재미있는 편집 방법으로 같은 경기라도 대중의 인기를 독점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방향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탈리아의 축구라면 유명하고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나라의 스포츠일진대 각 팀의 대전 성적이라든가 선수의 상태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조사 등 독자에게 충분한 상식을 제공해 준다는가

또는 유명한 로마와 나폴리와의 축구 시합 같은 경기에 있어서의 대전 기사와 사진을 일면 탐 기사로 취급한다든가 하는 것은 타지에서는 없다시피 대서특필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것을 본다면 어떤 면 정당기관지라고 생각키 어려울 정도인 것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요컨대 정당기관지라고 하여도 편집 면에서 볼 때 정치에 관한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에 사설은 전전(戰前)과 같이 특별한 논설 진용(陣容)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정기계약의 기고자에게 맡겨지고 있다,

때로는 정당 수뇌자들이 기고하는 수도 있지만 보수 정당인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러한 기고의 필자는 반드시 서명을 하여 글을 쓰게 된다.

이곳에 특기할만한 것이 있다. 이것은 바로 앞에 열기한 신문 외에 이탈리아에 있어서 무시 못할 신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즉 파티칸의 기관지인 아웃셀파트레 로 로마노신문인 것이다. 이 신문은 본래 종교신문이니만큼 그다지 정치기사는 없다.

그러나 그 편집내용이나 취급방법에 있어서 로마 법왕청의 의향이 다루어져 있어 어느 정도 그 의향을 추정할 수 있으며 때로는 이 신문의 논설에 법왕청의 의향이 반영되어있어 이 나라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카톨릭교의 나라임으로 바티칸의 기관지가 그 얼마나 국민의 정신생활에 이바지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케네디씨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로는 케씨가 카톨릭 교도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같은 잡지가 대미 논조에 있어 극히 잘 꾸며지고 있다는 점은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이탈리아의 신문이 이렇다 할진대 전국지로서가 못되고 그리 많지 않은 발행부수를 갖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해외에 특파원을 보내고 있는 신문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코르리에레 데라 세라 지가 인드로 몬타넬리에 다소의 보조금을 내주어 아시아와 중남미에 보내고 있으나 이것조차 로마의 메사제로 지(紙)나 기타 지와 공동으로 원고를 사용하는 정도인 것이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많은 발행 부수를 가지고 있다는 우니타 지라 할지라도 특파원을 소련에 보내고 있으나 기사는 현지 신문사의 기자의 손에 의해 쓰이는 것이 태반이며 또한 대공사관의 고원이나 프리랜서에 의뢰하여 현지특파원발이라고 하여 취급되고 있을 뿐 도리어 특파원은 당 관계의 일거리를 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신문 내용을 본다면 논평이라든가 기사취급방법에 있어서 동양의 신문에 비해 특출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유럽에 있어서의 이탈리아의 지리적 조건이라든가 이탈리아 국민이 국제정국의 일각에 서있다는 자각 또는 감각에서 오는 세계적 시야로서의 문제에 대한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에는 이탈리아의 신문노동조합과 신문기자의 지위에 관하여 고찰코자 한다. 이 나라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은 직장별 산업별로 인쇄공과 기자는 각기의 다른 조합에 가입되고 있다.



후버 댐

세계(世界) 최대(最大)의 댐 이야기

하리바톤
사진은 후버 댐 전경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코자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 호수는 어디까요?”

여러분은 틀림없이 진수로는 슈퍼리어 호(superior 미국 5대호의 하나로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쳐 있다) 염수로는 카스피 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면 인공호로는 어느 것이 가장 크냐고 할 때 그것은 길이가 242킬로미터이고 폭이 64킬로미터인 미드호를 말할 것이다. 이 호수는 볼다 댐(후일 후버 댐으로 개칭)의 배후에 있으며 콜로라도 강물을 막아서 만든 광대한 저수지이며 일대 인조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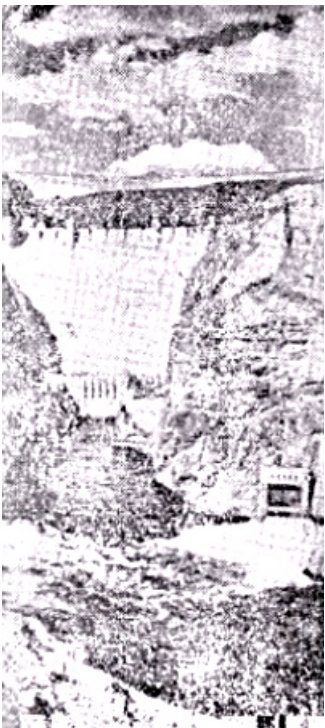
후버 댐은 세계에서 제일 큰 댐으로서 1896년 포엘 소령이 저 유명한 탐험을 끝낸 지점에서 45킬로 가량 내려간 곳에 그랜드 캐년을 건너질러서 건조되었다.

포엘 소령의 가족 가운데 포엘 소령만이 콜로라도 강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1861년 포엘 소령 누이 집에 아더 포엘 데이비스라는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포엘 소령이 그랜드 캐년을 탐험하였을 때 아더는 아직 8세의 소년이었었는데 외삼촌의 이 용감한 모험담을 듣고 외삼촌이 꿈에 그리던 콜로라도 강을 막아서 그 물을 사막 지대로 흘러보냄으로서 그곳을 훌륭한 농장을 만들기 위한 기술자가 되고자 결심하였다.

그는 성장하여 미국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공업학교에 입학하였다. 언제나 그의 머리 속을 맴돌고 있었던 것은 길이가 1킬로 반이나 되는 협곡을 1,500 킬로의 길이에 걸쳐 흐르고 있는 콜로라도 강에 댐을 만들어 하류의 습지대에서 강물을 막아 사막지대를 변환해서 꽃밭이나 전답으로 만든다면 얼마나 미국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냐는 것이었다.

1914년에 아더는 오랜 세월의 희망이 달성되어 미합중국개척봉사단(USRS)의 지도자가 되어 콜로라도 강 댐 건설에 종사하게 되었다. 그가 선택한 장소는 미국의 중앙부 럭키 산맥에 연원을 두고 캘리포니아 만으로 흐르는 연장 2,800킬로의 콜로라도 강의 상류인 애리조나, 네바다 양주 주경에 있는 브래크 캐년으로서 이 곳은 콜로라도 강변에서 불과 105미터 떨어진 양측에 600미터 높이의 암벽이 치솟아 있는 곳이다.

이 장소를 측량하는데만도 13년간이나 걸려 1930년에야 겨우 공사에 착수하였던 것이다. 아더의 소년시대의 꿈은 조금씩 실현되어 갔다.



그는 매일 3,500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곡괭이나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브래크 캐년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다음해 공사중도에 그는 우연히 병석에 눕게 되어 드디어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협곡의 밑바닥을 횡단하는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격히 흘러내리는 강물을 막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도 기술자들은 브래크 캐년의 상류에 흙이나 바위로 일시적인 둑을 만들고 다시 그물을 다른 곳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영국암벽에 직접 15미터나 되는 터널을 네개나 만들었다. 보조수로라고 불리는 이들 터널은 강물을 전부 큰 댐을 만들 장소를 피해서 훨씬 강 하류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원래의 강줄기로 되돌아가게 하였다. 거기에는 제2의 댐이 구축되었는데 이것은 강물이 상류로 넘쳐흘러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세계 역사상 이제까지 이만큼 중량 있는 토대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는 없다. 그것은 700만 톤이나 되는 콘크리트로서 이집트의 대 피라미드보다도 훨씬 무거운 것이었다. 이 하중을 받치고 그 배후에 있는 몇 백만 톤이라고 하는 물을 받치기 위해서 댐은 기반에서는 220미터의 두께를 필요로 하였으니 이것은 도시의 한 구획의 길이와 거의 같은 것이다.

이 거대한 기반 즉 지상에서 670미터 아래쪽에서 댐이 구축되어 간 것이다. 그리고 점점 높아져 갈수록 협곡의 암벽과 암벽사이가 넓어져 그것만큼 댐은 뻗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강 밑바닥에서 220미터 되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다져 넣는 작 업을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거기서는 댐의 부피가 13미터 반 정도인데 길이는 39미터나 되었다.

이 때문에 11년간이라는 세월을 밤이고 낮이고 1초간의 휴식도 없이 총량 700만 톤의 콘크리트가 주입되었다. 한밤중이라도 낮과 같이 작업은 계속되어 일몰 후는 강력한 전등이 대낮과 같이 댐과 협곡을 비추었다.

여러분은 높이 220미터의 댐을 상상할 수 있는가? 이제까지 세계

인쇄공이 임금인상의 파업을 하면은 실제 문제로서 신문 발간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신문기자들은 동정파업을 해버리는 형태를 취한다.

이럴 경우 이들은 전일의 신문에다 사설 비슷하게 하여 ‘우리들도 연대하여 파업에 돌입한다.’는 형식으로 성명서를 낸다.

노동조합이 비교적 강력한 이 나라에 있어서는 신문파업이 여태껏 실패한 적이라고는 드물며 연간 1-2회 정도는 파업이 있어 신문이 발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태반의 많은 신문은 우리 한국 신문과는 달리 일요일에는 발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같은 계통의 신문사에서 다른 종류의 발간물을 내고 있어 신문이 파업으로 1일쯤 안 나온다고 해서 그 날의 뉴스를 몰라가지고 곤란을 겪는다는 점은 별로 없으며, 이와 대조적인 것으로 공산당 기관지인 우니다 지는 연중무휴로 발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 신문사와 통신사와의 기능은 명확히 구별되어 있으며 모두가 ANSA 통신에서 뉴스 수신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면 신문기자의 지위는 어떠한가? 이 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지만 일률적이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도 보겠다.

즉 이름이 알려져 있는 관록 붙은 기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하류의 기자도 있을진대, 이 나라의 기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는 그리 나쁜 편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 나라 기자에게는 각종 박물관이나 이탈리아에서는 흔히 있는 각종의 전람회의 무료 출입증을 요구 있는 대로 발급하고 있다.

또한 철도편 이용은 사용일지라도 7할의 할인과 항공편은 국내선 3할의 할인 대우로서 여러 가지의 사회특전을 받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구입은 의사와 같이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고 할인까지도 마련하여 주고 있어 우리 한국의 신문기자와 비할 때 비교적 기자 수요가 적음으로 이러한 특전과 우선대우를 받는 데는 좋은 지위에 서 있다.

한편 특정한 관청에 대하여 신문측이 약함으로 그러한 관청이 배푸는 초청 잔치에 있어는 신문기자가 그 말석에 자리 잡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탈리아 신문 기자들은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그다지 신경을 날카롭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색다른 바 있다고 보겠다.

도리어 이러한 점보다는 언론의 자유라는 문제에 관하여는 이 나라 기자의 태도는 만만치 않으며 완강하다.

그리고 뉴스 원에 관한 비닉 문제에 대하여는 그야말로 강하고 만만치 않는 점이 있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들 수 있다.

그 일례를 든다면

오래된 일이지만 남부 이탈리아에서 줄리아노라는 의적이 있어 가지고 당지 경찰을 몹씨나 골치를 앓게끔 하여 괴롭힌 일이 있는데 이 의적이란, 비밀결사인 마피아에 예속되고 있었던 모양이며 이와 회전한 기자가 있었다.

경찰에서는 그와 인터뷰한 바 있는 기사를 심문하였던 것이나 절대로 경찰에게 그들에 대한 이야기의 명확한 회답을 주지 않아, 결국은 재판소동까지 났으나 끝까지 이 기자는 회전한 뉴스 소스에 대하여는 말할 수 없다고 완강한 태도로 나왔던 것이다.

몇 해 지나 줄리아노가 발견되어 사살된 후에야 비로소 그 내용을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탈리아의 신문기자의 뉴스 소스의 비닉 문제에 대한 완강한 태도는 그의 많은 발행부수를 갖고 있지 않으며 비교적 기자 수요가 적은 이 나라의 신문계를 볼 때 세계적 시야에서 신문을 꾸밀 수 있는 또 하나의 근인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고 있는 이탈리아의 신문은 어딘가 이 나라 국민 일반의 국제적 위치에 서있다는 자각심과 감각에 기인하고 있는 상 싶다.

(필자(筆者)·공군중령(空軍中領) 공본공보과장(空本公報課長))

약(藥)이 되는 말

☆ 맛있는 선전법(宣傳法)

영국의 모파상이라 불리는 윌리엄 서머셋 모옴(작가, 극작가, 의사, 1874-)은 젊었을 때 소설이 도무지 팔리지 않아 실망이 컸다. 출판업자는 광고료만큼도 팔리지 않기 때문에 선전에 그 이상 돈을 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자인 모옴은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출판사를 도우려고 하였다. 그는 런던의 여러 일간신문에 결혼광고를 내었다.

“이 사람은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교양 있고 온화한 성질의 젊은 백만장자인데 모든 점에서 W S 모옴의 최근 작품 속에 나오는 여주인공과 꼭 같은 젊고 아름다운 처녀와의 결혼을 희망함.”이런 광고를 낸 지 6일 후에 런던 시중 어느 서점에도 그의 책은 한권도 없이 팔렸다.

☆ 카네기의 봉변(逢變)

카네기는 사람을 다루는데 능숙하였다. 그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을까? 그 방법에 관해서 책을 저술하였다. 어느 때 그가 모임을 열었다. 그러자 이 자리에서 제자 한 사람이 선생의 그와 같은 방법을 어떻게 사람과의 거래에서 써먹었는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틀림없이 책대로 하였습니다. 먼저 거 래쳐 사람에게 마음으로부터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주의를 집중시켰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에 찬성하고 그의 의견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은 한 시간 가까이나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헤어졌을 때 나는 참으로 일생의 친구를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여기서 말을 고치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맺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사람은 딱하게도 일생의 적을 만든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최고의 댐이라고 하면 프랑스에 있는 것으로서 그 댐은 유럽의 경이로 손꼽혔었는데 그래도 그 높이는 135미터에 불과한 것이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보조수로가 폐쇄되고 강물은 본시대로 흘러내리고 거대한 백색의 괴물-댐으로 돌진해갔다. 그러나 이 괴물은 협곡의 암벽과 같이 꿈쩍도 안하고 물은 댐을 따라서 상승하고 다시 협곡 쪽으로 물이 창일해서 댐 쪽의 수심은 200미터나 되어 184킬로나 상류로 퍼진 대호수를 이루었다. 이것이 미드 호인 것이다.

(역자주 이 호수 이름은 당시 미국 개척국의 이사로서 이 공사의 기사장을 역임한 엘우드 미드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호수에 잔뜩 잡아넣어진 물은 그 일부분이 거대한 강철관을 통해서 낙하하여 발전소로 옮겨져서 거기서 대량의 발전이 되어 로스엔젤러스, 헐리우드 같은 남서부의 모든 도시로 송전된다. 더욱이 전부의 물은 발전소보다 상당히 상부에 있는 배수구에서 25미터 부피의 분출수로 되어 70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것이다.

만약 미드 호의 물이 전부 하류의 계곡으로 흘러내린다고 치고(물론 그런 경우는 결 코 생길 리가 만무하지만) 이것을 다시 가득 채우려고 한다면 콜로라도 강물을 2년간이나 쉴새없이 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그 수량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에서 강줄기를 따라 후버댐까지 내려가는 것은 힘 안드는 여행이다. (그러나 보트를 타고 내려간 포엘 소령에게는 용이한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사막을 횡단해서 나아가면 그랜드 캐니언에서 부딪힌 것과 같이 돌연 또 하나의 위대한 광경에 부닥치게 된다. 우리들이 가는 길은 이글이글 타는 것 같은 황지에 있는 바위 기슭으로 있는데 느닷없이 몇 백 미터나 아래 협곡에 걸쳐서 크게 만곡된 거대한 콘크리트의 흰 벽을 배경으로 한 미드 호가 눈앞에 나타난다. 그리고 벽의 앞은 부분에서 230미터나 아래 배수구에서 굉장한 소리를 내면서 쏟아져 나오는 물이나 발전소를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아직 건설 중인 후버댐을 구경할 수가 있었다. 협곡 가장자리에 마련된 전망대에서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강 밑바닥 부분과 두개의 댐을 내려다 본 것이다. 댐은 강을 등져서 하나는 상류로 하나는 하류에 있었다. 댐은 반쯤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꺼번에 16톤이나 들어가는 커다란 용기가 차례차례로 쌓아 올라가는 백벽위에 콘크리트를 쏟아 붓고 있었다. 협곡 양측에서 굵은 케이블이 쳐있어서 거기에는 30명가량이 한꺼번에 탈 수 있는 나무 상자가 매달려 있어 전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이 나무 상자에 여러 번 타고 330미터나 아래에 있는 건조된 골짜기를 내려다보았던 것이다. 거기에는 3,500명의 일꾼들이 트럭이나 기관차, 기중기 그리고 전기삽으로 시멘트의 산을 높이 쌓아 올리느라고 분투하고 있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은 상류와 하류의 댐으로 버티고 있는 강물이 두상 15미터 지점에 있으며 양쪽에 만들어진 바위 터널을 지나서 세차게 흐르고 있는 사실에도 전연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다.

공사는 밤이나 낮이나, 일요일이나 제삿날이나 쉬지 않고 계속 되었다. 댐이 완전히 하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2년 동안 단 1초의 휴식도 없이 콘크리트를 흘려 넣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야간에는 이렇게 과격하게 일하고 있는 광경이 몇 백만 축광이라고 하는 전광으로 비추어졌다. 그 당시 여러분이 별의 인도를 받아 한밤중에 이 깊은 골짜기를 당도해서 골짜기를 내려다보았다고 상상해 보라! 거기에는 불빛이 맴돌고 요란스러운 소리가 울리고 흡사히 개미 떼처럼 조그맣게 보이는 사람들 위에 탐과 같이 덮여쥔 미완성 댐이 어둠의 장막 가운데 나타나 보였었을 것이다. 그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하고도 감동적인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이 도저히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광경이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들의 자동차는 후버 댐 위를 횡단하고 있다. 댐 위는 주요도로로 되어 다리로서 사용되고 있다. 거기서는 상류를 바라다 볼 수도 있고 호수를 가까이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몇 백 미터 아래에 있는 발전소도 볼 수가 있다.

댐의 중심부를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려 그것을 타고 발전소로 내려갈 수도 있다. 거기에는 이제까지 만들어진 것 가운데 가장 큰 터빈이나 발전기가 가설되어 있는 것이다. 그 발전실 아래나 주위에는 콜로라도 강물이 전부 튼튼한 강철 터널 안에 압축되어 쇠줄로 이어진 괴물과 같이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은 몇 톤이나 되는 물이 몇 톤이나 되는 기계에 묶여져서 쉴 새 없는 작업결과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강을 노예처럼 부려먹는 덕택으로 그전에는 황량한대로 내버려 두었던 몇 만몇 십만 에이커라는 넓은 토지에 급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구에 가까운 농장이나 골짜기에 다시금 홍수를 내게 하지도 않고 남부 캘리포니아에 다량의 열과 광을 공급하기에 이른 것이다. 여러분이 먹고 있는 밀감은 후버 댐에 의해서 개척된 토지에서 생산된 것인지도 모르고 또한 영화도 후버 댐에서 보내진 전기로 비추어진 세트에서 만들어진 것인지 모른다.

이 기술의 승리로 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후버 댐을 최초로 머리에 구상한 사람이 아더 포엘 데이비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감사와 상찬이 이 위대한 기술자에게 부여되지 않음은 어딘지 서운한 감이 든다. 그러나 그가 구한 유일의 보수는 그의 기획에 의해서 그전에는 황량했던 사지에 불과한 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과실이 열리고 살비아의 삼림지대에 훌륭한 도시가 생기고 지상에서 가장 손댈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인 힘의 소유자라고 생각되었던 콜로라도 강이 완전히 길들여서 미국 최대의 부의 원천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라 하겠다.

(역자주 워싱턴 주의 콜롬비아 강에 설치된 그랜드 크레이 댐은 높이 165미터로서 후버 댐의 220미터에는 미치지 못하나 길이는 1,290미터가 되어 후버 댐의 3배 이상이나 되어 사람이 이룩한 돌(石) 공사로서는 세계제일이라고 한다.)

표준의례

◇머리말

우리 겨레는 예로부터 예의를 숭상하여 왔다. 혼인하고 장례 치르고 제사 모시는데 모두 일정한 방법도 있고 절차가 있어서 이것이 잘 지켜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 의례는 차츰차츰 그 절차가 번거로워지고 형식에만 치우치게 되어서 오늘날에 와서는 고쳐야 할 점이 많아졌음을 세상 사람이 다같이 느끼게 되었다. 무릇 의식범절도 시대의 변이에 따라 약간씩 변모되지 않을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오늘날 국민이 모두 절실히 느끼는 점은 종래의 우리 각종 예식이 훨씬 더 간결하여야겠다는 데 있는 줄로 안다. 우리들의 살림살이의 양식이 30년 전의 그것과는 판이한 것인데 300년 전의 예식을 그대로 지켜나가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또 종래의 번잡하고 외식에만 치중하는 예식에 따르는 막대한 노력과 재화의 낭비를 절용하자는 데에 이 표준의례를 갖는 목적이 있다.

◇혼례

〈약혼〉1. 혼인은 사주와 궁합에 구애됨이 없이 한다. 2. 약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 표시만으로써 성립된다. 3. 신랑신부의 호적등본 및 건강진단서의 교환이 있어야한다. 4. 약혼식이나 약혼 잔치는 폐지한다.

〈혼일〉양가의 합의로서 결정한다.

〈납폐〉납폐는 일체 폐지한다.

〈혼례식장〉혼례식장은 양가 간에 합의된 장소에서 한다.

〈청첩〉1. 극히 가까운 친척 및 친지에 한한다. 2. 특히 공직에 관련한 청첩은 일체 금한다.

〈혼례복장〉1. 신랑은 평상복을 입는다. 2. 신부는 평상복 또는 간소한 예장을 한다.

〈혼례식 종료 후 행사〉1. 가족 이외의 친척 및 지인을 상대로 하는 잔치는 일체 폐지한다. 2. 당일로 실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례

〈임종〉병세가 위독에 빠진때는 근친자는 환자실에 내외를 정숙히 하고 있다가 운명하면 망인의 시신과 수족을 정제수시하고 애도근신 한다. 망인의 직계비속은 상주가 된다.

〈상주〉1. 상주는 장자가 되고 장자가 이미 죽었으면 장손이 승중을 하여 주상이 된다. 또 장손이 미성년이면 차자가 상례를 주재한다. 2. 무후한 친족은 최근친 자가 상례를 주재한다.

〈부고〉1. 호상자의 명의로서 극히 가까운 친족 및 친지에게만 한다. 2. 관청 및 일반 직장명의로 관련된 부고는 일체 금한다.

〈입관·염습〉1. 운명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깨끗한 평상복을 입히고 입관 후 장일까지 정결하고 소독된 곳에 안치한다.

〈영좌〉1. 입관 후에는 망인의 사진을 정결한 위치에 모신다. 2. 명정은 폐지한다.

〈상복〉1. 남자는 망인의 직계비속만 정결한 평상복에 마포 두건을 쓴다. 단, 장일까지만 한다. 2. 여자는 망인의 직계비속만 정결한 평상복에 마포대를 허리에 두른다. 단, 장일까지만 한다. 3. 복인은 망인의 직계비속을 제외한 유본친은 남녀 다 같이 흑포 완장을 왼팔에 두른다. 단, 장일까지만 한다.

〈장일〉삼일장을 원칙으로 한다.

〈영결식·발인제〉간소한 영결식 또는 발인제를 지낼수 있다.

〈장지〉1. 공동묘지 또는 가족묘지에 한다. 2. 성분 또는 화장 후에는 분향합동 배례한다. 3. 묘지 선정은 풍수설에 구애됨이 없이한다.

〈상기 중 폐지사항〉1.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 2. 우제 및 졸곡은 폐지한다. 3. 상식 및 삭망은 폐지한다. 4. 소상, 대상, 답사는 폐지한다.

〈조위 및 호곡〉1. 조객은 망인의 영좌에 분향단배 하고 상주에 조위한다. 2. 상주 및 조객은 호곡을 안 한다.

◇제례

〈제례의 구분〉제사는 기사, 묘사, 절사, 원단, 추석, 또는 중구로 한다.

〈제사봉사범위 및 일시〉1. 기제사는 조부모, 부모의, 이대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제주가 승안한 조상은 제주의 당대만 봉사할 수 있다. 2. 무후한 친족은 최근친자가 제주당대에 지낼 수 있다. 3. 기제사의 일시는 기일 일몰 후에 지낸다. 4. 원단은 기제사의 봉사범위 대상위로 한다. 5. 묘사의 봉사범위는 이대까지로 한다. 6. 추석 또는 중구는 기제사의 봉사범위를 대상위로 한다.

〈제사의 절차〉1. 모든 제사는 망인 생전에 좋아한 극히 간소한 음식물을 진설할 수 있다. 단, 공화로서 제물을 대할 수 있다. 2. 모든 제례 절차는 단헌단배하고 묵념 후에 다시 단배한다. 3. 제사에는 추도문 또는 축문을 읽을 수 있다. 3. 제복은 평상복으로 한다.

〈신주의 폐지〉사진으로 대하고 모든 신주(불천위 포함)는 폐지한다.

◇기타

성연(혼, 상, 제, 회갑 등) 모든 각종의식에 있어서 가족 범위를 넘는 성연은 폐지한다.

축의 및 부의…친척이나 극히 가까운 친지의 간단한 표시만으로 한다.

방공(防空) 구국(救國) 3개월 -제2차 대전 시 방공전선에서의 영국 공군의 불굴의 문혼-



성공(成功)을 거둔 헌납운동(獻納運動)

영국의 본토방위전은 7월 10일에 개시되었다고 하였는데 독일에서는 8월 8일을 대영항공작전개시일로 예정하고 있었다. 독일은 7월 중 최초의 3주간을 작전발동의 준비 기간 내지 불굴의 영국인들로 하여금 전쟁을 고만두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주간으로 설정하였던 모양이다.

7월 10일 아침은 행운의 뉴스가 전해졌다. 각 신문은 1면에 특호활자로 다칼 작전의 대전과를 보도하여 런던 시민들을 기쁘게 하였다. 독일에 항복한 프랑스전함 리슈리 호를 영 해군의 브리스토 소령이 다칼 항에서 격침한 유명한 뉴스였다. 이와 같은 회보와 함께 가정주부들에게 호소하는 비바부르크 경의 담화가 실렸다.

“주부 여러분 항공기생산성에 알루미늄 제품을 헌납해주십시오. 우리는 가정에서 쓰고 있는 냄비나 솥을 가지고 비행기를 만들어 냅니다. 본인은 여러분이 알루미늄 제의 냄비, 솥, 주전자 진공소제기 그밖에 무엇이든 알루미늄 제품을 가지고 계시면 지체 말고 부인의용군 지방지부에 헌납해 줄 것을 바랍니다.”

영국전쟁에서 가정 주부들의 협조에 의한 냄비나 솥, 주전자 같은 것들이 항공기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음은 대서특필할 만한 사실이었다.

실이었다.

일반대중은 폐품회수에서부터 현재 사용 중인 알루미늄 제품의 자진헌납에 적극 협력하였다.

비바부르크 경을 항공기생산상에 기용한 처칠 수상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경에게는 가장 곤란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탁월한 자질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국가에 봉사하였다. 나는 제1차 대전 당시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공군성에서 항공기설계와 생산을 떼어내서 별개로 이것을 전담하는 성을 설치할 것을 구상해 왔다. 비바부르크 경은 처음에 항공기생산상으로 입각할 것을 꺼려 하였다. 그의 임무에는 여러 가지 저항이 따랐다. 그러나 나는 영국의 존망이 항공기생산여하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여 경의 정력적인 활동과 그의 수완에 기대하였던 것이다”라고.

그는 데일리 익스프레스 신문사장으로 있던 입지전중의 인물로서 참대위에서도 타이핑을 칠만큼 정력적으로 일을 하였다. 이리하여 수주일도 못가서 항공기생산에 조종사 양성이 따르지 못할 형편으로까지 만들었다.

전투기(戰鬪機) 우선주의(優先主義)

비행기의 설계 및 생산을 항공기생산성에게 뺏긴 영공군성의 불만은 컸다. 그러나 그와 같은 불만을 공군 최고수뇌 가운데서 공적인 면에서 반영시키지 않은 인물이 있었다는 것은 영국으로서 다행한 일이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니고 윌 프레드 프리먼 대장으로서 그는 전전(戰前)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하여 폭격기, 전투기, 연습기의 연구 개발 및 생산방식을 이룩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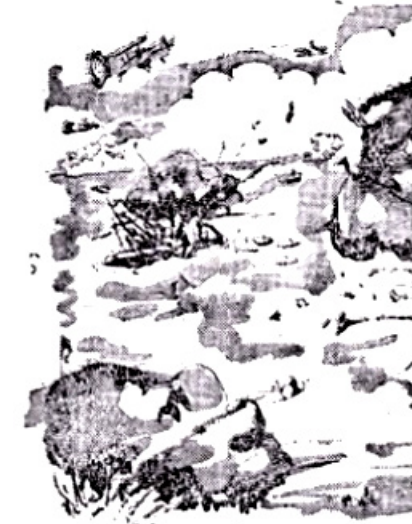
이와 같은 기본적인 노선의 설정이 없었다면 아무리 항공기생산성을 신설하였다 하더라도 영국을 구한 전투기 생산은 시간 경쟁 면에서 패배했을 것이다.

공군성의 수뇌는 별개로 하더라도 제일선 지휘관들은 드디어 이 혁명에 찬의를 표하였다.

비바부르크 경은 전투기의 수리 및 생산우선주의를 취하였는데 제일선 지휘관들은 전투기를 필요로 하였으며 그와 같은 요구는 능히 충족되었다.

전투기 우선방침은 필연적으로 다른 기종 생산을 압박하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전투기에 의한 이 싸움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폭격기를 사용할 만한 전투는 있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연일의 격심한 항공전을 통해서 통감하였던 것이다.

비바부르크 경의 활약을 제임스 2세 때 해상을 역임한 사무엘 페피스의 활약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다. 페피스는 가난한 양복점 아들로 태어나 200년전 영국해군 재건에 성공하여 영국의 위기를 구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바바부르크를 20세기의 페피스라고 추앙하는 것이다.



전쟁중(戰爭中)의 휴식(休息)

전투기대사령관인 다우딩 대장은 실로 몸이 쏠아 붙는 것 같은 착잡한 심경으로 날을 보냈다. 프랑스가 항복한 이상 독일공군의 공격이 영국본토를 목표로 할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었다. 영국전투기대는 덩케르크 철수작전과 프랑스 원조로 해서 전력이 줄어 수적으로는 독일 공격에 비해서 열세를 면치 못했다. 오늘 공격해 올지 내일 침공해 올지 영국인들은 독일공군의 내습을 불안에 찬 가운데 대기하고 있었다.

이때 독일군 자신이 휴양과 부대 재편성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개를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는 것은 영국으로서는 천우신조(天佑神助)가 아닐 수 없었다.

더욱이 다우딩 대장에게는 커다란 구원이 되었다. 덩케르크에서 7월 10일에 이르는 동안의 비교적 완만한 전국의 추이, 그리고 7월 10일의 공격 개시부터 본격적 내습이 시작된 8월 13일까지의 소강상태 등이 어느 의미에서는 이 기간의 공중전이 영전투기대로서는 절호의 실무교육이었던 것이다.

전투기로서의 공중전에서는 적기를 자국영토에 끌어 들여 싸우는 것과 적지에 출격해서 싸우는 것과는 질적으로 틀리는 것이다. 그 당시의 공중전만 하더라도 자국영토상공에서는 마음

껏 활약하다가도 틈을 보아서 탄환의 보급 연료 보급 같은 것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조종사를 교체시키고 새로 항공기를 투입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설사 탄환을 맞았다 하더라도 조종사만 부상당하지 않았으면 낙하산을 타고 귀환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본격적 공중전을 수반하지 않은 소규모의 전초전에서 영국 공군은 이와 같이 본국영토 상공에서의 전투 이익을 체득하였다. 그럼으로써 수의 열세도 그다지 문제거리가 안되었으며 오히려 자기들의 역량에 대한 자신

을 더욱 굳게 하였다. 최전선에서 떨어진 곳에서는 공습경보의 사이렌도 듣지 못하고 적기 내습의 불안과는 별도로 현실적으로는 전쟁을 긴박하게 느끼지 않는 하루하루가 계속되었다.

이와 같은 소강상태는 히틀러가 영국과의 강화를 은밀히 생각하고 있었던 데도 원인이 있었다. 물론 강화라고는 하더라도 히틀러가 구상한 엉뚱한 조건을 자의로 제시해서 즉 영국 본토공격이라는 출혈을 하지 않고서 적당히 전쟁을 종결시키려는 뻔장이 있었던 것이다.

히틀러의 지상명령(至上命令)

7월 19일 히틀러는 군수뇌의 새로운 인사를 발표하였다. 즉 괴링은 공화국 원수로 케셀링크와 스파레는 육군원수로 각기 승진하였다.

이 3명은 전장에서 눈부신 전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히틀러가 이 승진을 통해서 그 들에게 표시한 기대에 보답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공권(制空權)의 완전 확보’ 이것은 독일군 수뇌에게 부여한 모든 기대를 요약한 말이었다.

그러나 괴링 원수는 ‘우리 우수한 독일 공군은 9월로 예정된 영국 본토 상륙까지는 이 목적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자기 뎀에는 단단히 믿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 육군이나 해군의 제일선 지휘관들까지 괴링의 뻔심 좋은 신념에는 공공연하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독일 해군은 공군보다는 현실적이며

과장적인 것도 아니어서 덩케르크 이래의 작전지연이 항공전에서 조금씩 승리를 획득할 기회를 적게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보다 장기에 걸친 작전 준비를 전력을 기울여 진행시키고 있었다.

해군의 레다 제독은 ‘영국 본토 상륙 작전은 1941년 5월까지 연기해야 될 것’이라고 히틀러에게 진언하였다. 레다 제독은 특히 9월 15일에 영국 본토 상륙 작전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8월 중에 제공권을 확보해두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7월 말일에 히틀러는 1941년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고려한 끝에 후일 독일 패전의 원인이 된 중대한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9월 15일을 영국 본토 상륙 작전의 발동일로서 정하고 모든 준비를 진행하라'와 같은 히틀러의 지상명령이 드디어 발해졌다. 이와 같이 해서 독일공군은 해양의 패자인 영국에 대해서 공전사상 가장 대담하고도 당돌한 임무가 부여되었던 것이다.

독일공군은 비행기도 파일럿도 모두 도양작전용으로 설계도 훈련도 되어있지 않은 채로 영국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 뉴스를 들었을 때 독일군의 고위층 장성들 사이에는 커다란 불안이 물결처럼 번져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을 느낀 사람은 엘하르트 미루히 육군 원수였던 것이다.

그는 전쟁이 시작되기 1년 전에 영국공군을 시찰하고 그 우수성을 손수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에게 독일공군은 영국에 대한 전쟁에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더구나 독일 공군이 영국에 대한 공격 준비가 완료되는 것은 빨라도 1942년 경이 될 것이라는 것이 미루히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그렇던 미루히 원수도 유럽 대륙에서의 전격전이 눈부신 성공을 거두자 히틀러에게 지체 말고 영국 공격으로 옮겨야 한다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마음 들뜬 조종사(操縱士)들

미루히 원수는 독일공군의 준비부족을 잘 알면서도 강경히 주장하였다. 즉 영국이 태세를 정비하기 전에 독일군은 공격을 단행해야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왕에 미루히가 ‘폴랜드를 공격한다면 영국은 참전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였을 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히틀러는 이번에도 미루히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다.

제1차 대전 때 무공을 세웠다는 미루히 원수 마음속에 싹트고 있었던 불안은 영국을 향해서 날아가는 젊은 파일럿들에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빠지고 있었으며 또한 실제 그 당시에는 아직도 독일공군의 황금시대이기도 하였다. 독일공군의 파일럿들은 불굴의 전사들이었다. 그들은 영국공군의 예비전투기대보다 훨씬 규율 있는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저희들끼리 강철같이 세고 굳세다고 떠들어 댔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도 융통성 없는 군인기질에 철해 있었기 때문에 사고방식에 있어서 유연성이 있는 영국의 예비역 사관들의 머리를 길게 깔고 군인정신과는 양립할 것 같지 않은 자유주의신봉자들과 맞부딪쳤을 때는 불리한 입장에 서 있었다. 이 사실은 전쟁에서 생존한 독일인도 아직껏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영국전쟁이 개시되었을 때는 독일공군의 사기는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독일공군(獨逸空軍)의 형성기(形成期)

독일공군이 수년에 걸쳐 비밀리에 훈련을 쌓고 그와 같은 사실에 관해서 다른 나라에게 적당히 어물어물 넘기느라고 애를 쓴 독일의 노고는 결실되었다고 할 만하였다.

영국에서 수백만의 실업자를 낸 채 뒤흔 험정예의 파멸의 길을 더듬고 있을 때 독일은 장래의 세계정복을 꿈꾸어 착착 공군육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프랑스, 스위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영국에 덤벼든 독일공군은 작은 모체에서 20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육성된 것이었다. 지난날의 이와 같은 실례는 오늘날에도 일부 사람들에게 독일의 재군비에 불안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1919년에 조인된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제1차 대전시의 독일 공군부대는 해체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 민간항공의 장래까지는 규제하지 않았다, 그 당시 독일 항공의 장래에 대한 연합국의 유일한 거부권은 항공용 엔진, 항공기의 수입 및 제작을 불과 6개월간 구속하는 조항뿐이었다.

이와 같은 조항에 의해 강제된 6개월간의 침묵은 독일의 항공기 공업에서 항공기 제작을 개시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았다.

그들 민간항공의 명칭은 도루니에, 호크 울프, 하인켈, 융카스, 메서슈미트 등 흡사 1940년에 영국과 인연이 깊게 된 독일 군용기 명부를 보는 것처럼 늘어서 있었다. 특히 메서슈미트는 유명한데 베르사유 조약 이후 동사는 스포츠용 특종기 제작에 전념하였다. 이것은 1925년에 출현한 저 유명한 메서슈미트-109 형 전투기의 모체가 되었다. 독일 공군은 장래의 비약을 은밀히 기약하면서 제일보를 내디디기 시작하였다.

전쟁에 휩쓸려 들어간 영국은 베르사유 조약 체결 직후에 시작된 이와 같은 사태발전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한 예로서 일견해서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독일 국민항공 구락부의 결성이 그것이다. 이 구락부는 조약에 서명한 잉크도 마르지 않은 불과 6개월 후에 레사 대위에 의해서 창설된 것이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20년 후 레사 대위는 대장이 되고 켄트천, 사섹스 주를 휩쓴 켈셀링크 휘하의 제2 항공함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까지의 13년 동안 항공기공업의 전문가들은 항공기 생산을 계속하고 있었다. 히틀러가 지도하는 나치스당은 이 무기로 서유럽을 자기들 의지에 굴복시키려 하였다.

서서히 쌓아 올린 독일항공기 전문가들의 노고는 이내 독일 공군력을 급진적으로 발전시켰다. 이와 같은

전력으로 제1차 대전의 승리자들을 힘의 입장에서 내려다보려고 한 나치스 정권의 사고방식은 확실히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하겠다.

영국전쟁이 개시되기 6년 전 전문가들은 히틀러와 괴뢰에게 ‘영업중의 사업’으로서의 공군을 제공한 것이었다. 그 당시 아직도 민간항공회사 사장이었던 미루히 원수가 항공성 차관에 취임함으로써 민간항공의 통합은 더욱 촉진되었다.

이 같은 통합에서 이루어진 위험하기 짝이 없는 망나니 자식이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영국이 대독선전을 포고하기 5년 전 민간항공기에는 후일 영국전쟁 개전 초기에 사용되었던 형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최초의 것으로는 융카스 52형 폭격기였다. 스페인 전쟁에서 활약한바 있는 이 융카스 52형 폭격기는 만능수송기로서 등장하였다.

융카스 52형기는 제트 시대인 오늘날에 있어서는 골동품에 속하는 비행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당시는 이와 같은 케케묵은 비행기일망정 이제까지 없었던 고도한 기동성을 발휘했던 것이다.

항공지휘관(航空指揮官)들의 고민(苦悶)

1935년 즉 영국의 다우딩 원수가 전투기 대사령부로서 알려진 새로운 방위조직을 만들 것을 명받기 1년 전에 독일공군은 공공연히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이었다.

독일공군사령관에는 헤루만 괴링이 취임하였다.

스포츠기를 생산하고 있던 메서슈미트 회사는 메서슈미트 109형 전투기를 독일공군에 제공하였다, 바야흐로 공공연하게 그모습을 나타낸 독일공군은 세계에 그 검은 그림자를 제시하여 찬탄되고 드디어 히틀러가 바란 바와 같이 외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독일공군의 능력은 스페인 내란의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투우사와도 같이 실지 시험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영국전쟁이 개시되기 4년 전에 독일이 스페인 내란에 개입한 것은 우리가 지금 논술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크게 영향을 준 것이다.

스즈카 급강하폭격기가 공지협동작전을 실행에 옮긴 것은 이 스페인 내란에서였다.

이것은 그 뒤 1940년 5월 뮌즈 강에 연한 프랑스군 진지를 공격하여 폰 크라이스트로 하여금 전 지상군을 도하 작전에 성공시킨 급강하폭격기에 의한 공군공격의 예행연습이라고도 할 만한 것이었다.

뮌즈 강 도하작전이 있는 지 2개월 후 독일군은 이와 같은 싸움을 영국과도 최후까지 관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독일은 영불해협을 다만 뮌즈강을 넓힌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과오를 범한 것이다.

영국으로서는 다행히도 독일의 급강하폭격기나 고속중형폭격기의 성공이 기상이라는 훌륭한 비밀무기와 함께 전투기로서 결사적인 방공을 좁은 국토위에 둘러칠 수 있는 십나라 영국에는 통용되지 않았다.

영국의 이 변화 많은 천후에 대해서 독일공군은 거의 경험한 바가 없으며 훈련도 또한 받은 바가 없었다, 그 덕분에 영국공군은 7월 한 달 동안

오늘의 우리 정부(政府)

-이번에 어떻게 개편(改編)되었나-

유근국(柳根國)



1. 서론

우리나라 정부기구의 조직은 본시 오래 전에 조직된 기구를 필요할 때마다 미봉책으로 고식적인 기구개편을 하였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며 불합리한 점이 허다하여 행정 능률의 둔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행정국가 내지 직능국가의 구현에 있어 많은 지장이 있었다. 즉 집행기능과 기획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있어 행정기구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기획과 그 결과의 검토 및 조정 기능 등이 결여되고 있었으며 편제가 일반적으로 직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직되지 않았었다. 또 동질적인 사무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 관리되고 있었으며 기관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존속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보통지방행정기관인 도(道)와 사무가 중복되거나 그로부터 분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과도한 중앙집권 현상 등이 개략적인 불합리점이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정부기구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행정의 민주화와 능률의 향상을 기하도록 함이 무엇보다도 혁명정부의 가장 급선무라 아니할 수 없었다,

2. 기구개편(機構改編)의 지도이념(指導理念)

정부에 있어서는 급변 정부기구를 전면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재조정하였는데 그 개편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과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 기구의 불합리성을 교정하되 최대한 구 기구를 활용하였으며 가능한 과 단위로 조정하는 데 그쳤다.
2. 기획과 집행의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여 정책과 기획을 조정 평가할 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3. 통제 기능을 위주로 하는 행정업무는 가급적 독자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4. 부서의 조직은 기능 및 관리 과정과 업무량을 충분히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하되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폐합하도록 하였다.

5. 행정의 분산관리로서 생하는 중복 등에 기인되는 비능률성을 지양하고 동질적인 사무는 통합하는 반면에 지나치게 집중된 부문은 이를 분산 조정하였다.
6. 기업관서는 기업적 관리 면을 치중하여 체제를 갖추도록 개편하였다.
7. 국토건설사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담당부서를 강화하였다.
8. 도와 서울특별시의 행정기능과 중복되는 특별지방관서의 기구는 이를 통합하고 종래 중앙관서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도지사책임 하에 지방에 강력한 종합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였다.

3. 기구개편(機構改編)의 내용(內容)

금번 개편된 정부기구의 부서를 중심으로 간단히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기획조정관
구 행정기구상에는 거대한 국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그 조정 및 그 집행에 있어 결과를 검토하는 기능에 대한 배려가 되어 있지 않았음을 시정하여 각부와 도 및 서울특별시에 기획조정관을 두도록 하였다.
2. 법제처의 신설
중전의 내각사무처에 법제국을 두어 법령안, 조약안 등을 초안 심의하는 사무를 담당케 하고 있었으나 법제사무의 독자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독립된 기구를 마련함이 필요하였으므로 법제처를 신설하였다.
3. 경제기획원에 평가분석실 신설
기획된 정책의 집행을 평가 분석하는 기능은 기획담당부서에서 독립하여야 될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각국에서 독립한 평가분석실을 신설하였다.
4. 조달청의 신설
정부에서는 막대한 물자 및 용역구득에 경비가 소사되는 바 이를 각 기관에서 산만적이고 비능률적인 방법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내각 수반 소속하에 조달청을 신설하였다.
5. 중앙공무원 교육원 신설
간단없이 발전 향상하는 관리기술에 공무원을 대응시키려면 이들에게 부단한 훈련을 과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됨으로 중앙공무원 교육원을 신설하였다.
6. 외무부의 정보국 신설
현재 외무부에 정보문화화가 있으나 외교에 관한 국내외의 여론 및 일반 국제정세의 조사연구와 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등 기능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으로 확장 강화하였다.
7. 법무부에 출입국관리과 신설
외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사무는 그 성질상 법적규제가 위주임으로 법무부로 이관하였음.
8. 전매청에 기업회계과 신설
전매청은 사업관청으로서 기업적 관리방식에 의한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뿐만 아니라 장차 공사제도로 발전케 할 것을 예상하여 기업회계제의 연구 지도를 주관할 기업회계과를 신설하였다.
9. 상공부에 표준국의 신설
국내생산품의 질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외국으로서의 표준국을 신설하였다.
10. 해무청의 해체
해무청은 본시 이질적인 사무 즉 수산해운, 항만시설, 해양경비 등을 종합 관장하고 있는데다가 상공부의 외청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공행정을 중시하게 되어 결국 자연 침체를 가져오고 있어 수산행정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무청을 해체하고 수산은 농림부로, 해운은 교통부로, 항만시설은 국토건설청으로, 해양경비업무는 내무부에 각기 이관하도록 하였다.
11. 국토건설청의 강화확장
국토건설사업의 중요성과 합리화를 위하여 내무부의 소관에 속하고 있던 토목국과 해무청의 항만시설국을 종합하여 국토건설청을 강화 확장하였다.
12. 교통부에 관광공로국 신설
관광과 공로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관광공로국을 신설하였다.
13. 체신부에 전파관리국 신설

전투기에 의한 방공이라는 해군국으로서는 새로운 전투훈련에 몰두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영국으로서는 그 이상의 행운이 없었던 것이다.

사태로 말하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며 따라서 극장무대에서의 연습과 같이 대본에는 실려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하나는 방공전투기대 지휘관들을 금방 딜레마에 빠뜨렸다.

아득한 상공을 전투기 엄호 아래 독일 폭격기 대편대가 영불해협을 건너올 때 이 같은 대편대의 목적은 선박을 공격함과 더불어 선박을 엄호하고 있는 영국전투기를 격추하려는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 측의 딜레마는 적의 공격에 대하여 영국본토의 다른 방위를 소홀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력을 집중해서 대응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항공평의회에 의해서 전투기부대에 부과된 첫째 임무가 호송선단의 안전한 통행보장이나 호위가 아니고 항공기공장의 우선방위에 있음을 생각하여 전투기나 조종사를 해협상공전장에 내보내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7월 10일에 이르는 며칠 동안에 다우딩 원수가 지휘하는 방공전투기대는 전투기 15대, 파일럿 9명을 잃었다. 다우딩 원수는 그의 지휘 하에 있는 전투기가 영 본토 내에 들어온 적기를 공격한다고 하는 본래의 임무가 시작되기 전에는 조금씩이라도 소모되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전무국에서 전파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으나 전파관리업무는 국제기구와도 밀접할 뿐만 아니라 전파단속업무는 국가적으로 중요하므로 체신부 외국으로 전파관리국을 신설하였다.

14. 청에 차장제

각 청의 사무양으로 보아 차장을 두도록 하였다.

15. 도의 기구개편

중앙행정기관의 기구개편과 수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도에 통합하는 등으로 도의 기구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다.

1) 건설국 신설

건설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일선기관인 도 기구를 강화하여야 될 것이므로 건설국을 신설하였다.

2) 보건사회국의 신설

국민보건향상과 방역, 위생, 실업대책 등의 중요성에 감하여 보건사회국을 신설하였다.

3) 교육국 신설

중전의 자치기관이었던 도, 시, 군, 교육위원회 및 교육구를 도, 시, 군에 통합하여 교육이념과 교육행정 능률을 공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국을 신설하였다.

4) 출납감사실 신설

경리집행사무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지사 직속하에 출납감사실을 신설하였다.

5) 도농사원

농사원 직할 하에 있었던 도농사원을 도에 통합하되 농사원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도의 외청으로 하도록 하였다.

6) 공보실 신설

공보행정의 중요성에 감하여 내무국에 소속하였던 공보과를 도지사 직속 하에 공보실을 두고 이를 통합하였다.

7) 수산과 신설

해무청에 수산행정업무가 도에 통합되므로 수산과를 신설하였다.

4. 결론(結論)

대략 서술한 바와 같은 정부기구 개편으로 일단락을 보았는데 도합 경제기획원, 원자력원, 농사원의 3원 12부 2처 4청이 된 셈이다.

이것으로 우리 정부기구는 대체적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의 기초를 마련하였다고 하겠으나 기구의 조직은 간단없이 발전되어 가는 시대에 적응하도록 항상 검토 조정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 정부 기구도 장차 더욱 더 개선되어 가장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체제를 갖추어 머지 않아 국가목적달성에 만전을 기하게 될 것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필자(筆者) 내각사무처(內閣事務處) 행정관리국장(行政管理局長))

독일공군의 대편대 내습을 앞두고 너무나도 열세인 그것도 3대 정도 밖에는 출격명령이 내리지 않은 것은 제11 항공대 사기에 그대로 좋지 못한 결과를 주고 있었다.

해상에서 독일공군에 용감히 도전하고 영국본토상공에서 본래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전에 커다란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결코 다우딩 원수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유군기 1대에 대하여 독일의 메서슈미트 전투기 101형 9대가 뒤를 쫓는 형편에서는 영국공군 조종사들은 이와 같은 사령부의 견해에 불만이 많았다.

프랑스에서 전멸 일보직전의 전투기부대를 구한 다우딩 원수는 비바부르크 생산상의 협력 아래 방공전투기대의 재건을 서둘러 항공기와 조종사의 보충을 실시하고 있었다.

다우딩 원수는 항공기와 조종사의 보충, 각 부대의 재건 및 해협상공에서의 싸움으로 손실을 입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결심하였다.

괴령의 오산(誤算)

전투가 이미 개시된 이 단계에서 병력을 아끼는 방침을 내건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기왕에 해상에서 해군함대끼리의 전투와 마찬가지로 독일공군의 대편대를 대함에 있어 영국도 대편대전투기로서 대항하였다면 독일공군은 해상이나 연안지구에서 격파되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은 영국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전술상의 문제점을 건드리는 것이라 하겠다.

영국공군은 전쟁 역사상 유례없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경을 극복해 가면서 훈련에 훈련을 쌓아갔다.

영국공군이 너무나도 맹훈련을 거듭 하고 있음을 본 독일은 영국으로서는 천우신조의 이 2개월 사이에 반드시

《61년도 노벨문학(文學) 수상자(受賞者)》

이보 · 안드리치와 작품(作品) 「드리나강(江)의 다리」

★ 인간(人間) 안드리치

이보 안드리치(당시 69세)가 최초로 작품을 쓰기 시작한 것은 감옥 속에서였다. 그는 처음에 시를 썼는데 1919년에 「다리 위에서」라는 산문시를 발표했었다. 이번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품도 「드리나강의 다리」였는데 이보 안드리치는 다리(橋)와는 인연이 깊은 모양이다. 그로 하여금 일약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한 작품이 다를 아닌 「드리나강의 다리」라는 서사시적 박력이 넘치는 3부작인데 이 3부작 소설이 발표된 것은 2차 대전 후였다. 제1부가 젊은 여인, 제2부가 트라보니크 연대기, 제3부가 드리나강의 다리다.

이 중 트라보니크는 바로 이보 안드리치의 고향이다.

60년도의 노벨문학수상자도 외교관이었던 프랑스의 시인 알렉시스 레제였는데 이보 안드리치도 유고의 외교관이었다. 외교관치고 어떠한 저술을 남기지 않은 사람이 없지마는 문학가가 많은 것도 하나의 경향이랄 수 있다.

그가 투옥된 원인은 제1차 대전의 도화선이 된 보스니아의 대학생 가브리로 프린시프와 친했다는 것인데 1892년 세루비아와 보스니아 국경지대에서 출생한 안드리치는 전기한 보스니아의 대학생이 1914년

영국이 공격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을 정도였다.

만약 싸움이 시작되었을 때 영국공군이 그 전력을 투입해서 승패를 걸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영국민족의 장래운명을 건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 당시의 레이더(전파탐지기)는 그야말로 초보적 발전 단계에 있었다. 전투기가 적과의 접촉에서 얼마만큼 선수를 쓸 수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지 그것을 지시하거나 알아낼 수 있을만한 확실성은 도저히 없었다. 어쨌든 그 당시 레이더는 저공을 비행하는 비행기에는 아무 역할도 못했으며 고공을 나는 비행기라 할지라도 정확한 산출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레이더는 그 후의 눈부신 기술적 진보로 오늘날에는 초등학교 아동들까지도 항공기의 항로관제나 경보 혹은 인공위성 등을 관측하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나 그 당시는 그러한 상태였다.

그러나 허리케인이나 스피드 화이어, 데파이안트, 브렌하임 같은 영국전투기를 타고 싸운 파일럿들은 우주 끝까지 중형무진으로 달리고 있는 급일의 후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야말로 활싸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어서는 허리케인도 스피드 화이어도 훌륭한 비행기였다. 그런데 이 같은 비행기들이 영국전쟁이 개시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발전단계에 있었다. 이 비행기들이 대독전에서 보여준 효과적인 활약은 말할 것도 없이 제작 당초부터 기울여진 많은 사람들의 정성의 결정인 것이다.

나치 독일의 전투기와 영국의 전투기의 상이점을 윈스턴 처칠 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투기의 성능으로서는 피차 상이점이 거의 없었다. 독일기는 속도와 상승 성능이 우월했고 영국기는 행동성능과 무장에 있어서 우수했다.”

그러나 이 거의 문제가 안 되는 상이점이 공중에서는 생사를 판가름 하는 것이었다.

작전준비(作戰準備)와 대기(待機)

8월로 접어들었다. 영 본토공격 준비 명령이 내린 독일공군은 그날이 오기만 대기하고 있었다.

“천후가 순조로우면 4일 후에는 공격을 개시하라!” 괴팅원수는 8월 6일에 이렇게 명령하였다.

8월 14일까지 모든 영국 공군전투기를 영국남부에서 구축하라는 엄명이 켈셀링크와 소파레에게 내려졌다.

그리고 그 다음은 폭격기 부대의 차례로 그들은 일련의 공습으로 레이더 기지, 비행장, 항만, 항공창을 지상에서 말살시키라는 것이었다.

호린 날씨가 계속되어 독일공군의 전면적 공격은 방해를 받았는데 그래도 8월 8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속적으로 치열한 공습이 있었던 최초의 날이었다.

8월 한 달 동안 영국공군의 조종사들은 하루에 4, 5회씩 적기 요격을 위해서 이룩하였다. 독일공군이 호인한 대거 공습일까지는 앞으로 5일 밖에 안 남았으며 적의 공격은 날로 격렬해 갔다. 영국전투기대사령부는 숨 쉴 사이도 주지 않는 긴박한 전쟁 상황에 전투기대가 어느 정도 견디어 낼 것인가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였다.

다우딩 원수는 48개 중대를 전국에 할당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결과 독일군의 상륙 예상지구 방공을 맡고 있던 제11 항공대에도 불과 스피드 화이어 6중대, 허리케인 13중대 밖에는 없었다.

대낮에는 약 400대의 독일 폭격기와 전투기가 도바해협 상공에서 수송선단을 공격하였다. 그 뿐 아니라 날이 밝기 전 즉 공습이 시작되기 전에 적은 폐쇄 어뢰정으로 수송선단에 공격을 가해왔으나 피해는 경미한 것이었다.

그러나 독일공군의 목적은 선박을 침몰시키는데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해상에서의 공중전에 영국전투기들을 유인해서 압도적인 수의 우세로 이를 무찌르려는데 있었다.

그날 하루 동안에 영국공군은 적기 29대를 격추했으며 아방은 19대를 잃어 버렸다. 독일공군은 그들이 올린 전과에 비해서 너무나 고가한 대가를 지불하였다. 그러나 영국공군에 있어 19대의 손실은 어지간히 중대한 문제였다.

그 당시 재생수리기와 신조기를 합쳐서 영국항공기공업이 제공할 수 있는 대수는 하루에 18대였기 때문이다. 돈과, 자유를 위한 영국의 선의만으로서 영국을 방위할 수 있었다면 아무런 불안도 없었을 것이다.

영국에서 전투기 생산을 위한 모금은 방대하게 축적되었으며 돈 있는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헌금하였다. 그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힘자라는 데까지 협력하였다.

캐나다 태생으로 왕실어용 잡화상을 하고 있던 가필드 웨스턴 같은 사람은 8월 8일에 잃어버린 스피드 화 이야기를 위해서 10만 파운드를 쾌척하였다.

이런 형편이니 돈은 충분 하였다. 1940년 경의 전투기 1대의 가격은 오늘날 값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싼 가격이었으니 1대당 7천 5백 파운드였다.

수많은 헌금과 헌납품, 그 가운데는 자메이카 도에서 보내온 배암도 들어 있었는데 비바부르크 공급상은 한 사람도 빠트리지 않고 직접 감사장을 보냈다. 그뿐 아니라 신문에는 공개감사문이 게재되었다.

그러나 참으로 귀중하였던 것은 세계 도처에서 보내온 금품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들을 보낸 사람들의 용기였다.

8월 6일 영국공군의 사기는 충천하고 있었다. 독일군의 압도적인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용맹스럽게 싸워 독일공군의 손해는 상당한 것이었다.

영국공군성은 의기양양하게 12대의 허리케인기가 적의 융카스 87형 50대와 융카스 88형 50대와 맞싸웠다고 발표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독일공군은 오늘 영 본토 근방 공중전이 시작된 이래 최대의 손해를 입었으며 우리 영국공군은 36대의 전투기와 24대의 적 폭격기를 격추하였다.”

그러나 이 숫자는 정확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론을 기만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이다. 그 때만 해도 전과 확인은 파일럿들의 귀환 보고로 산출되었던 것이다.

참된 숫자를 알게 된 것은 전후 독일공군의 기록 문서가 발견되어서 비로소 판명되었다.

앞에 말한 전투에서 독일공군은 스피드 화이어 36대를 포함하는 46대의 영국기를 격추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도 승리를 축하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독일의 대승리!’ 이러한 방송을 독일국민은 들었으며 영국 국민들은 이 전쟁이 공중전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다.

본격적(本格的) 위협(威脅)

이와 같은 신비로운 예언은 드디어 적중하였다. 그러나 이 진실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어쩌서 독일이 제공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것은 영국전투기부대가 존재하는 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영국 해군으로부터 강대한 반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다음 2일간은 비교적 평온하였다. 영국 공군은 8월 8일에 선전한 부대에 보내온 축하편지로 해서 기쁨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제11 항공대기지에서서는 자기들 중대 안에서 계속 숙련 파일럿들이 줄어들어 가는 것에 점차로 우려의 빛이 높아갔다.

8월 12일 천후의 호전과 더불어 다우딩 원수의 준비기간 제2막은 끝났다. 다우딩 원수의 방위진에 대하여 일찍이 가해졌으나 원수는 이 공격에 끈기 있게 견디어 전력보전에 힘써 왔던 것이다.

독일공군은 레이더 정보망과 켄트 주 해안의 만스톤, 호킨지, 린폴 등지에 있는 기지에 쇄도하여 왔다.

룻치포드에서 이동해 온 제65 중대는 독일공군이 퍼부은 175발의 폭탄이 낙하하기 시작했을 때는 아직도 지상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스피드 화이어전투기는 비 오듯 하는 폭격 밑에서 편대 이륙을 시도하였다.

와 같은 예는 최전선 기지공격에 대한 독일의 약점을 드러내는 적례였던 것이다.

8월 12일 포스마스 군항과 레이더 기지가 적 공격의 주목표로 되었다. 시민들이 성서를 읽으며 기도하고 있을 때이며 해군병영이나 함정에서 ‘넬슨 제독의 피’라는 림주를 수병들이 마시고 있을 때 영국전쟁에서 가장 가공할만한 독일공군의 내습 경보가 울려 퍼진 것이었다.

빛지고 울지 말고

한 푼 두 푼

저 축 하 자

(저축표어)



이탈 · 안드릿치

사리에보에서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왕 암살사건에 가담하여 1914년 투옥된 후 제1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감옥살이를 했던 것이다.

그는 성년기의 대부분을 유고의 공무원으로 보냈다. 그의 외교관으로서의 경력도 다채로워 1941년 히틀러가 나치군으로 하여금 유고를 침범케 한 직전까지 나치독일주재유고 공사로서 있었으며 로마, 제네바, 마드리드, 베를린 등지에서 외교관생활을 하였다.

유고에서 이미 이름이 난 화가 미리카 여사가 그의 부인이다. 미리카 부인은 유고에서 제1인자로 일러진 무대 장치가인 동시에 의상디자이너이기도하다. 그래서 안드릿치의 거실에는 부인의 그림으로 벽이 장치되어 있다고 한다.

안드릿치는 조용하고 겸허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며 현재 고향인 보스니아 출신의 하원 의원으로서 성실하게 유고국회에 등청하고 있으며 취미로는 산책과 이웃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작품 속에 곧잘 등장시킨다고 한다.

★작품 「드리나강의 다리」

대다수의 문예 비평가들은 안드릿치

의 작품 가운데에서 「드리나강의 다리」를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해 왔다. 61년도 노벨문학상의 대상으로 안드릿치가 물망에 오른 것도 이 작품을 통해서였다. 「드리나강의 다리」는 파노라마식 소설이며 유고슬라비아가 터키에 점령 당한 이후 1차 대전 후까지의 유고슬라비아의 역사가 취급되고 있다.

이 「드리나강의 다리」는 동서가 서로 만나는 지점이며 이 다리의 역사가 곧 유고슬라비아의 방대한 서사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안드릿치가 그와 25년간의 친분이 있는 UPI의 벨그라드 특파원인 스토안 보라로 비크에게 “나의 작품은 우리나라와 나 자신에 관한 것뿐이다.”라고 말한 것도 「드리나강의 다리」의 작품 세계를 암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그의 소설은 모두가 고향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등장인물도 다양하여 승려, 상인, 직공, 모험가, 가정부인, 가톨릭 신자, 모슬렘, 유대인, 집시, 카바레 여급(女給)까지도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그의 작품의 하나의 특징으로서 대다수의 등장인물들이 모두가 불행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인생에 대한 강력한 동경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의 협소한 환경으로 인해서 불행한 인간상이 된다. 그래서 그가 취급하는 인간은 고민하는 군상이다.

그의 초기작품인 시는 모두가 지극히 철학적 탐구성을 보이고 있다. 1919년에 발표한 「Ex ponto」에 뒤이어 발표한 「불안」은 자연과 영원과 생명의 궁극적 탐구를 하려는 하나의 철학적 탐색이었다고 볼 수 있다.

건강관리(健康管理)

윤갑수(尹甲壽)



Health is better than wealth.

Health is great riches. 등의 서양 속담을 볼 때 건강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는 용이하게 알 수 있다.

돈이면 다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황금 이상으로 건강이 중요시됨은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건강을 잘 관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이 이상 더 어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나의 짧은 경험을 통해 볼 때 느낀다.

건강관리는 정상적인 면에서 규칙적 생활이 가장 으뜸가는 중요요소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생활이 규칙적 생활을 방해하는 수가 보통 있기 마련이다. 간단한 예로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마저도 생활환경이나 계절에 따라서 다르기가 일수이고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 채우고 깨우는 것을 규칙적으로 하여 습관화하기가 용이한 일이 아니다. 구경을 가거나 남의 집을 갔다가 늦게 돌아오면 잠을 늦게 자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허다하다.

오른편 손에 지식을, 왼편 손에 부귀와 명예를 가지라는 말이 있는데 권세와 부귀도 건강 없이는 그 행세와 귀중함이 사장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들의 심신에 결함이 있을 때 만사가 귀찮기만 하고 건강만이 그리워지는 것이 인간이다. 더욱이 어떤 신체적 질병에 의한 것보다 심리적 과로에서 건강을 해치게 될 때(심인성 질병) 건강에 대한 애착심이 어린 이가 배가 고프고 어머니 젖을 찾을 때와 같은 절실한 절박감을 금치 못할 것이다.

여기서 내가 말하는 건강한 신심의 관리란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특수한 체질과 기술을 가진 선수들의 건강관리를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는 수만 수십만 명 중 가장 특출한 사람을 나라 대표로서 전문적 기술연마와 특수한 신체관리에 의해 대표자격으로 파견되기 때문이다. 나는 정상적인 보통사람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여 능동적인 일에 지장 없이 장수할 수 있는가를 말하고자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규칙적 생활이 건강의 첫째 요소이란 즉 적절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 적절한 영양을 섭취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적절한란, 말로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말대로 실행함이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이 규칙생활을 위해 아침마다 테니스 경기에 취미를 가지기로 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도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테니스할 생각을 하면 과음을 피해 일찍 자기가 마련이다. 물론 나의 경우에는 테니스이지만 혹은 승마 혹은 아침 등산 혹은 산보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조기의 습관이란 규칙생활뿐 아니라 아침의 신선한 공기와 대기에 접할 때 그 상쾌함은 누구나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이러한 조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회원으로 동조자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회원은 2명이나 3명에서 점차 증원되어 나아가서는 20명이나 30명까지 불어갈 때 아침의 상봉이 습관화되고 생활화가 되지만 하면 그만이다. 내가 아는 친지들에 상기한 바와 같은 그룹들이 많다. 그들은 아침의 모임에서 자기 사업이나 정담을 교환하고 삶의 벼이 되기도 할 때 아침의 상봉이 간단한 신체적 건강만을 위한 뿐만 아니라 그 의의는 더욱 크다.

건강관리를 위한 신체적 견지에서 볼 때 중요함은 심장일 것이다. 이는 역시 전문의의 진단으로 각자의 특수성에 의해 조치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들의 신체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욕이 아닌가 한다. 식욕이 감쇄되었을 때 우리의 몸은 이미 고장이 나고 있으며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결정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욕의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위장의 관리와 이(齒)의 관리가 중요한 것이다.

옛말에 ‘미목수려(眉目秀麗)’나 ‘명호호치(明眸皓齒)’라고 하는 말이 있다. 눈동자가 맑고 이가 희어야만 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약(藥)이 되는 말〉

☆모성애(母性愛)

“저 딸아이는 틀림없는 제 자식이옵니다. 제가 저 자식을 낳아서 하도 살기가 간구해서 저 여자에게 맡겼던 것인데 저 여자가 지금 저 아이를 돈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나이다.”

“이제 저 여자의 말은 거짓말이옵니다. 전연 당치도 않은 말이고 제가 낳아서 제가 기른 자식이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은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다가

“아무튼 너희들의 말로서는 증거를 찾아낼 수가 없구나. 그러니 별 도리가 없다. 너희들 둘이 양쪽에 서서 그 아이의 팔 하나씩을 잡고 당겨서 이긴 편이 데려가기로 하여라.”

이리하여 두 여인은 그렇게 했다.

그 결과 제가 낳아서 제가 길렀다는 여인이 이겼다. 그는 득의만면(得意滿面)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 하였다. 이때 솔로몬 왕은 말하기를

“아니다. 너는 그 아이를 저 여인에게 돌려주어라. 너는 그 아이의 어머니가 아님이 분명하다. 어린 것의 아파하는 양을 보고 차마 잡아당기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린 이 아낙네가 진정 이 아이의 친어머니임에 틀림없다.”

이리하여 만장의 감격 속에 그 어린 아이는 친어머니 품에 안겼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인이 되기 위한 허를 말함이 아니고 식 욕과 건강관리를 위해서 가장 튼튼한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옛날부터 이와 장수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듣고 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인지 아침저녁 반드시 닦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인지 현재도 나이에 비해 건강한 이의 소유자로 자칭한다. 우리가 선진 외국인에 비해 육식이 부족함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전문의들 중 육식을 장려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약한 이의 친구들이 갈비 같은 육식을 할 때 건강한 이가 얼마나 신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뒷받침하고 있는가를 안다. 즉 건치는 건위(健胃)에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간단한 아침저녁의 이닦기를 실행 못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들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태만으로 짧게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우리는 목욕하는 습관이 건강관리를 위해 또한 중요한 점이라고 본다. 목욕은 신체의 청결도 필요하거니와 몸의 피로를 회복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격한 운동 후나 힘든 일을 한 다음 목욕하기 마사지 맨 손체조 숨쉬기 운동 같은 것이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다. 또는 여름철부터 차차 냉수마찰을 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르며 겨울철은 세수만이라도 냉수로 한다는 것은 건강관리에 좋은 약이다. 목욕은 매일하지 못하면 추운 겨울철이라도 손발만은 매일 씻는 버릇 또한 상쾌한 기분을 돋워 잠을 잘잘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가 평소애 이러한 사소한 일에 부단의 주의와 계속이 있을 때 10년이고 20년 후에는 그 효과가 뚜렷해질 것이다. 길을 걸어갈 때 가슴을 넓히고 당당한 모습으로 걷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차가 나는 것과 같다. 의자에 앉아 글을 쓸 때 우리는 학교시절부터 자세에 대한 주의를 받아 왔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고 또는 해침을 알면서도 실천하기가 어렵다. 끝으로 우리들이 건강관리란 나이에 따라 조정해야 할 것 같다.

내 경험에도 20년대 30년대 40년대 사십 고개를 넘어가니 벌써 20대나 30대 기분으로 주량이나 일에 대한 정열에 있어서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 우리가 때때로 젊음을 과시하는 친구를 보는데 젊음을 자랑 삼아 정열의 소모가 심한 사람은 나이가 가니 역시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각종 경기의 운동선수들이 힘의 분배 조정 없이 최종반전까지 잘 싸워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건강조정에도 반드시 젊음이나 장년이나 건강을 자기자신이 잘 조절 관리함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의 경우에도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이 이 조절이다. 조절 없는 기계는 고장이 빨리 오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도 기계처럼 조절이 잘 되고 있는 신체란 건강관리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기한 조절이란 비단 음식물 뿐 아니고 노동과 에너지의 조절도 포함함은 물론이다.

지덕체를 겸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체육회를 맡아보는 한 사람의 우견으로는 지덕에 앞서 우리의 건전한 신체를 관리할 수 있고 다음으로 지덕을 배양하여 완전한 인간창조를 기해야 할 것 같다.

체력이 곧 국방력에 직결되고 국민의 체력 향상을 꾀하는 현 정부시책이 국민전체에 요청되고 있는 이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자기의 건강관리를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대한체육회(大韓體育會) 전문이사(專務理事))

〈약(藥)이 되는 말〉

☆닭과 사환미(社還米)

가난한 농군이 사환미(나라에서 빈민에게 봄에 곡식을 꾸어 주었다가 가을에 받아드리는 곡식)를 먹고 갚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고을 원님이 불러서 물었다.

“가난해서 먹기는 먹어 놓고 갚을 길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시다.”

“자네 집에 곡식이 없으면 다른 거라도 있겠지.”

“있는 거라곤 닭 한 마리뿐입니다.”

“그러면 그 닭을 삶아 오면 내가 먹고 자네 곡식을 물어줄까?”

그 가난한 사람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관가를 물러나와 이튿날 원님의 말대로 닭을 삶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원님은 웃으면서

“어제 내가 한 말은 농담이니 그대로 가지고 가게. 원이 어찌 백성의 닭을 얻어먹겠는가?”

가난한 농군은 그 말을 듣고 딱한 듯이 그러나 그대로 닭을 들고 나왔다. 이 모양을 본 관속들이 물려와서 그만 그 닭을 뺏아서 먹어버렸다.

그러자 잠시 후 그 농군은 다시 원님에게 불리어 갔다. 원님은 말하기를

“다시 생각해 보니 자네에게 닭을 잡아 오라고 일러놓고 내가 자네를 속인 양이 되었네. 그 닭을 다시 가져 오게.”

이 말에 가난한 농군은 당황했다. 그러나 생각다 못해 방금 닭을 빼앗긴 사실을 고했다.

“그러면 잘 되었네.”

원님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되었다는 듯이 당장 아전들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농군의 사환미를 대납시키고 다음부터는 백성들의 물건을 빼앗아 먹지 못하게 하였다.

☆관물(官物)과 사물(私物)

이순신 장군이 선포(전남)라는 지방의 만호직(요지를 수비하는 무관직)으로 있을 때다. 전라좌수사로부터 선포병영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 보내달라는 전갈이 왔다. 전라좌수사가 탈 거문고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 나무는 관물이므로 어떤 개인이 쓸 수 없는 것이요, 또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의 뜻은 어떤 것이었으며 이 나무를 베려는 사람은 또 어떤 것인가?”

이순신 장군은 상관의 부탁이었으나 조금도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하고 사자를 빈손으로 돌려 세웠다.

새 역사의 창조는 우리 손으로

일병 송기택
<항공본창>



제3회 전 부대 대항 웅변대회
입선자 웅변원고
(주최 · 공본정훈감실)

오늘 여섯 번째의 국군의 날을 맞이하여 국군의 일원으로서 이날을 경축하게 됨과 아울러 여러분들 앞에서 이날을 기해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는 몇 말씀 올릴 기회를 갖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약과 부패와 무능을 일소코자 우리 국군이 선봉에 서서 성공리에 수립한 혁명정부가 처음 맞는 국군의 날로서 우리 군인뿐만 아니고 온 국민에게까지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회고컨대 수많은 애국선열의 순국의 혈로 이루어진 해방조국의 기쁨과 벅찬 감격의 환호성도 강대국들의 각축의 틈바구니에서 어디론지 사라지고 국토 양단과 민족분단이란 청천벽력을 만나야 했고 갈수록 태산으로 크렘린의 앞잡이요, 민족의 반역자인 김일성 도당의 불법남침으로 6·25 동란을 발생하게 하여 동족살상의 비극을 연출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를 가라앉히지도 못한 당시의 정부는 사리사욕에 급급하여 부패 조성을 일삼아 국민생활을 극도로 궁핍케 만드는 한편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며 나아가서는 국민의 신성한 선거권까지 침해함으로써 이것을 참다못한 정의의 학도들은 살아서 조국을 욕되게 하느니 보다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라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되찾아 조국 땅을 빛나게 하겠다고 수많은 학생들은 거리를 피로 물들이며 12년간의 독재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이리하여 4·19학생의거로 말미암아 손쉽게 정권을 잡은 민주당 정권은 진지한 민주국가 형성과 시급한 민생고 해결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가 하면 경제제일주의로 실업자에 빈궁을 얹어줬다고 호언장담 하였지만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민생고는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들 입에서는 “못살겠다!”는 소리가 더욱 높아졌고 사회질서는 더욱 혼란하여 젖으나 위정자들은 마이동풍(馬耳東風)인 양 하등의 대책도 없이 백주에 용공분자들이 용공평화통일론이니 용공 중립론 따위를 부르짖고 날뛰어도 심지어는 일부 학생들이 남북협상을 운운해도 공산침략의 위험성조차 분별치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두둔하는 경향조차 없지 않았으니 우리 조국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위기일발의 난국을 모면키 어려운 긴박한 고난기에 당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날의 부패했던 사회질서며 갖가지 악폐며 경제적 민생고가 하나같이 전 민족을 절망 질식케 하던 요인이었음을 새삼 회상하기조차 괴롭거니와 더욱이 이 땅에 부식 팽창해 가는 용공 세력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공산주의 위협에서 공포를 느껴야 했던 지난날을 돌이켜 볼 때 실로 비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직 조국과 민족의 이름으로 이어온 우리들이기에 종당 망하고야 말 것 같은 국사와 민족사를 어찌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죽음으로 나를 버릴 수는 있었을망정 더 이상 나를 위하여 피안의 대화처럼 잠잠할 수 없었으며 그대도 내 동포가 공산당 마수에 쓰러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고 그대도 내 동포가 공산 간접침략으로 노예의 땅에 허덕이는 백척간두 갈림길에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으며 자유민을 노예화하려는 공산 간접침략을 이 땅에서 영원히 말살시키기 위하여 우리 국군은 분연히 일어섰으니 대한의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주저하시렵니까?

만장에 계신 장병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새 역사 창조에 새 출발입니다. 광명의 햇불은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 백년대계의 터전을 닦기 위하여 모든 구약과 부정과 부패는 제거되고 건설한 재건의 토대가 마련되었으며 민주정치의 견고한 기초를 확립하는 혁명의 제2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의 대과업 수행에 있어서 군인은 우리의 의무가 재삼 중대함을 다시 느끼고 각오를 새로이 하며 과거 정치싸움 틈바구니에서 해이되었던 군인의 기본 정신을 바로잡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초개같이 바칠 수 있는 굳은 신념을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5·16혁명을 성취시킨 국군의 일원이라는 것과 또한 현하 군사혁명의 주체가 다른 사람 아닌 우리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상의 우리 의무를 망각함이 없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혁명대열에 앞장서서 숭선수범함은 물론 지금 산적되어 있는 벅찬 혁명과업 가운데서 가장 긴급한 우리의 당면과제는 전선에 공산 침략을 막아 내고 실지로 가까운 우리 주변에 유무형으로 침식해 들어오고 있는 공산 간접침략을 단호히 분쇄하기 위해 강력한 정신무장으로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국제정세는 험악할 대로 험악하여 베를린 문제를 낙관할 수 없는 실정으로 세계 제3차 대전이 도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국내적으로는 북한 괴뢰들은 무력침략에 의한 전용법을 탄 방식으로 전환하여 휴전 후 많은 간첩을 동서 해안을 통한 휴전선과 일본 조련계를 경유 계속 밀파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조장시킴으로 눈에 안 보이는 적화를 꾀하여 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도 적은 공산간첩과 아직도 사회의 어느 구석진 곳에 숨어 있는 용공분자들을 시켜 계속 우리의 대공 전열을 혼란케 할 위험성이 부단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간접침략 분쇄하자’는 구호 밑에 우리는 투철한 반공정신으로 국내에 숨어있는 적색 분자를 적발 처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평소에 철저한 훈련과 고도의 기술을 연마하여 일단 유사시에 모든 유감이 없도록 강력한 정신 무장으로 임전 태세의 완벽을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때까지 피눈물 나는 비애의 역사는 앞으로 웃음꽃 피는 명량한 세대가 불원간 전개될 것이요, 오늘까지 분열 상쟁의 쓰라림은 내일부터는 통일 상애의 환호성이 터져 나올 것 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 민족 대열의 앞장에서 당초 목적인 일체의 혁명과업을 숭선수범하여 우리들 자신이 비상한 결심과 각오를 갖고 확고한 지표와 승리의 신념 아래 위로는 참모총장님을 중심으로 아래로는 한사람의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일직단결하여 철통같은 반공 태세를 강화하고 구약과 부패를 일소하며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너도나도 충진군 합시다.

군복의 명예(名譽)를 지키자

하사 이석호
<제1 훈련비행단>

깡패를 소탕하고 거리를 청소한다고 혁명이 완수되는 것이 아니요 반공이다 멸공이다 외친다고 공산당이 모조리 죽어버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나라 이 사회가 혁명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와 대결해서 이길수 있는 우리의 실력을 배양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늘의 혁명을 각자의 혁명으로 성공시켜야 할 것입니다. 혁명 5개월 동안 과거의 방종과 무질서 부패와 부정의 낡은 껍질에서 일철의 구약의 뿌리를 뽑고 새로운 민족적 활로를 개척해 나갈 제1 단계의 혁명과업은 국민전체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어렵고 보다 중대한 문제는 이러한 외각적인 혁명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 쌓이고 쌓였던 사회악과 퇴폐한 국민도의와 원시적인 빈곤이 엉켜져 있는 이 어려운 조건 밑에서 자유와 복지와 문화의 방향으로 조국을 재건하기 위하여 극도의 인내와 비상한 각오와 최대의 희생을 다 하는 정신혁명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간성이요 혁명의 주인인 우리 장병전체가 우선 5·16이전의 구약폐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정을 보고도 못 본 체하고 비행을 듣고도 못 들은 체하던 어제의 군대가 아닙니다, 모든 군기의 규정은 계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장군이나 이등병이나 조종사나 보초병이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바친 사명의 가치는 만분의 일의 차도 없는 것이니 자기가 맡은 일은 공명정대하게 완수해야 하며 계급에 대한 우월감보다는 그것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있어야 하고 상관은 부하를 사랑하고 부하는 상관을 존경하는 인화단결(人和團結)의 정신혁명으로 조국 재건의 마지막 혁명완수에 국민의 전위대로서 애국애족심을 발휘하자는 것입니다.

자고로 한 나라가 잘되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훌륭한 애국자들의 열렬한 건설적 활동이 전개되는 법이요 반대로 나라가 망하려면 파렴치한 반역자들의 집요한 행패와 사리사욕이 득세한다는 것은 양의 동서와 사의 고금을 통하여 소연한 사실인 것입니다.

해방 16년 동안 범람하던 민주반역자들은 흡사 애국자의 가면을 쓰고 무수한 애국자들의 등상에서 피를 요구해왔고 소위 위정자들은 사리사욕과 정권쟁탈에만 골몰할 때 대한민국에는 날로 용공세력이 확장되고 국민은 기아와 절망에서 피투성이의 구원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육성하고 개화시켜야 할 민주주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군사혁명이란 불행한 일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민족을 위해서 자손만대의 번영을 위해서 위급한 현실에서 조국을 구원하는 것이 이 군복의 명예와 사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병든 뿌리에서는 병든 가지가 뻗을 수밖에 없고 이 병든 가지에는 역시 병든 잎이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의 병을 찾지 못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바라거나 생기 양양한 잎을 바라다는 것은 마치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시들게 한 근본 독소를 제거하지 않고 혁명이 완수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시들게 한 것은 우리와 하늘 같이하고 살 수 없는 공산당이요 간첩인 것입니다. 법을 짓밟고도 겁낼 줄 모르고 국가재산을 횡령하고도 양심에 가책을 받지 못하고 공산당의 총칼 앞에 이 생명을 두고도 걱정할 줄 모르던 냉각된 개인주의, 나 한 사람 나만 이 잘되어 보겠다고 권력에 아부하고 금력과 야합하던 더러운 이기주의 사상 이것이야말로 국가멸망의 암인 것입니다. 이러한 암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신혁명이 있지 않고는 열 번 백 번 제도를 뜯어 고쳐도 오늘의 혁명은 완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개의 ICBM이나 IRBM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 삼각산을 오르내릴 주먹만한 인공위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공산당을 이길 수 있고 삼천리강산을 좋은 나라로 재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포도 군함도 비행기도 아닌 진정한 민주신념이며 민족정기에 입각한 혁명정신을 관철하는데 있습니다.

혁명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인 것입니다. 말로만 혁명이네 신생활운동이네 할 때가 아니라 방첩 없는 이 일에도 혁명이 있어야 하고 미제나 일제품만 쓰고 싶어 하고 요정과 당구장에만 가고 싶어 하는 이 육체에 혁명이 있어야 하고 정의 앞에 비겁하며 사리사욕에 더럽힌 이 양심에 혁명이 있는 날 이 땅 위에 통일이 오고 광명이 오고 혁명은 완수되는 것입니다.

<3등>

낙원은 눈앞에 놓여 있다

병장 홍문표
<기술교육단>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동물의 하나인 KOREA!’

그 동물 다시 한 번 커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고 한 인도의 유명한 타골의 시 한 구절이 혁명과업 완수에 일로 매진하는 희망에 찬 여러 장병들의 씩씩한 모습을 대함에 이 젊은이의 머리 속에 삼스럽게도 기억이 납니다.

장병 여러분!

이 시 한 구절 가운데 5천년의 유구한 흐름 속에서 위대한 빛을 남긴 선조들의 거룩한 업적과 장차 아름답게 건설될 한국강산의 낙원이 이룩될 것을 한꺼번에 담백 예언해 준 듯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정의를 위하여 무참히도 죽어간 4·19의거 학생들의 숨 가쁜 마지막 외침!

그들의 숭고한 피를 짓밟아 버린 장(張) 정권의 흑독한 잔인성과 무능함을 송두리째 뽑아버린 역사적 5·16 군사혁명!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피눈물 나는 노고를 아끼지 않는 혁명정부의 초인간적인 성스러운 이념 등이 모두가 예언된 이 시구의 이루어짐이 어찌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으나 우리민족은 비참한 곤경 속에서 태양을 잊어버린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부모를 잃은 고아와 같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어린 사슴과도 같았습니다. 몹시도 고달파서 휴식을 그리워하고 편히 누울 안식처를 찾는 피로한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휴식을 얻지 못하고 안식처를 찾지 못한 채 어둠의 폐허된 황야에서 방황하며 흉악한 이리떼들에게 늑탈되어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서 생명마저 위독한 상처투성이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비참하고 불쌍한 백성을 그대로 버리지시는 않았습니다.

자손만대 영원히 찢지 못할 비겁하고 나약한 조상이란 가슴 아픈 수치를 면케 되었으니 잠자던 이 백성에게 유린된 이 민족에게 혁명으로서 찾은 저 밝은 태양은 찬란하게 비쳐 왔으며 자유와 평화를 구가할 신천지를 창조한 까닭입니다.

혁명의 태양이 동터 오른 지 불과 5개월이란 짧은 기일이 겨우 굵이쳐 갔지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새로운 역사를 움트게 한 자랑스럽고 웅망스러운 일을 한 것입니다.

불모의 거친 덴마크의 히이드 황야를 ‘신은 황무지를 선물로 주셨다’란 모토 아래 용기의 시금석으로 덴마크 국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바꿀 수 없는 오늘의 낙원을 건설한 사실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략)

우리의 국토는 덴마크의 히이드 광야처럼 초목마저도 자라지 못하던 음산한 하늘밑의 황막한 광야는 결코 아니며 살을 에어 내는듯한 찬바람만 이 휘몰아치는 툰드라의 시베리아 별판은 더욱 아닙니다.

과거 정장 모리배들의 철면피한 수단과 교활한 개나팔로서는 도저히 개척할 수 없는 황무지로 버림받은 백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새 역사의 밝은 아침 해가 이미 동터 올라서 어둠속에서만 광란을 부리던 도깨비들이 봄눈 녹듯 사라진 지금, 다만 우리들의 앞에는 무지개처럼 찬란한 희망만이 용솟음 칠 뿐입니다.

여러 장병들이여!

젊은 새 나라의 일꾼들이여!

아니 삼천만 나의 사랑하는 애국동포들이여! 줄던 눈을 크게 뜨고 저기 내다보이는 평화의 보금자리를 바라보시라!

그 낙원은 멀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여러분은 그 낙원을 원치 않는가? 원한다면 왜 주저하는가?

자! 여러분!

양손과 양발에 힘을 모아 보라.

백두산정기를 받고 태어나신 단군의 피가 여러분의 염통으로부터 끓어 나오고 있지 않은가. 우리들의 갈 길은 밝게 보이고 있다.

우리들이 안타까히 바라고 기다리던 편안한 안식처는 바로 눈앞에 놓여 있다.

우리들의 앞에는 오직 진진만이 있을 따름이다.

이제 그곳에 가서 오랫동안 피곤했던 심신을 마음껏 휴식시키자.

당면한 순간적 고통, 한마디의 달콤한 붉은 미수들의 유언비어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우리의 임무인 국토방위에만 온 정력을 기울이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나태와 비협조와 반혁명정신 배타적 독선적 행위가 움터 오르는 건설의 새싹을 무참히도 짓밟아 버리는 매국노를 만들어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지옥과 같은 비참한 죽음을 택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현실에 만족하여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여 우렁차게 울려오는 혁명의 행진곡에 발을 맞추어 ‘간접침략 분쇄하자’란 구호 아래 한손엔 함마와 팽이를 힘차게 잡고 다른 한손엔 혁명 정신의 불화를 높이 들어 히이드의 황량한 불모지를 개척한 저 덴마크의 용사들처럼 우리 눈앞에 찬란히 보이는 타골이 예언한 복지의 나라 신이 축복한 평화의 낙원을 향하여 너도 나도 다 같이 총 진군하자.

자수성가(自手成家)

전숙희(田淑禧)



세상에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숨은 에피소드가 많다.

남이 밥을 먹고 누워 잘 때 그는 밥 대신 콩을 볶아 허리춤에 달고 다니며 한 움큼씩 요기를 하고 남이 잠을 자고 노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를 했다는 얘기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짠 굴비 한 마리를 달아 매놓고 보리밥 한술 떠 넣고는 것을 쳐다보고 꿀떡 넘기고 또 쳐다보고는 한술 떠 넣고 해서 반찬 없이 맨밥만 먹고 돈을 모았다는 등 온갖 공상맞고도 유머러스한 얘기가 얼마든지 있다. 그 많은 얘기들을 종합해볼 때 요는 자기 힘으로 빈주먹 들고 성공을 한다는 일이 보통일이 아니라는 것 즉 남이 하는 대로 할 일을 다 하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비범해야만 한다는 것, 또 그렇게 비범하기 위해서는 천신만고 온갖 고초를 각 오하고 참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일깨워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자기가 피땀 흘려 고생하지 않고도 부모가 벌여놓은 재산이 많아 대대로 지주노릇이나 해가며 아버지의 유산으로 일생을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동양이고 서양이고를 막론하고 흔히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예외에 속하는 이야기고 또 유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산을 잘 유지하고 성장시켜 나간다는 일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내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금언처럼 일러 주시는 말씀이 있다. 즉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없어진다는 것, 자기가 피땀 흘려 얻은 소득이라야만 그만큼 유용하고 가치 있게 쓸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나는 가끔 이 말씀을 되씹으며 반성해 본다. 또 내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정신을 불어 넣어주려 애쓴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 공 들이지 않고 쌓은 탑은 가벼운 비바람에도 쉽사리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한 개인이나 한 가정에만 부합되는 얘기가 아닐 것이다.

국가적으로 볼 때 특히 우리 국가처럼 남의 힘으로 독립을 하고 온갖 고초를 겪고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야말로 신중히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혁명이후 가끔 위에서 말한 자수성가란 말을 생각해 보곤 한다.

혁명전까지 우리들의 생활은 너무나 안일하고 나태하고 또 사치스러웠다. 우리 피를 흘리지 않고 남의 힘으로 독립을 얻고 막대한 외국 원조로 살아온 우리들은 마치 열빠진 바보 자식이 아버지의 유산으로 세상 모르고 진탕 아무렇게나 살아오다 일조일석에 파산을 당하게 되면 꼼짝 못하듯 거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었었다.

혁명 후 이제 사방에서 국토건설을 서두르고 외래품의 판매 금지와 생산 장려, 문맹퇴치, 건전한 교육제도의 쇄신과 아울러 강력한 국민의 정신 무장과 인간성 개조를 지향해 날마다 박력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을 보며 나는 진부한 어휘지만 자수성가라는 분위기를 느껴본 것이다.

맨주먹으로 힘과 정신력만 가지고 일가를 남보다 잘 살게 이루어 놓은 옛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 이것은 옛이야기도 아니고 남의 이야기도 아닌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인 것이다.

부산하고 생기 있게 노력하고 인내해 가며 하나하나 건설해 나가는 우리들은 틀림없이 자수성가를 목표로 한 착하고 건설한 이 나라의 아들딸들이다.

이에 따라 각 가정의 생활 역시 최대한 절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나의 경우를 예로 한다면 우선 두 사람을 쓰던 식모를 하나로 줄였다(주택 시설만 편리하다면 하나마저 없애고 싶은 심정이다).

또 해마다 철철이 새 옷을 사 입어야만할 줄 알던 생활을 고쳐 헌 옷들을 손질해 입기로 했다.

농속과 트렁크 속에 처박아 두었던 옷들을 모조리 꺼내 해를 쬘고 기를 것과 고칠 것을, 또 세탁할 것, 염색을 새로 할 것 등을 골라내고 보니 이렇게 손질해 입는다면 아직도 십년은 걱정 없이 입고 살 수 있는 의류가 충분한 데 새삼 놀랐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철마다 유행을 따라 모양과 색깔이 맞는 새 옷을 해 입어야만 될 줄 알던 마음이 도리어 이상하게 여겨졌다.

이것은 나만의 경험담이 아니다. 많은 친구들이 같은 느낌을 얘기했다. 새 옷을 사드리고 사치스러운 장신구를

링컨과 선거운동비

링컨이 미국대통령이 되기 전 이야기다. 주회의원에 출마한 링컨에게 당에서 선거운동비로서 겨우 200달러를 보내왔다. 그러나 지극히 가난한 그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 그 선거운동비 중에서 75센트를 제한 199달러 25센트를 당본부로 돌려 보내왔다. 여러 당원들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로부터 보내온 다음과 같은 편지 사연을 읽고 모두들 머리가 수그러져 버렸다.

‘산거연설 회장비는 내가 주었고 또 여러 회장까지 돌아다니는 데는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별 비용이 들지 않았소. 다만 유지 중에서 목이 마르다는 분이 있어서 사이다를 사준 것이 75센트 들었을 뿐 그 다음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고 무난히 당선되었소.’

모두들 인간(人間)은 태양(太陽)을 안고 불타 오른다

박거영(朴巨影)

검은 손길이
유리창 안으로 기어든다

정적은
죽음보다 무서운 것

그리하여
인간은
푸른 하늘을 모색한다

그것은
죽음을 포기하고
생명과 욕망을 가지려는 것

또한 그것들을
징벌하는 권리를 가지려는 것

그 때
인간은
최초의 미소를 던져오는 것이다

여기 정말로
미련과 젊음이
물결처럼 솟구쳐 오르고 있으니

아
깃발이여
깃발이여

모두들 인간은
태양을 안고 불타 오른다

장만하기 위해 마음을 태우고 또 그것들을 얻었을 때의 기쁨이 공중에 뜰 것 같은 허한 기쁨이었다면 현
것을 재생해 가며 절약하고 건설하게 살 토대를 마련하는 기쁨은 오히려 땅 위에 발을 굳게 디딘듯한 든든
한 기쁨일 것이다.

사람의 행복감이란 마음먹기에 달려 어디든지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오막살이에 보리밥 한 덩어리로 배를 채워도 고무거각에 살며 고민에 쌓인 사람들보다 오히려 마음 편하고
떳떳하고 행복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궁한 것과 가난하다는 것은 다르다. 가난할지언정 궁상맞은 것은 싫다.
이것은 각자의 마음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마음이 윤택하고 풍성한 사람은 아무리 돈이 없어 가난하게 산
다 해도 궁기가 끼어 보이지는 않는다. 가난하나마 뜻이 높은 곳에 있고 희망을 지녀 겸손하나 천하지 않은
자, 이것을 가리켜 청빈이라고 하지 않을까.

궁상맞다는 것은 백만장자에도 있을 수 있다. 제 아무리 경제력이 풍성한 사람이라도 마음자리가 풍성치 못
한 사람은 어딘지 궁기가 있어 보인다.

온 겨레가 한데 뭉쳐 자수성가의 비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우리 각자는 마음의 무장을 가다듬고,
그러나 마음만은 가난하지 않게 각자가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필자(筆者)·수필가(隨筆家))

십대(十代)의 직업(職業)

최이순

<구두 닦이>

슈우사인 보아- 이는 확실히 십대 소년의 직업이다. 도시생활을 하는 빈민층의 생계유
지를 위한 10대 소년들의 효성에서 생겨진 것인 양 서울에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번
화한 거리에서나, 다방의 입구에서 큰 기관의 현관 앞에서나 심지어는 학교서까지 볼 수
있는 형편이다.

이 구두닦이의 직업이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된 것은 8·15 해방 이후의 일로 연합군의 수
입품(?)인 줄로 생각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슈우사인 보이는 특수층에게만 필요했던 사
치로 느껴졌지만, 요즘은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것처럼 느끼지 않나 생각된다.

하긴 요즘처럼 피혁의 공업이 발달되어 신발은 구두의 대명사로 지칭되고 있는 도민의
생활 속에서 구두를 신은 사람이면 으레 50환을 주고 멋진 윤택을 손쉽게 낼 수 있는 방
법을 안다는 것쯤은 보편화된 상식이고 보면, 날로 구두닦이가 증가된다는 것은 필연적
인 현상일 것이다.

우리는 구두닦이 소년들의 미담을 종종 듣게 된다. 배움에 주린 10대의 소년들이 낮에는
구두닦이로 돈을 벌고, 밤에는 야학에서 공부를 한다는 가혹한 마음씨나, 꺾추 된 몸을 고
쳐 보겠다고 이를 악물고 구두를 닦아 푼푼이 모아 수술비를 마련하였다는 아름다운 이
야기나, 빈한한 생계를 위하여 지기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사실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눈
시울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다.

그러나 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이들은 너무나도 버림받은 가난의 사생아들이다. 인정에
서 학대받은 한국의 흑인은 아니겠지만 너무나도 닳은 데가 많다.

번잡스러운 서울의 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진풍경의 하나가 젊은 청년들이 맑게 갠
대낮대로(大路) 상에서 버젓이 앉아 구두를 닦고 있는 모습이다. 이마에 구슬땀을 흘려가
며 두 손이 날쌔게 움직인다. 닦고 또 닦고 하여 이윽고 구두에서 검은 윤택이 난다. 그
러나 젊은이에게는 인정이 없다. 소년의 가련한 모습에는 아예 아랑곳할 배 아니고, 구두
의 윤이 문제이다.

참으로 쓴 웃음을 지우지 않을 수 없는 딱한 사정이다. 소박한 민족성을 가진 이 겨레에
게 언제부터 이런 악취미가 붙었고, 사치스런 생활을 좋아하게 된지 모르겠다. 우리의 경
제적 사정이 이를 용납하기에는 너무도 인색할 텐데 말이다.

더욱이 대학생들에게서도 이런 폐풍은 번져가고 있다. 오히려 구두 통을 메고 구두를 닦
아서라도 학비를 자조 하여야 할 입장에 놓인 계층이 바로 한국의 대학생이 아닐까 생각
하여 본다.

요즘 수입 내 지출의 국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지 오래이다. 우리는 호사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난 내핍의
생활로 지향하여야 되고, 그 방법은 극히 적은 데서부터 옮겨 큰 곳으로 옮겨야 할 줄 안다. 자기의 구두는
자기가 닦아 신을 줄 아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여 근면하고 검소한 생활의 신념을 실천으로 지켜야만 한다.
시궁창에 디딘 발로 이상만을 꿈꾸지마는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현실에서 근면하는 생활신조가 요
청되고 있다.

10대의 소년 앞에 구두를 닦으라고 내미는 사람들의 생각도 한심한 일이겠지만, 10대의 장도를 위하여서는
좀 잔인스러운 이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여차장>

시내 버스에 여차장을 등장시킨 때부터 늘 느껴 오던 생각이지만, 10대 소녀들의 실업자 구제 방법이 아닌
이상에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느껴온 것이 바로 이 10대 여차장제이다.

나는 그 이유야 어떠한지 간에 결과적으로 보아 여차장 문제는 이 나라 여성 교육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
제이며, 이 나라 제2세의 가정교육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생지옥의 교통난은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루고 있는 차장에게는 더욱 큰 고역이 아
닐 수 없을 것이다. 번잡한 출퇴근 시간이 아니더라도 밀고 닦치고 하는 아우성 속에서 소리소리 지르는 여
차장의 생태를 한번 상상하여 보자.

무리하게 태우는 여차장의 심사도 고약하긴 하지만, 출근 시간에 늦을까봐 억지로라도 타 보겠다고 악착
스럽게 덤벼드는 승객들의 엄치도 곤란하다고만 단정하기는 현실이 용납할 것 같지 않다. 이러한 현실 속에
서 승객들은 여차장에게 갖은 불만과 심지어는 욕설을 퍼붓는다. 그리하면 여차장은 자기대로의 대꾸를 한
다. 오고가는 말씨는 심히 아름답지 못한 형용사뿐이다. 하필이면 이런 말들을 10대의 소녀들에게 가르쳐 줘
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다.



새

박남수(朴南秀)

새들이 돌아왔다.
햇볕의 시력에서가 아니면
즐겁지 않은
새들이
처마 끝으로 돌아왔다.

아침에
날아 갈 때는

모두 뿔는 별으로 뿌려져
노랑고
붉은
부리로, 별방울 같은 소리들
뻗고 있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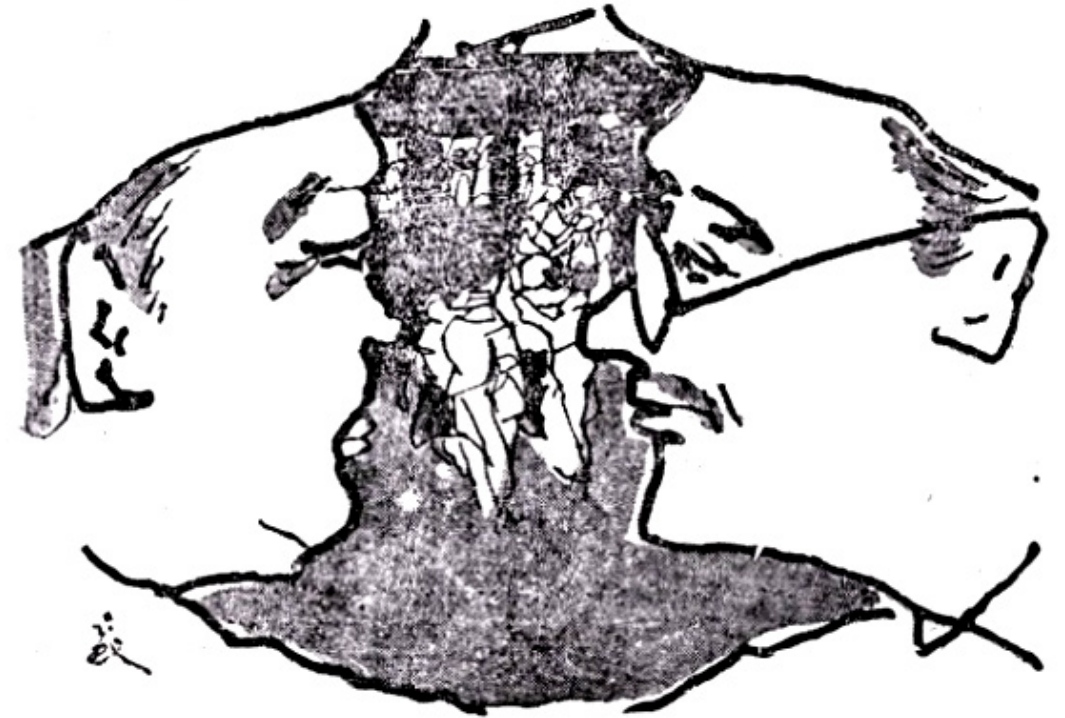
가뭇게 그슬린 하늘에
뿌려진 천상의 새들이
신의 실수를 웃고 있는 동안은
날개에 묻은 별들을 털면서
하늘로 날아 갈 아침을 위하여
지금은 밤을 잔다.

어디까지나 여성의 미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품위가 있는데 있다. 여성은 반드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숙명이 있다. 아직까지는 불안정 되고 사회 조직이 체계화되지 못하여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네들의 현실이기는 하지만, 10대의 소녀들에게 주는 직업치고는 맞지 않는 것이 여차장일게다. 물론 외국의 예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시간을 요하리라고 믿어진다.

인간의 발육에 있어서 10대의 심리적·정신적 육체적인 성장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교육 문제이다. 더욱이 여차장의 직업을 택한 이들은 가정적인 경제 사정이 교육을 받을 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여차장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는 이들의 성격에 큰 결점과 장애를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사회제도는 10대의 소년이나 소녀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구상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버림받고 제멋대로 자란 나무가 쓸모가 없듯 이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의 원리는 적용되는 법이다.

가끔 버스를 탈 때마다 나는 이들 10대의 소녀들에게 이 고역을 담당시키지 않는 사회가 오기를 바라고 있다. 참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하여 봐야 할 사회문제 같다.

(연세대 여학생 처장)



<단권소설>

가을하늘보다도

추식(秋澍)

변선생(邊先生)은 혼자 신이 돌아 안절부절 했다.

(강박(姜博)이란 놈, 이걸 보면 기가 죽어 가지고는 그래도 부러워서 군침을 삼키렸다.)

우선 그런 생각만으로도 여간 고소하지가 않았다. 전번에 그런 편찬을 먹은 강박에게 이제 오금을 줄 수 있게 된 것은 천우신조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재수치고는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

“이봐 이게 입상(立像)으로 빠졌다는 것이 기가 막히거든……. 모르는 사람에는 이걸 왜불(倭佛)이라고 할거야……. 이건 중국 부처지. 글썄 이걸 거리로 끌고 나와, 준다는 말에 절을 열두 번이나 하다니 히히히.” “아따 펍도 좋겠수…… 밤낮 어디 가서 그따위 추접스러운거나 주워 가지고 와선 혼자 야단이지…….”

“이젠! 어디서 그런 말버릇을…… 이봐, 이걸 보란 말야. 이 눈매가 이렇게 조각된 불상(佛像)을 본 적이 있어?”

변선생은 마누라의 경솔한 입버릇을 나무라고는 새로 사온 청동 부처의 눈매를 사뭇 신기한 듯 어루만졌다. 당장에라도 싸들고 가서 강박에게 한바탕 자랑을 늘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처지가 못된 것이 서운했다. 강박하고는 그 때 입다툼을 한 뒤로 짝 발길을 끊고 만 것이다.

본시 강박 하고는 그렇게 시시하게 의절을 할 처지는 아닌 것이다. 젊어서부터 서로 숨김없이 털어놓고, 네 것 내 것을 별로 가리지 않고 지내는 친구다. 세상에서 강박하면 변선생을 바늘에 실처럼 늘 함께 곱는다. 아주 명난 호주(豪酒)요, 킬킬한 성품에 강박이라는 별호가 불을 만큼 박물군지인 그와는 판판인, 술도 안하는 꼬장 뱅이에 한가지 밖에는 모르는 고집불통 변선생이 그처럼 막역하게 지낸다는 것은 희한한 일이었다. 그들 사이에 통하는 것이 있다면 골동품 수집에 대한 취미라고나 할까?

젊어서부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강박과 변선생은 골동품 수집에 거의 발 벗고 나서다시피 했다.

강박도 이제 신문사의 논객(論客)도 그만두고 은거하다시피 하면서 술 추념과 골동품 감상으로 소일을 하고 있다. 몇 해 전까지도 강박이 붓대를 들면 정책이 흔들린다고 하던 그 패기도 이제 사그라졌다. 그저 유 유자적하는 은퇴생활이다.

변선생도 끝까지 늘어붙어 기를 짜던 교장직을 물러났다. 정년퇴직이 된 것이다.

그쯤 되었으니 이제 서로 아끼면서, 조예를 쌓아올린 골동품이나 서로 만지며 푸근히 지내면 될 것을 마치 어린애들 같은 입다툼으로 발들을 끊고 만 것이다.

“아니 이 늙은이야, 그래 이 걸레 쪽을 어디다 내놓으려고 샀냐? 호호호 자네 혹시 이거 흥란(興蘭)으로 알고 허발한 것 아닌가?”

변선생이 황재나 한 것처럼 사들여 자랑삼아 펼치는 족자를 보자 강박은 험구를 떨고 외면했다. 변선생은 금새 안면근육이 바르르 떨렸다. 그래 정말 눈이 빠졌기로서니 흥선대원군의 난초도 분간 못할 멍청이란 말인가? 피차에 늘어가면서 혹시 실수가 있기로서니 그렇게까지 비양을 하는 강박이 괘씸했다.

그런 대수롭잖은 꼬투리로 변선생과 강박은 거의 몇 달 장간이나 왕래를 끊었다.

영감들의 그런 갈잡은 실랑이 때문에 실상 애를 태우는 것은 변선생 부인이다.

(저 늙은이들이 저러다가 영 틀어져서 파혼이라도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쩌냐?)

하는 격정이 앞서는 것이다.

강박의 둘째아들 인구(仁求)와 변선생 집 외동딸 경원(京媛)이는 약혼한 사이다. 그 혼담 역시 어느 쪽에서 먼저 꺼냈는지도 모를 만큼 지극히 자연스럽게 여몰어 약혼식까지 올랐다.

변선생과 강박이 서로 진기한 골동품을 캐내서 자랑을 하는 것과는 달리, 요즘 인구와 경원은 한 가지 물건을 장만하는데도 미리 상의를 하고, 같이 나서서 골라 들인다. 물건이라는 것 역시 늙은이들이 혼탁을 하고 그런 늙스런 것이 아니다. 토스트가 제대로 구워지면 자동식으로 뚜껑이 열리고 쟁반에 받쳐 나오는 전기 토스터 같은, 말하자면 문화생활에 절대 필수품인 번쩍번쩍 하는 것들이다. 공군장교인 인구의 안목이나, 불문학을 전공하고 여학교서 교편을 잡는 경원의 이상이나 골동품의 권위자들과는 판이한 것이 있다.

“여보, 그렇게 하다가 영 굳어지기 전에 강박사님 청해서 술이나 한 잔 권하고 서로 푸슈. 괜시리 그럴 것도 없는 걸 갖고……”

“뭇 땀에 내가 술을 사고 사과를 해! 내가 뭘 잘못 했단 말야……”

“아따 무슨 잘잘못을 따지라는 게 아녀요. 아이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우?”

“이건 알지도 못하고!”

“글쎄 다 알아요. 그렇다고 사돈 간에 사뭇 그렇게 지낼 수는 없잖수.”

“사돈이 무슨 사돈야!”

“어마! 그럼 누가 사돈을 삼았수 호호호.”

부인은 하도 어이가 없어 한바탕 웃고는 영감을 또 어린애 구스르듯 했다.

“애들은 내일이라도 식 올릴 준비를 다하고 어른들 눈치만 살피고 있는데……”

“서두를 것 없어!”

외고집인 변선생은 진심으로 하는 소린지 어쩐지, 혼인문제도 재고해야겠다는 말투다. 그럴수록 부인은 속이 탔다. 똥똥 뭉치기만 하는 변선생의 노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은 채 거의 너덧 달이나 강박과 대면을 안했다. 생활 설계와 아기사자기한 데이트로 그저 즐겁기 만한 인구와 경원이는 아버지들의 그런 내막을 통 모르고 지냈다. 그러다가 결국은 경원이가 눈치를 채게 된 것이다. 공중전시가 있는 날 아침상 머리에서였다.

“아버지, 오늘 어머니랑 한강에 나가세요. 좀 일찍 가셔야 될 거예요.”

“한강에는 칠늦게 왜?”

“아이 아버지두…… 오늘 행사가 있잖아요?”

“행사?”

“아이구 딱하기도 하우. 아 오늘 공군에서 비행기 제주하는 행사가 있잖우……”

“……”

부인도 계제가 잘됐다 싶어 옆에서 거드는데도 변선생은 실쭙하니 외면을 한다.

“난 누구와 만나기로 해서 안 간다.”

“아따 고집도 쫓쫓쫓. 사위애가 오늘은 우리 내외도 꼭 나와 구경을 하라드래요.”

“글쎄 바쁘다니까!”

변선생이 버럭 역정 내는 통에 경원은 눈치만 살피다가 시무룩하니 일어섰다.

“애 너의 아버지는 강박사님하고 틀어져서 그런다. 저러다가 정말 어쩌려고 그러는지……고집 부릴 일도 아닌가 보던데……”

변선생 부인은 딸에게 변명 비슷하게 소곤거리고는 혀를 찼다.

“여보, 오늘 사위애가 제트기를 타고 재주를 한 대요. 온 장안이 들끓어 한강으로 몰리는데 정작 우리가 안 가셔야 되겠수……”

변선생 부인은 경원이가 휘잉하니 간간 뒤에도 영감을 또 한 번 어린애 구스르듯 했지만 그럴수록 더 고집을 부리고 나쳤다.

“임자나 가구려. 난 바쁜 일이 있어 못가.”

하고는 모자를 털어 쓰고 마른기침을 고르면서 골목으로 나가버린다. 부인은 영감이 땀쌀 꽃기도 하고 속으로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티 하나 없이 유리알처럼 맑고 시원한 하늘. 바쁜 일이 있다고 큰소리 치고 집을 나서기는 했지만 실상 갈 곳도 마땅찮은 변선생이다. 오늘따라 골동품 가게를 뒤져보고 싶은 생각도 내키지 않는다.

공중전시는 오후 두시부터라고 하는데 거리는 아침부터 쭈알거린다. 노랑진 방면의 전차에 매달리려고 가위 결사적으로들 덤빈다. सू세 전차를 단념한 패들은 부지런히 한강 쪽으로 발길을 서두르고들 있다.

(마누라쟁이 하고 택시라도 한 대 잡아타고 빠졌이 갈 것을……)

어느 틈에 행렬에 끼어 한강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 변선생은 자신의 속아지를 나무라면서도 그런대로 남들 일에게 위신을 세우느라고 마른기침을 고냈다.

(강박은 제 생일이나 당한 것처럼 거들먹거리겠지……)

변선생은 열을 지어 달리는 자동차 떼에서 강박의 눈길이나 쓸리지나 않을까 싶어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 복판에 숨다시피 하고 추군추군 걸었다.

삼각지 쪽으로 접어들면서부터 사람들의 물결은 헤칠 수가 없었다.

(이사람네야, 다른 사람들은 못봐도 나는 꼭 좋은 자리에 앉아 구경을 할 권리가 있는 사람야……)

변선생은 속으로 그런 소리를 두런거리듯 하면서 군중들 틈새에 버텼다.

“와아!”

“와아아!”

비행기의 폭음이 밀려들자 관중들은 함성을 올린다. 쇼는 순서에 따라 관중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호호! 헛!”

쇼 플라이 팀의 뒤집기, 배지기, 솟구치기, 곤두박이 등 아슬아슬한 곡예가 벌어지자 변선생은 저절로 입이 벌어지고“허어! 허어!” 감탄이 터졌다.

(사위 녀석은 어떤 비행기를 타고 있냐? 제길 이럴 줄 알았으면 경원이한테 자세히 얘길 듣고 올 걸……)

마이크에서 전하는 설명도 관중들의 두 세 거리는 소음 때문에 똑똑히 들을 수가 없다.

(어쨌든 모두가 훌륭한 재주야! 저녁에 마누라쟁이한테 물어보면 사위 녀석이 무슨 재주를 부렸나 알 수 있겠지……)

변선생은 차일을 치듯한 관중들에게 큰소리로 사위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것을 참으며 사뭇 입만 벌름거리는데 누가 옆구리를 꼭 지르며 손을 덥석 잡는다.

“어!”

“혼자 왔냐?”

“영 다 왔지!”

”난 그만 뒤늦게 와서 식구들을 못 찾겠어”

“나도……거참 장하군.”

변선생은 강박한테 잡힌 손에 힘을 주고 또 공중을 추켜 본다.

”자네 굉장한 거 샀단군!”

“어떻게 아냐?”

“봤지.”

“……”

“자네 집에 다녀오는 길야. 늙은이 어지간히 서두르고 나갔기에 부처만 보고 왔지. 거 굉장한 거는데.”

“똑똑히 봤냐? 난 아무래도 왜몰이 아닌 것 같은데……”

“왜몰이라니! 자네 참! 명불(明佛)야 이 사람야! 어쩌다 그런 것이 이 늙은이한테 걸렸을가 참!”

“옛기!”

변선생은 강박의 험구도 비위에 거스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비양이 호뭇하게 들리기도 했다.

“자네 내 집에 같이 안 갈라냐?”

“술 사출래?”

“그래 마누라쟁이가 술 받아준다고 널 끌고 오라드라.”

“그럼 가자지. 꼬장뻥이 늙은이야 밍지만 사부인 초청이라면야……”

“그 놈의 주둥아린!”

“허허허허!”

“허허허허!”

두 영감들이 호들갑스럽게 웃는데 또 천지를 진동하는 폭음이 뒤덮는다.

“내 날썰 잡았지.”

“무슨 날썰?”

“아, 애들 혼인 날썰 말야.”

“아니 건 자네 말대로 하는건가?”

“그럼, 자네 아무 날이고 내가 보내라면 보냈지 별수 있나. 허허허.”

“거 참, 별 못된 놈의 늙은이 하고 사돈을 맺고……”

“이 사람이 이 많은 관중들에게 물어 보게. 나하고 사돈을 삼은 것이 영광인가 손해가 한번 물어보란 말야 허어 허허허!”

“아따 바로 제 까짓게 비행기라도 탄 것처럼 허허허허!”

말문이 막힌 변선생은 그냥 따라 웃는 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가을 하늘보다도 더 개운했다. 끝-

<약(藥)이 되는 말>

★명해몽(名解夢)

고려시대 어느 산촌에 해몽을 잘 한다는 늙은이가 있었다. 그런데 이웃에 사는 짓곳은 청년이 이 늙은이를 골려주려고 어젯밤에 돼지꿈을 꾸었으니 해몽해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늙은이 해몽해서 말하기를, 오늘은 먹을 것이 생기리라 했는데 과 연 출가한 누이가 떡을 해왔다. 청년은 이튿날 또 돼지꿈을 꾸었다고 거짓말을 했더니 오늘은 옷이 생기리라 했다. 과연 처가에서 옷이 한 벌 생겼다. 청년은 그 이튿날 또 돼지꿈을 꾸었노라 했더니 오늘은 꿈짜 말고 집에 있으라는 것이었다. 밖에 나가면 매를 맞는다는 것이다. 청년은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어둡사리가 끼어들 무렵에 길가에 나갔다가 어떤 한 무리의 사람으로 부터 오인되어 매를 맞았다. 늙은이 해몽해서 말하기를, 돼지란 놈이 울면 처음엔 배가 고파 운다고 먹이를 준다. 그래도 울면 추워서 운다고 덮어준다. 그래도 또 울면 미워서 두들겨 주는 법이라고.

★안내인(案內人)과 전기(電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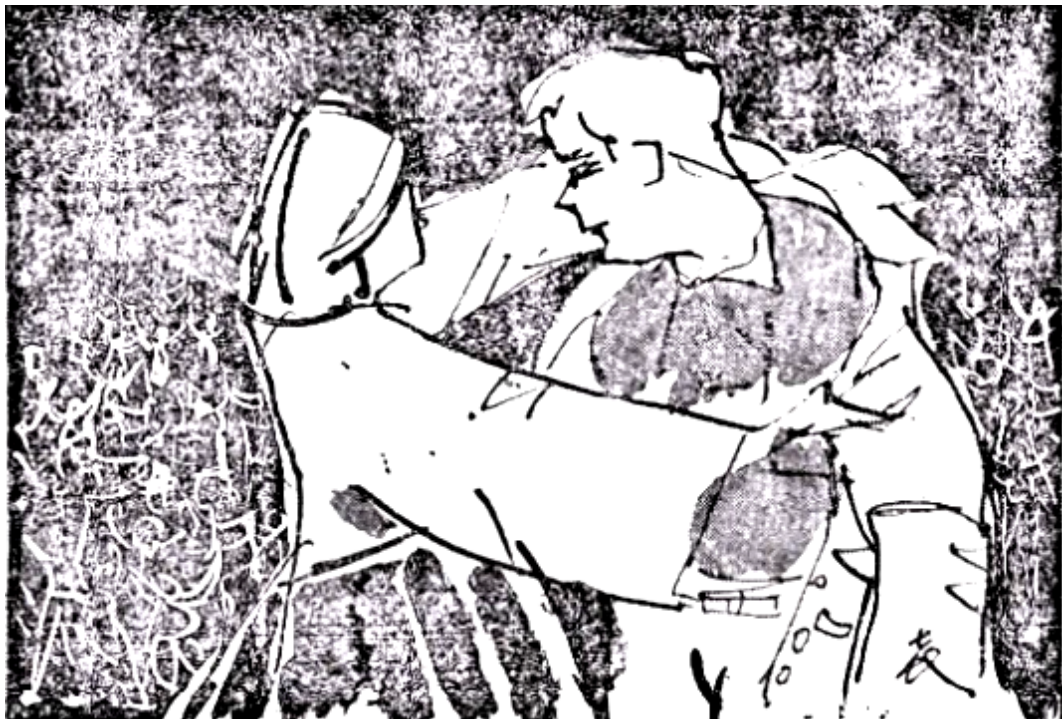
영국의 유명한 물리학자 켈빈(1824-1907)은 여행 중에 어느 수력발전소를 찾아갔다. 젊은 안내인은 그렇게 위대한 학자인줄을 모르고 전기학에 대해서 제법 아는 것처럼 설명을 늘어놓았다.

켈빈은 잠자코 그의 설명을 듣고 있다가 헤어질 무렵에 조용히

“그런데 전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안내인은 갑자기 말문이 막혀 버렸다.

“아니 좋습니다. 당신이나 나나 전기에 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뿐입니다.”



<희곡>

인간재생(人間再生) (1막)

유기영(柳基英)

때-8월 15일(1945년)

곳-어느 도시

인물-

어머니……50여세.

영희……결혼적령기의 처녀.

현석……30세. 불구자 원편 손이 없다

영희의 고모……40여세.

행인들 다수.

무대-어머니와 영희가 마루에 앉아서 얘기하고 있다. 나지막한 담 너머로 오고가는 행인들의 머리가 보인다.

어머니 (영희에게 타이르듯) 뒷집 반장네 아들도 기어코 징용을 가게 됐구나. 오늘 열두시 차로 부산에 집합하게 된다고 인사하러 왔더라. 사람이 온통 죽은 상이더구나.(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영희의 눈치를 살핀다). 두고 봐, 그래도 눈코가 바로 박히고 사지가 멀쩡한 사내는 다 끌려가고 말테니,(영희의 어떠한 대구가 있기를 기다린다).

영희 (듣기 싫다는 표정이다).

어머니 요즘은 오늘 썩성한 사람도 어느새 끌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거든. 반장 네 아들도 제 만은 안 간다고 큰소리 치더라도 기어코 끌려가게 됐잖나. 말이다.(끝을 끌린다).

영희 (떡 불편한 안색으로) 그래도 갈 사람은 가고 안 갈 사람은 안 가고 그렇지 뭐……

어머니 (결눈질로 영희를 흘겨보며) 너는 그 사람을 그렇게 싫어 하지만 나는 네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절대로 좋다고 생각한다. 손가락 두개쯤 없는 게 흠될 게 뭐냐. 그래도 대학을 나왔고 살림살이도 그만하면 됐구……. 그야 그 사람이 몇 해 전에 사상 관계로 감옥살이를 했었지만 그것도 (말을 낮추어) 특 까놓고 말하면 독립운동 한 것이니 흠 될 것도 아니잖나. (영희로부터 무슨 대꾸가 있기를 기다린다).

영희 ……

어머니 그 사람도 손만 그렇지 않았던들 벌써 끌려가서 죽었을 사람이다. (다시 타이른다). 요즘 딸 자식을 가진 부모들은 신랑감 구하느라고 모두들 애태우는 줄 너도 알고 있잖나. 너는 이러쿵저러쿵 해도 난 너 치을 걱정이 태산 같아서 원 잠을 못 잔단다.

영희 어머니는 내가 시집 보내달라고만 하는 것 같이 말씀하셔. 그럼 전 전쟁이 끝 날 때까지 시집을 안가겠어요.

어머니 (화를 별걱낸다). 뭐라구?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도 모르는 전쟁을(다시 부드러워지며) 애야, 손가락 두개쯤 없는 것 문제가 아니잖나.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는 남편을 구해야 될 일 아니냐 그러니까……(하고 영희를 바라본다. 그러나 영희는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는다). 해옥이도 봐, 결혼한 지 두 달 만에 남편이 징용에 끌려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모르게 됐잖나. 정순이도 결혼은 했었지만 과부같은 시집살이가 아니냐. (영희의 어떠한 의사표시를 기대한다. 그러나 영희는 여전히 없다). 어미의 말을 들어라, 그래도 어미의 말이 켈 옳은 것이란다.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너를 생각한다. 어미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틀림없단다. 응, 응! (영희의 답을 촉구한다).

영희 옛날과 달라서 지금 시대는 무엇이든지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 (깜작 놀라며) 그럼 네 맘대로 하겠다는 거냐?

영희 그런 건 아녜요. 당사자인 저의 의사도 존중 되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손가락 두 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원편 손이 온통 없어요.

어머니 온통 없는지 손가락이 없는지 봤니?

영희 안 보고도 알아요. 어머니 거짓말 하시는 걸 전 알아요.

어머니 아아따 넌 어찌면 안 보고도 아니? 설사 온통 없거든 치더라도 한 울안에서 살 수 있는 남편이면 그것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냐.

(한참 영희의 표정을 살핀 다음). 난 오늘 정혼을 할까 한다.

영희 (정혼이라는 말에 깜작 놀란다). 싫어요 싫어요 난 싫어요! 손 없는 사람하구 어떻게 한 평생을 살란 말예요.

어머니 (같이 화를 내며) 그럼 나도 몰라! 너처럼 고집쟁이 애도 첩 봤구나. 정승도 제마다면 못한다더니 네야 네 한평생 혼자 살던 말던 난 모른다.(꾸 울리게 한숨을 쉰다). 아무튼 요즘 세상은 제 자식 갖고도 제 맘대로 못하는 세상이니……. 그래 오늘 네 고모가 사람을 데리고 온다 했으니 네 눈으로 보고도 정 싫다면 넌들 어떻게거니.

영희 오긴 어디를 와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온다더라.

영희 싫어요. 난 싫어요. 왜 멀쩡한 나를 병신한테 치우겠다는 거예요? 난 싫어요!

이때 대문간에서 인기척이 나며 고모가 들어온다.

고모 쉬 쉬. 왔어요. 신랑감이 들어와요.

어머니와 영희. 당황하며 일어서서 옷맵시를 고친다.

이때 원편 손에 검은 장갑을 낀 현석이 들어선다. 그는 키가 크고 훌륭한 남자로 보인다. 영희는 바쁘게 방으로 뛰어 들어가 버린다. 어머니는 방석을 내놓고 현석에게 올라앉기를 권한다. 고모도 따라서 권한다. 현석, 점잔하게 마루에 올라서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한다. 그의 원편 손은 의수인 만큼 어딘가 부자연스럽다.

어머니 (맛절을 한다). 작년에 한번 보기는 했지만……

현석 (고모를 돌아보며) 아주머님이 자꾸만 가자구 해서……

어머니 잘 왔습니다. (방 쪽을 보고) 애야 회야, 손님이 오셨는데 부채 가져오렴.

영희는 좀체 나오지 않는다. 고모가 들어가서 영희를 데리고 나온다. 현석이 일어서자 영희와 시선이 마주친다. 영희는 부채를 어머니에게 주고는 약간 옆을 보고 서 있다.

어머니가 부채를 현석에게 건네면서 앉으라고 권한다. 고모는 영희를 끌어 앉힌다. 영희 못 이겨 비스듬히 앉는다.

어머니 와이셔츠가 흠뻑 젖었구려. 옷통을 벗으세요.

고모 어디 이리 주세요.

(하고 옷통을 벗긴다. 현석은 못 이겨 옷통을 벗는다. 그러나 손이 부자유해서 힘들어 보인다.

어머니, 담배를 내밀며 권한다. 현석, 담배를 물고 성냥갑을 무릎 위에 놓고 검은 장갑 손으로 성냥갑을 누르고 불을 켜는 동작을 영희가 결눈질로 훑쳐본다.)

어머니 (거북한 듯이) 듣기에는 손가락 두개가 없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요.

현석 (서슴지 않고) 아니올시다. 온통 없습니다.

어머니 온통 없으세요.

현석 네, 전연 없습니다.

고모 (눈짓을 검뻑하며) 거짓말 하시는구려.

현석 아주머니는 잘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내가 속이면 평생을 속여 내겠습니까?

영희, (고모가 얄밟다는 듯이 힐끔 거들며 본다.)

어머니 듣건데 경찰서에서 그랬다고요. 몸쓸 놈들이.

현석 네, 그런데 나를 취조한 야마모도란

형사는 내 손이 그놈의 집에 도착하던 날 죽었지요.

어머니 손이 도착하다뇨?

호기심에 끌려 영희도 앓음새를 고쳐 귀를 기울인다.

현석 야마모도가 나를 취조하며 하는 말이 “너 같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황민운동(皇民運動)이 안 된다.”고 하기에 “배달자손이 황민이 될 수 없다”고 했더니“그렇지만 너 같은 자식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황민이 됐다”고 하며 “도대체 너희들이 말하는 단군이란 어느 말빠다구냐?”하더군. (점차 흥분한 어조로)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떠들어대는 천황이란 어느 개빠다귀냐!”하구 그 놈의 뺨을 후려 갈겼지요. (하고 검은 장갑 손으로 허공을 친다) 그랬더니 악이 난 야마모도는 “응! 그 손으로 내 뺨을 쳤다. 그래, 그 손이 네 팔에 온전히 붙어 있는가 어디 보자!”하더니 다짜고짜 이 손목에 수갑을 채워서 높다란 천장에 달아매고는 가죽 혁대로 마구 후려 갈기는 통에 나는 정신을 잃었지요, 전신에서 피가 흐르고 손목의 살이 찢어지고 마디가 빠지고 했습니다. 야마모도는 나를 구두발로 차고 짓밟고 하면서 “자, 또 나의 뺨을 때려 봐!”하며 빙글 빙글 웃더군요. 이미 이때 내 손은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간(間)-

어머니 예구 몸쓸 놈!

현석 그래서 내가 입감한지 한 달도 못 되서 손목이 곪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약을 쓸 수도 없고 옥의(獄醫)는 손목을 절단해야 한다고 했어요. 간(間)- 나는 절단된 손을 백지에 싸서 그때 다른 경찰서로 전근 간 야마모도의 사택으로 송부했죠. 그런데 야마모도는 그때 무슨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내 손을 펴 보고 그날 밤에 죽었어요. 우스운 얘기는 어느 왜놈의 점쟁이가 야마모도의 마누라에게 그 손을 야마모도와 함께 화장을 하지 않으면 장차 큰 화가 미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손을 증거로 나를 고소하러던 생각을 버리게 됐더군요.

바로 이때 정오를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온다.

어머니 그 놈 천벌을 받았구려. (영희를 향해서) 열두시 종소리지? 가서 점심을 준비해 줘.

현석 아니, 전 그만 가겠어요.

하고 일어서려 하는데 갑자기 뒷골목에서 군중들이 때를 지어 지나가며 “해방이다. 해방이다! 일본이 항복

했다!” “만세! 만세!”하고 외친다. 현석, 와다닥 일어선다. 모두들 깜작 놀라며 일어선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냐? 정말입니까?

현석 정말일 것입니다. 오늘 열두시에 중대방송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이때 뒷골목에서 또 군중들이 해방이다 독립이다 하고 만세를 외치며 연달아 지나간다.

고모가, 대문 밖으로 뛰어 나가자 어머니도 뒤따라 뛰어 나간다.

현석 (옷통을 급하게 입으며) 놈들이 이제야 망했다! 아! 꿈에 그리던 오늘 이날! 내 조국이 우리 품안으로 돌아오는 이 거룩한 순간!

하고 현석은 입던 옷통을 왼팔에 걸치고 똑바른 자세로 몸을 고쳐서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한다.

영희도 어느새 고개를 숙인다.

현석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어렸다.

영희, 고개를 살며시 든다.

현석 (영희를 향해서) 이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땅 위에서 있습니다. 36년 만에 자유의 땅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희 (현석을 정면으로 본다. 그의 눈에는 감격이 넘친다). 독립! 어쩌면 꿈만 같아요.

현석 거룩한 꿈이죠. 그러나 엄연한 현실입니다.

하고 현석, 서둘러 옷통을 입는다. 그러나 왼편 소매의 의수에 걸려서 빠지지 않는다.

영희 (현석의 옷을 바로 입혀주며 자신도 모르 게 문득 나오는 말로) 그렇지만 손이 이래서…….

현석 아직 오른편 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하고 번쩍 쳐들어 보인다).

영희 선생님 미안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해방을 위해서…….

현석 당신도 해방 됐습니다, 이제는 나 같은 병신하구 결혼하지 않아도 좋게 됐습니다.

영희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 고개를 숙이고 만다)

어디선가 애국가가 들려온다. 현석, 문득 그 쪽을 향해서 절을 한다. 그리고는 바쁘게 마루를 내려 서둘러 대문 밖으로 사라진다.

영희는 거의 자동적으르 그의 뒤를 따라 대문에 붙어서서 그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다 보고 있는데 어머니, 당황하게 등장.

어머니 (다짜고짜 영희의 두 손목을 잡고 좋아라고 흔들어 대며) 일본이 항복했구나. 정말루 항복했구나. 영희야 이제는 다들 살아났구나.

영희 (조용히) 어머니.

어머니 오냐, 이제는 살아났다. (영희의 머리를 어루만져준다).

영희 어머니, (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는다)

어머니 그래 그래, 이제는 손 없는 병신하구 결혼 하지 않아도 좋게 됐단다. (영희의 어깨를 쓰다듬어준다).

영희 어머니, 결혼 하겠어요. 이제 그이와 결혼하겠어요.

어머니 (깜짝 놀라며 한발자국 물러선다). 뭐? 머라구?

영희 그이의 왼손이 되겠어요. 조국을 사랑하는 아내가 되겠어요.

어머니의 눈은 더욱 등그레진다.

교회의 종소리가 한결 성스러이 들려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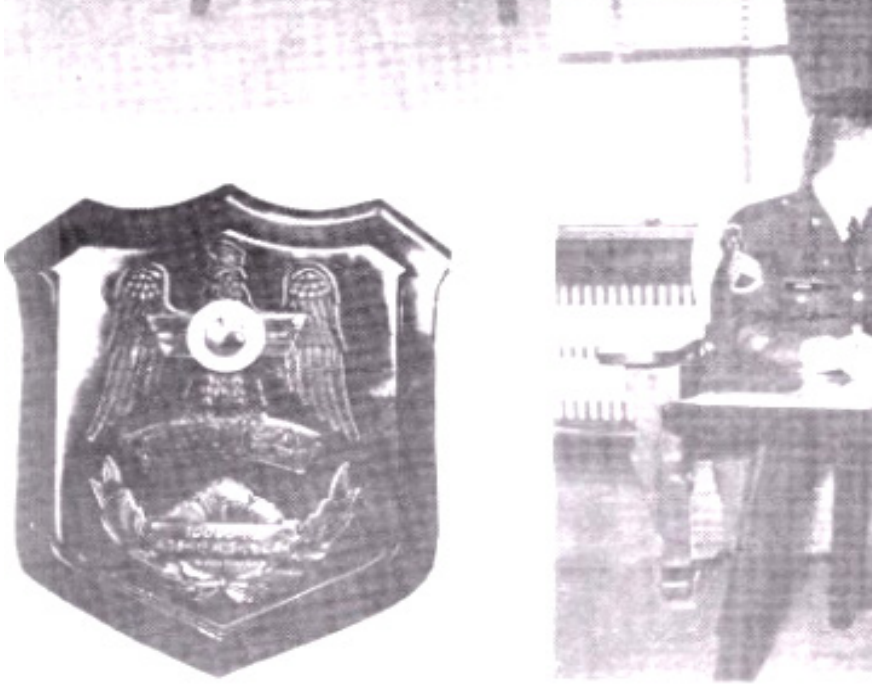
-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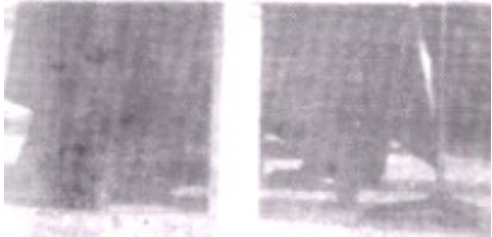
←과 구임 로버트 H 와렌 미공군소장은 지난 10월 27일 김 참모총장을 예방하였다.

화 보

↓ 지난 11월 3일 김 참모총장은 전세계에 방송망을 가지고 있는 미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한국 공군의 임무, 활동 상황 및 한 · 미공군간의 협동문제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공군전부대대항 웅변대회가 지난 10월 20일 공군본부대강동에서 개최되었다.(사진은 동 시상식 광경)



←지난 11월 9일 제1조련비행단 제1초등훈련전대에서는 당당 무사고비행 10,000시간을 돌파함으로써 한국 공군의 세련된 조종술과 정밀한 정비술을 또 한번 내외에 과시하고 김 참모총장으로부터 영예의 비행안전상패를 획득하였다.



혁명공약

1.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2. 유엔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3.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4.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을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핵폭탄을 적재한 미전략공군의 장거리 폭격기 B-58은 자유진영의 하늘을 초계하며 언제라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만 있으면 기수를 돌려 깊숙이 공산권 영토에 침투하여 침략자들을 일거에 무찔러버릴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B-58제트 폭격기는 음속의 2배로 비행한다.)

미사일 월간 제7호

발행처(發行處)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겸편집인(發行兼編輯人) 공군대령 주정호

인쇄처(印刷處) 공군교재창

인쇄인(印刷人) 공군대령 김석환

미사일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